

미국 내 한국문화재 활용과
문화재 반환 국제규범 및 미국법제 연구

2017년 9월

문화재청
김미란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클리블랜드 박물관(Cleveland Museum of Art)
3. 훈련분야 : 일반행정(문화재)
4. 훈련기간 : 2015. 10. 1. ~ 2017. 9. 30.

훈련기관개요

기관명	미국 Cleveland Museum of Art
주 소	11150 East Boulevard, Cleveland, Ohio 44106
전화번호	1-216-707-2231
팩스번호	1-202-707-6521
홈페이지	http://www.clevelandart.org
설립목적	○ 세계적 복합예술박물관 및 시민문화연구소 ▪ 1913 설립, 약 6,000을 아우르는 대륙별 약 45,000여점의 고품격 미술품 수집, 활용, 보존 ▪ 1915 한국 미술품 수집 시작 ▪ 2013 한국관 설치
조 직	○ CMA 현황 ▪ 미국 중서부의 대표적 박물관으로 약 500여명의 직원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미술품 수집, 보존처리, 전시, 교육, 출판, 프로그램 운영 ▪ 중국실, 일본실, 한국실 별도 설치 및 한·중·일 전문 큐레이트 보유한 아시아 전문 박물관 중의 하나임
주요기능 및 연구	○ 미국 및 유럽미술품 수집, 보존처리, 전시, 출판, 연구 ○ 아시아 미술품 수집, 보존처리, 전시, 출판, 연구 ○ 박물관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한 휴머니티 증진 ○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다양성 추구

목 차

요 약.....	1
제 1장. 미국 내 한국문화재 활용	
I. 미국 박물관 건립 및 운영.....	8
1. 미국 박물관 건립 및 발전.....	8
2. 미국 박물관 조직구조 및 운영.....	10
II. 미국 박물관 보존처리	14
1. 미국 박물관 보존처리 역사	15
2. 미국 보존처리가 현황 및 교육시스템	16
2-1. 미국 보존처리가 현황	16
2-2. 미국 보존처리 교육시스템	16
3. 미국 박물관 보존처리 운영현황	19
4. 미국박물관 모범적 보존처리 사례	21
III. 미국 내 한·중·일 미술 및 문화 전파	25
1. 미국 내 일본 미술 및 문화 전파	27
2. 미국 내 중국 미술 및 문화 전파	34
3. 미국 내 한국 미술 및 문화 전파	51
IV. 미국 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현황	76
1. 극동아시아 갤러리 내 한국문화재 활용 현황	77
2. 한국미술 큐레이터 보유 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현황	95
3. 미국 대학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현황	102
4. 한국실 운영 애로사항	119
5. 한국실 운영 활성화 요청사항	120

V. 미국 미술시장과 한국문화재	122
1. Asia Week 현황	122
2. Asia Week의 옥션 현황.....	126
VI. 미국 대학 내 한국미술사	132
1. 미국 대학의 미술사 형성 및 발전	132
2. 아시아 미술사 석사·박사 프로그램	135
3. 아시아 미술사 박사논문 현황	139

제 2장. 문화재 반환 국제규범 및 미국법제

I.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배경	146
1. 이집트의 네페르티티 흉상 반환 요청	148
2. 그리스의 엘긴 대리석상 반환 요청.....	150
II. 문화재 보호 국제적 노력	153
1. 문화재 불법거래 현황	153
2. 문화재 보호 국제규범	156
2-1. 1954년 헤이그 협약	156
2-2. 1970년 유네스코 협약	159
2-3.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	162
3. 1970년 협약 이후 40년 평가 및 미래	167
III. 미국의 문화재 반환법제 및 사례	173
1. 미국의 문화재 반환 법제	173
2. 연방문화재협약이행법	176
3. 연방도품법	178
4.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 사례	182
IV. 맺는 말	191
참고문헌	195

(요약)

미국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미술관, 역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과학·기술 박물관, 동물원·수족관, 식물원·자연센터 등으로 등록된 박물관은 35,000개에 이르며 2017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자료에 의하면 미국 박물관, 도서관, 공공기관에 46,404점의 한국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중국, 일본 문화재 또한 미국 전역에 산재해있다. 즉, 미국에서 이들 미술은 “극동아시아 미술”이라는 한 카테고리에서 전시·활용·연구되고 있다. 이에 미국 내 한국문화재 활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아시아 미술 범주, 특히 한·중·일 미술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한·중·일 문화재 활용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이들 3국의 문화 및 미술 전파가 우선 고찰되어야 한다. 다음은 한국문화재 활용의 효율적 지원과 미국 박물관과의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미국 박물관 태동 역사와 조직구조 및 운영을 살펴보겠다. 박물관 전시와 더불어 미술시장에서의 거래 그리고 대학 내에서의 아시아 미술사 부문도 활용의 중요한 장이다. 즉 박물관, 옥션, 대학의 3대 기관은 유기적 통합 관계를 맺고 있는바, 미국 3대 옥션과 미국 대학의 미술사에서 한·중·일 비중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다음은 동전의 양면인 활용과 더불어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문화재 반환 과제 또한 한국만의 상황이 아닌 문화유산이 풍부한 문화재 원천 국가들의 공동 과제로 2장에서는 문화재 반환 국제적 배경과 국제 규범, 미국의 문화재 반환 관련 법제와 반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미국 박물관은 유럽 박물관의 후신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미국은 급격한 산업성장으로 거부들이 탄생, 이들은 유럽을 여행하며 유럽미술 컬렉션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미술(문화재)로 확산하며 세계적 박물관(International Museum)을 건립하였다. 스미소니언박물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박물관들은 사립박물관으로 기부나 기증, 박물관의 수입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는 7월에서 익년도 6월이 1년 회계이며 박물관 조직은 엄격하게 분리 운영

되나 “미술품 전시”를 축으로 상호 유기적·통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능의 중앙에는 큐레이터가 있으며 수직적으로 어시스턴터 큐레이터(학예연구사), 어소시엇 큐레이터(학예연구관)와 관장 및 이사회가 있다. 결론은 한국미술 담당 큐레이터 존재 여부에 따라 한국문화재 수집, 전시, 보존처리, 출판, 문화행사, 커뮤니티 구성 등 활용의 질과 양은 확연히 달라진다. 이는 한국문화재 활용 지원에 있어 물리적 지원과 더불어 인적 인프라 구축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임을 말해준다.

한국문화재 전시 활용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보존처리이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보존처리 학이 발전되어 왔으나 현재 아시아미술 보존처리부를 운영하는 박물관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보스턴 박물관, 프리어·새클러 박물관, 클리블랜드 박물관 4개 박물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아시아미술 보존처리는 주로 중국식, 일본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미국 내 한국미술 보존처리가 육성이 필요하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한국 보존처리가 미국 박물관에 상주, 중·단기 집중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상호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보존처리는 그 자체로 활용의 한 단면이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과 게티 보존과학센터의 공동 보존처리 및 연구, 로스앤젤레스 박물관의 고려 불화 보존처리 공개와 미국 역사박물관의 성조기 보존처리과정의 전면공개는 문화재 관심 확산 및 보존의 공감대 형성, 더불어 정체성 제고의 모범적 사례이다. 즉, 향후 문화재 보존처리 시 일시적 과정이 아닌 보존처리 과정 자체가 문화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박물관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십중팔구 한국 전시관의 초라함에 불만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가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한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넬슨 앳킨스 박물관, 필라델피아 박물관, 프리어 갤러리 등의 어리어리한 중국관과 일본관에 비해 초라한 한국관을 보면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로스앤젤레스의 라크마(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일본관은 별채 건물로 건물 규모나 내부 디자인, 소장품의 양과 질에서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위풍당당함을 느낄 수 있다. 넬슨 애킨스 박물관과 프리어 갤러리 중국관 또한 관람객으로 하여금 중국문화에 대한 경외심을 자아내게 한다. 하지만 오늘 날 이러한 양상은 결국 19세기 말, 20세기 문화 제국주의의 양상으로 참으로 아픈 역사의 결과이다. 이들 3국은 모두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 개방되어 전통 가치관과 정치·사회 조직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개인 수집가, 딜러, 박물관들에 의해 국보급 문화재들이 헐값에 유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 적극적으로 일본미술 및 문화를 수출하였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주도적으로 이용 서구로부터 아시아의 맹주로 인정받으며 일본미술을 유럽미술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일본전통 미술에 심취된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 어니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asa), 윌리엄 비겔로우(William Sturgis Bigelow) 등 저명 컬렉터와 학자들의 연구가 일본 문화 및 미술사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중국은 미국혁명 후 미국 동부 지역과 차 수출을 시작으로 일상 생활용품이나 문화재들이 미국으로 수입되었으며 1830년대 필라델피아에 이미 중국 박물관이 건립되어 미국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청조 멸망은 유럽 및 미국 컬렉터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황금의 시기였다. 부패 관료와 도로 건설 노동자들은 도굴이나 발견한 국보급 문화재들을 닥치는 대로 팔았으며 관직을 박탈당한 관료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가문의 보물들을 헐값에 팔아야만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중국 컬렉션들은 프리어나(Charles Lang Freer, 1856~1919)와 퍼거슨(John. C. Ferguson) 등에 의해 경제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가 격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1882년 조미수호통상 조약 이후 선교사, 외교관, 사업가들에 의해 소규모로 수집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컬렉터들은 중국문화재나 일본문화재 수집을 통해 한국문화재를 수집하였다. 한국 문화재와 미국과의 첫 만남은 불편하고 서글프다. 1880년 대 말,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은 미 해군 버나도(John Baptist Bernadou), 주이(Pierre Louis Jouy)와 선교사 알렌(Horace Newton Allen)으로 하

여금 한국 물품을 수집하게 하여 첫 전시를 하였는바, 이 전시는 미술품 전시가 아닌 민족지학적 전시로 한국문화를 부족적 단계의 수준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1893년 한국은 최초로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전시 규모 및 수준은 윤치호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참함’ 자체였다. 이 후, 한국 정부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1950년대, 1970년대 말 정부 주도 해외순회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이 전시회로 미국 대중은 한국 5,000년 역사의 연속성과 독창적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한국 문화재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많이 유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오늘 날 미국 박물관의 한국 갤러리 운영의 가장 큰 난제는 상설전시회 조차 어려운 한국 미술품의 규모이다. 공식적 미국 소재 한국문화재가 46,404점이라고 하지만, 상당수가 전시에 부적합한 수준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미술품 중 가치가 상급이라는 클리블랜드 박물관의 소장품 374점 중 100점이 손가락이며 이웃 디트로이트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베개 등 박물관에서 난처해하는 문화재 아닌 문화재들이 상당하다. 이에 유의해야할 점은 국외 소재 문화재의 숫자에 중요성을 부여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 모두가 환수의 대상인 것처럼 왜곡해서도 안 될 것이다.

미국 소재 한국 문화재 활용은 일반 박물관과 대학 박물관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에 의한 활용과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에 의한 활용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 박물관 대상 한국갤러리 규모 및 소장품 규모, 구매 및 기증의 수집현황, 전시, 출판, 문화 및 학술행사 개최 현황, 보존처리 현황, 외부로 부터의 지원 현황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갤러리 및 소장품 규모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나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에 의한 문화재 수집, 활용, 보존처리 등은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에 의한 운영에 비해 아주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소장품과 갤러리 비중이 아주 미미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한국 미술 전문가(큐레이터, 보존처리가, 조사연구원 등)를 육성, 지원하는 것이다. 2017년 송광사에 오불도(五佛圖)를 반환한 포틀랜드 박물관의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는 고령의 베테랑 일본미술 전문가이다. 그러함에도 일본 국제교류

재단은 일본미술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자리에 기금을 출연하였다. 충분히 일본미술이 잘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시스턴트 자리를 확보한 그들의 전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박물관에서의 활용과 더불어 두 번째 활용은 미술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의 3대 옥션으로는 크리스티, 소더비, 보넴 옥션으로 이들은 미술품 매매 뿐만 아니라 옥션에 나온 문화재들을 전시하거나 도록을 출판하여 큐레이터, 학자 및 학생, 일반인들에게 지식과 고품격 문화재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매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Asia Week은 옥션과 더불어 갤러리 개방, 박물관 투어, 심포지엄, 워크숍 개최 등으로 아시아 미술의 큰 축제장이다. 지난 3년간 아시아미술 옥션현황을 보면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 옥션은 활발한 반면 한국 전통미술 거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전통을 모티브로 한 현대미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박물관과 옥션보다 중요한 부분은 대학 내에서의 한국 미술사의 위치이다. 박물관과 옥션을 유지하며 인력 공급을 하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에서 미술사는 초기 신사 숙녀들의 교양 함양에서 시작되었으나 제 1차 대전 이후 유럽과의 교류로 전문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나치의 유대인 축출 정책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독일 학자들에 의해 심화, 번성되었으며 동양미술사는 미국이 태평양 전쟁이나 한국 전쟁 등 아시아 정세에 관계함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뛰어난 미술 컬렉션과 방대한 도서관 자료들은 미국 대학 미술사가 유럽대학을 앞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들 대학이 배출한 미술사 전공자들, 특히 석·박사들은 바로 각국의 문화재 활용으로 이어진다. 미국 저명 10개 대학 미술사 석·박사 프로그램 중 중국미술 15개 프로그램, 일본미술 11개 프로그램, 한국미술 3개 프로그램(한국미술2, 한국영화와 문화 1), 인도와 동남아시아 미술사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3년간 미국 대학이 배출한 아시아 미술 박사 논문 중 중국 미술 35편, 일본 미술 6편, 한국미술 관련 논문 5편, 인도 및 동남아시아 미술 7편으로 미국 대학의 아시아 미술사에서

한국미술사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한국 미술사 교육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미국 대학에서 대학 교재로 채택할 만한 전문서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미술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문화재는 그 미적 가치와 역사적, 경제적 가치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약탈과 도난의 대상이 되었다. 문화재 반환 국제적 분쟁의 대표적 예로 이집트의 독일 박물관 대상 “네페르티티 흉상” 반환 요청과 그리스 정부의 영국 박물관 대상 “엘긴 마블(파르테논 대리석상)”반환 요청을 들 수 있다. 이들 반환 요청은 각각 1924년과 1832년에 시작되어 오늘 날에까지 지속되고 있는바 문화재 반환은 1년 2년에 실적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특히 그 가치가 상당할 때는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의 복잡한 요인으로 더욱 어렵다. 효율적 반환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최대한 많이 조사하여 법적,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상대국 국민으로부터도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 보호 국제 규범으로는 1954년 헤이그 협약, 1970년 유네스코 협약과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수많은 문화 유적들이 파괴되었으며 문화재가 도난, 약탈되었다. 이후 유네스코는 전쟁 또는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1954년 헤이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평상시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 방지를 위하여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원천국가에서의 문화재 파괴 및 불법 반출을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행력 결여, 시효 문제, 제한적 보호 등의 결점을 드러내었다. 1995년에는 유네스코 협약의 사법적(私法的)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니드로와 협약이 체결되었지만 대부분 시장국가들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유네스코는 협약 체결 이후 40년 평가와 미래 방안을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시장국가와 문화재 원천국가간의 입장과 견해 차이는 갈수록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문화재 보호 및 반환에 관한 법으로는 주법과 연방법이 있으

며 연방법은 법령, 조약과 행정협정, 행정조치,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 격으로 문화재협약이행법(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CPIA)과 형사소송법으로 연방도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이 있다. CPIA 제정으로 1970년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들은 미국과 문화재 보호 및 반환에 관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현재 중국, 그리스, 이탈리아, 콜롬비아, 캄보디아 등 15개국이 체결하였다. 연방도품법 집행 사례로 United States v. Hollinshead, United States v. McClain, United States v. Schultz 건이 있으며 이 법은 원천국가로 하여금 도난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효성을 저해시켰다. 미국은 2008년 미국박물관장 협회(Association of Art Museum Directors)에서 미술품 구입 윤리강령을 제정, 프로버넌스(Provenance, history of art)에 철저를 기하였지만 미국 박물관과 갤러리, 옥션, 컬렉터, 딜러들은 끊임없이 반환요청을 받고 있다. 미국 국토보안부(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는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 조사 및 반환 기구로 2007년 이후 30여개 국가에 약 8,000여점의 문화재를 반환하였다. 최근 3년 국토보안부의 반환 사례는 각국의 소중한 문화재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약탈되는지를 보여준다. 오늘 날 한국의 문화재는 더 이상 한국만의 문화재가 아니라 극동아시아 미술, 아시아 미술, 세계 미술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숭례문 방화로 인한 한국 국보의 물리적 훼손은 인류 문화 전체의 손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불상 및 유적 파괴는 곧 인류전체 문명의 파괴인 것이다. 즉, 각국의 문화유산은 종교적, 지역적 경계를 벗어나 전체 인류문화유산으로 존중·보호되어야 한다.

제 1장. 미국 내 한국문화재 활용

I. 미국 박물관 건립 및 운영

미국은 일본 다음으로 한국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자료에 의하면 2017년 9월 현재 32개 박물관, 도서관, 공공기관에서 46,404점의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단과 국제교류재단 등 한국 기관들과 가장 활발한 지원이나 협력이 이루어지는 박물관도 미국 박물관이다. 이들 박물관들과의 협력관계는 일시적이 아니라 한국문화재가 미국에 있는 한 지원과 상호협력은 지속, 발전될 것이다. 대부분 한국 박물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며 담당자들이 2년 내지 5년 주기로 바뀌는 반면, 미국 박물관은 개인들에 의해 건립, 기부금이나 박물관 수입 기금으로 운영되며 담당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년에서 30년 동안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처럼 두 나라의 상이한 기관 구조와 행정 운영은 지원과 협력 시 예기치 않은 장애와 오해를 야기한다. 이에 한국 문화재의 효율적 지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 박물관의 건립 배경 및 발전, 구조와 운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미국 박물관 건립 및 발전

미국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미술관, 역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과학·기술 박물관, 동물원·수족관, 식물원·자연센터 등으로 등록된 박물관은 35,000개에 이르며 미국박물관협회 자료에 의하면 매년 850만 명이 미국 박물관을 방문한다. 240년 정도의 짧은 건국 역사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이런 세계적 박물관들을 보유, 운영하게 되었을까?

미국 주요 박물관들은 1870년대에 태동하기 시작하여 -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1870년), 보스턴 미술관(1870년), 필라델피아 박물관(1876

년), 스미소니언 박물관(1876년), 시카고 박물관(1879년)- 박물관 건립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인식되어 동부에서 중부 그리고 서부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박물관과 더불어 미술관, 오케스트라, 대학, 병원 등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등장한 신흥 거부들의 사명감과 큰 기부였다.

유럽과 아시아가 제 1, 2차 세계 대전 전후,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을 때 미국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광산, 석유, 철도, 자동차, 은행, 증권, 제조 등 각 산업 부문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속출하였다. 이 거부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을 여행하기 시작,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그들이 보고 느낀 바를 이웃과 공유하고 싶어 하였다. 그 예로, 유럽 박물관들을 옮겨와 세계여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박물관이 왕실이나 국가의 내셔널리즘에 기반을 두는 반면 미국 박물관의 철학적 뿌리는 나눔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있다. 19세기 후반 무렵, 미국 박물관의 롤 모델은 영국의 사우스 켄팅턴 박물관(South Kensington Museum, 지금의 Victoria and Albert Museum)으로 사우스 켄팅턴 박물관은 그 당시 영국 산업혁명 시기의 산업 디자인 중심 기관으로 새로운 디자인 제품들을 설치, 전시 하였으며 그 수요층도 일반 대중이 아닌 디자이너, 사업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미국 초창기 박물관들도 신흥 부자들이 유럽에서 수집한 진귀하고 이색적인 물건들을 진열한 수준으로 역사적, 문화적, 대중적, 교육적 개념이 결여된 전시였다. 이 후 20세기로 진입하면서 기존 박물관 운영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 되었으며 이 비판은 롤 모델을 독일 박물관이나 스위스 박물관으로 전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Cultural History"라는 개념이 19세기 후반 독일 학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개개의 미술품들에 종교, 정치, 철학, 과학과 함께 역사적 개념을 내포시키는 것으로 독일 박물관들의 전시는 "시대적", "지역적", "미적" 개념을 추구하게 되었다. 미국 박물관 관계자 - 이사회, 관장, 큐레이터, 건축가, 디자이너 등- 들은 독일이나 스위스 박물관을 순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박물관 외형에서 각 갤러리 배치, 전시 방법, 프로그램, 레이블링(미술품 설명)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조사로 20세

기 초 그들의 박물관에 적용하였다. 그들은 컬렉션을 보기 좋게 배치하는 것에서 탈피, 연대별로 분류하기 시작하였으며 박물관 부서를 전문적으로 조직하였다. 박물관 건립의 주축인 이사회 중심의 비전문적 운영에서 벗어나 미국 전체 박물관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906년에 미국 박물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가 설립되었으며 전문적인 큐레이터를 양성하기 위하여 1908년에 박물관 과정(Museum study course)이 생겼다. 즉, 박물관이 그저 진귀하고 이색적인 물건을 소장, 전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적, 문화적, 미적, 교육적 기능으로 발전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다음은 박물관 내부 조직이나 기능을 살펴봄으로 미국 박물관내 한국문화재 활용 상황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2. 미국 박물관 조직 및 운영

신흥 부자들의 자본과 컬렉션으로 건립된 박물관은 그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즉, 그들은 컬렉션과 기금을 기증·기부하는 박물관 후원자인 동시에 최종결정권을 가져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컬렉션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미술사"가 대학의 한 학문으로 형성됨으로써 박물관은 전문성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이는 곧 사업가 중심인 이사회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각 미술 분야의 큐레이터, 교육가, 보존처리가, 회계원, 조사연구원 또 이들을 총괄할 수 있는 관장을 채용하여 운영하게 하였다. 다음은 미국 박물관의 표본이 될 수 있는 클리블랜드 박물관의 조직도를 보면 이사회(Board of Trustee) 이하 다음과 같이 2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클리블랜드 박물관 부서			
미술 활용 부서		조직 운영 부서	
학예연구부 (Curatorial Staff)	보존처리부 (Conservation)	관장 및 부관장 (Director and Deputy Directors)	인사부 (Human Resources)
소장품 관리부 (Collections Management)	교육부 (Education and Academic Affairs)	기금부 (Development)	회계부 (Finance)
디자인 및 건축부 (Design and Architecture)	전시 & 출판부 (Exhibitions & Publications)	정책부 (Strategic Initiatives)	마케팅부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홍보부 (Distribution Services)	행사부 (Event Management, Facilities)	관람조사부 (Visitor Experience)	정보관리부 (Information Management and Technology Services)
음악&영화, 사진, 디지털이미지부 (Music & Film, Photographic and Digital Imaging)	공연부 (Performing Arts)	스토어 (Museum store)	레스토랑 및 카페
도서관 및 아카이브 (Library and Museum Archives)		방호부 (Protection Services)	

이들의 기능을 보자면 인사, 재정, 시설, 전산, 방호 등 행정운영 기능과 학예, 보존처리, 리서치 등의 연구적 기능, 교육, 공연, 전시, 도서관 운영 등 공공서비스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서들은 얼핏 독립적인 것 같지만 각 부서들은 미술품 전시를 축으로 상호 밀접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특별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큐레이터는 기금부서와 보존처리가, 작품 핸들러, 디자이너, 교육부서, 리서치, 출판부, 마케팅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떤 작품이 보존처리가 필요한지, 갤러리와 작품 케이스들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교육 프로그램과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지, 어떤 부대 공연을 할지, 특별전의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미팅, 계획, 토론, 실행, 평가 등의 과정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미국 박물관과 한국 기관들의 행정문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공공기관은 예산이 정부로부터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재정 용도가 확실하며 1개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므로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기간이 짧은 반면 미국 박물관 행정은 전시나 보존처리에 필요한 기금을 그 때 그 때 개인, 회사, 재단, 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하며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한국 회계는 1월에 시작되고 미국은 7월에 시작해서 익년도 6월 말에 마감을 하다 보니 한국기관과 미국 박물관은 시차, 행정문화나 프로세스 차이로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한국에서의 지원이 빨리 성과물로 가시화 되어야 하는 반면 미국은 관련 부서들이 많아 조율, 결정에 이르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상대방 부서업무와 의견은 엄격하게 존중되며 만약의 실수에 책임을 전가 받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신중을 기한다. 이러한 부서별 전문성과 부서 간 견제와 균형은 박물관 운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는 학예연구부(Curatorial Department)의 업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미국 박물관들의 미술품들은 고대 그리스, 이집트, 중세미술, 르네상스, 바로크 미술, 미국 미술, 동양 미술, 사진 등 선사에서 현대까지 동서양 미술 전체를 아우른다. 다음은 클리블랜드 박물관의 학예연구부서 조직도이다.

Curatorial Department(15개 분야))	
그리스 로마미술(Greek Roman Art)	중세미술(Medieval Art)
유럽미술(European Art)	근대유럽미술(Modern European Art)
선사콜롬비아·북미원주민 미술 (Pre-columbian and Native North American Art)	미국미술 (American Painting and Sculpture)
현대미술(Contemporary Art)	장식미술(Decorative Art and Design)
드로잉·사진(Drawing&Photography)	인도·남아시아미술 (Indian & Southeast Asian Art)
아프리카미술(African Art)	프린트·드로잉(Prints & Drawings)
중국미술(Chinese Art)	일본미술(Japanese Art)
한국미술(Korean Art)	

이상과 같이 한국 박물관과 달리 미국 박물관은 전 세계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므로 학예연구부서의 업무는 다양하며 방대하다. 이는 제한된 전시 공간과 예산을 놓고 미술 분야별, 큐레이터 간 치열한 경쟁을 수반한다. 큐레이터들은 자기 담당 미술의 확장을 위하여 미술품

구입, 전시, 출판, 교육, 강연 등의 기본적 업무 외에도 작품이나 기부금 모집을 위하여 컬렉터, 도너들을 찾아다니며 관계유지에 힘쓴다. 여기에서 짚고자 하는 것은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컬렉션을 관리·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박물관은 단지 미국 미술과 문화를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세계 역사와 문화, 미술이 공존하는 국제적 문화 기관인 동시에 한 큐레이터의 표현대로 박물관 내부는 “정글”이다. 부서와 직원은 특히 큐레이터는 치열한 경쟁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 예로, 미술품 구입 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품 구입 시 서너 명의 큐레이터가 동시에 결정권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이들은 프리젠테이션 이전 시장조사, 직접방문, 출처 및 프로버넌스(Provenence, history of art)조사, 적법성 조사, 작품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해석을 준비하고 이사회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클리블랜드 박물관에서도 조선시대 달항아리와 미국 회화 등 세 분야에서 치열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으나 미국 회화 구입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달항아리 예정가가 워낙 고가로 예산 부담도 있었겠지만 결정권자들의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낮은 이해도도 큰 장애 요인이다. 미국 박물관의 성격은 “예술성” “학문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 또한 강하다. 국가의 간섭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 창출은 박물관 소장품들과 전시, 행사, 각종 마케팅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아야 가능하다. 박물관 건립 초창기에 운영진들은 성공한 비즈니스맨 출신이었고 지금도 이사회는 성격은 큰 변함이 없어 큐레이터들은 구입 미술품들의 예술성, 역사성, 학문성 뿐 아니라 경제적 효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개별 미술품은 한 나라, 한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미적 산물이므로 배경지식과 이해 없이는 제대로 해석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 박물관에는 한국 미술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극히 드물다. 비전문가들이 한국 문화재를 담당할 때 한국 문화재 해석에 오류를 범할 수 있거나 활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분석은 IV. 미국 박물관

의 한국문화재 활용 현황에서 자세히 후술하고자 한다. 미국은 영국, 독일 등 유럽 박물관을 모델로 하였으며 미술사 또한 이들 국가로부터 이식하였기 때문에 어느 박물관에든 유럽 미술 컬렉션은 핵심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 미술을 의도적으로 심었으며 미국 박물관 건립자들의 동양미술과 문화에 대한 열정으로 중국미술, 일본미술, 인도미술 및 남아시아 미술이 강하게 뿌리내려졌다. 동양미술 담당 큐레이터들의 전공은 대다수 중국, 일본 미술, 인도 미술로 이는 한국 문화재 활용이 어려운 기본적인 요인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 박물관 건립 역사와 발전, 내부적 조직과 행정문화, 큐레이터들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미국 박물관 내에서 비중이 미미한 한국 미술을 누가 돌볼 것인가? 한국 컬렉션을 확장하고 특별전을 개최하며,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컬렉터와 도너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기금 확보를 누가 할 것인가? 한국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며, 수장고에서 방치되는 중요한 문화재를 보존처리실로 옮기고, 보존처리 및 복원 기금확보를 요청하며 한국실과 진열장을 한국 문화에 맞게 디자인하며, 개인 컬렉터들의 소장품을 조사하며, 소장품 도록을 출판하며, 잘못 해석된 레이블링을 수정하며, 한국미술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각 박물관에 한국미술 큐레이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는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일본 국제교류재단(Japan foundation)에서 포트랜드 박물관에 고령의 수석 일본 큐레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시스턴트 일본미술 큐레이터 (Assistant Japanese art curator) 자리를 마련하는지 잘 살펴 보아야할 것이다.

II. 미국 박물관 보존처리

미국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의 전시, 교육, 연구, 출판 등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미술품들의 보존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미국 미술관, 박물관 등의 보존처리 현황과 한국문화재 소장 박물관의 보존처리 실태 조사로 향후 해외 박물관 지원 및 협력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미국 박물관 보존처리 역사

19세기 말, 20세기 초 건립된 미국 박물관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작품 수집,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두어 보존처리 기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문화유적 및 문화재 보존·복원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함께 1947년 미국에서 ‘문화유산보존협회(Associ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모임이 개최되었고 하버드 대학과 포그박물관의 ‘Technical studies in the Field of Fine Arts’를 시작으로 보존처리 분야가 학문으로 자리 잡으며 박물관에서 보존처리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1980년대 들어 연방 차원에서 보존처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어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The national Endowment for Art와 The Institute of Museum Service를 주축으로 보존처리를 위한 기금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 박물관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useum)는 국립보존처리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Conservation, NIC)와 미국 보존처리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Conservation, AIC)와 함께 당시 미국 모든 박물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보존처리의 열악한 상황을 조사, 발표하여 정부, 비즈니스, 일반 국민들의 보존처리에 대한 의식과 지원을 제고하였다. 당시 조사된 바로는 보존처리 장비 도입과 숙련된 보존처리 인력 유지는 고가의 비용으로 규모가 큰 소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박물관은 자체 보존처리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사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전 세계의 문화재 및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국 박물관은 여전히 보존처리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예로 미국에서 아시아 미술 보존 전문 처리팀이 있는 기관은 클리블랜드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보스턴 박물관, 프리어·새클러 박물관 등 4개 박물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현황은 후술할 “미국 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현황” 편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2. 미국 보존처리가 현황 및 교육 시스템

2-1. 미국 보존처리가 현황

미국 내 보존처리 분야는 보존처리, 보존처리행정, 보존처리교육, 보존처리과학, 보존처리기술, 작품 보호 분야로 나누어지며 보존처리 윤리강령(AIC Code of Ethics and Guidelines for Practice)을 준수하고 있다. 보존처리 관련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

* **Conservator:** 전공교육, 지식,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하는 전문가로 AIC Code of Ethics and Guidelines for Practice와 같은 보존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Conservation Technician:** 특정 보존처리분야에 훈련 및 경험을 보유한 자로 보존처리가 들의 감독 하에 보존처리 업무나 예방 처리를 수행하는 보존처리기술자. 이들은 준 보존처리가로 보존처리가의 부족한 인력 수급의 해결책이기도 함

* **Collections Care/Preservation Specialist:** 특정 보존처리 예방 분야에서 훈련이나 경험을 쌓은 자로 보존처리가 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감독 하에 작품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Conservation Scientist:** 보존처리를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 응용을 개발하는 전문가

* **Conservation Educator:** 보존처리 이론과 기법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보존처리 원리, 방법론, 기법을 가르치는 전문가

* **Conservation Administrator:** 보존처리에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보존행정업무를 수행함

2-2. 미국 보존처리 교육 시스템

미국은 한국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부터 고대에서 현대까지 방대한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들 작품 훼손을 예방하며 보존하는 일은 미국 박물관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미국 보존처리교육 현장을 살펴봄으로 한국 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미국 보존처리 교육 및 훈련

미국 보존처리 교육 및 훈련은 작품 재질과 훼손 과정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지식 연마, 작품 미적 감각과 인식 능력 제고, 윤리적 관점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부 시에는 미술사, 고고학, 건축, 인류학 등을 공부한 후 보존처리분야 대학원 프로그램을 전공하는데 대학원 프로그램과 연계, 인턴과정과 도제과정(Apprenticeships)을 거친다. 도제과정은 대학원 프로그램 전, 기본적인 심화, 장기 훈련과정으로 대학원 기간보다 길며 전공서적 필독, 연구조사, Course work를 마쳐야 대학원 상당 학위가 주어진다. 인턴과정은 대학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학부 전공 후 박물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개인 보존처리가 스튜디오에서 보존처리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쌓는 과정으로 관련 지식을 심화할 수 있다.

○ 북미 보존처리 대학원 프로그램

미국에서 보존처리가(Conservator)가 되기 위해서는 보존처리 대학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보통 2년에서 4년 과정이며 대학원 이전에 화학, 생물 등 과학 과목과 인문(미술사, 인류학, 건축학, 고고학), 스튜디오 아트전공과목을 이수해야한다. 국내 및 해외 보존처리 기관 또는 개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쉽이나 보존처리 경험을 요구하기도 하며 마지막 학기에는 인턴쉽이 필수적으로 현장 경험이 중요시된다.

***Post Graduate Education & Training**

대다수 보존처리가들은 post-graduate fellowships을 통해 심화연구, 다방면 전문가와의 교류, 중요작품 보존처리 경험을 쌓는데 이는 그들의 경력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박물관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한국 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post-graduate fellowships을 제공하는 것도 해외 소재 문화재보존처리 중장기 방안 중 하나이다. 특히, 보존처리분야는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이는 작품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 미국 대학원 프로그램

학교(기관)	지 역	학 위	기간
Buffalo State College	Buffalo, NY	Degree M.S., Art Conservation	3년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Y	Degree M.S., Historic Preservation	2년
Fleming College	Peterborough, ON	Degree Certificate in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2년
Getty Foundation	Los Angeles, CA	Internship	1년
NYU/IFA	New York, NY	Degree, M.S. in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Artistic Works and an MA in the History of Art and Archaeology	4년
Queens University	Kingston, ON	Degree M.A., Art Conservation	2년
Smithsonian/Museum Conservation Institute	Washington, DC	Internship	1년
Straus Center/Harvard University Art Museums	Cambridge, MA	Internship	1년
UCLA/Getty	Los Angeles	Degree M.A., Conservation of Archaeological and Ethnographic Materials	3년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A	Degree M.S. in Historic Preservation /Advanced Certificate in Architectural Conservation	2,5년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AZ	Degree M.A., Conservation of Archaeological and Ethnographic Materials	1년-3년

학교(기관)	지 역	학 위	기간
University of Texas	Austin, TX	Degree M.S. in Historic Preservation	2년
Winterthur/University of Delaware	Winterthur, DE	B.A*/M.S. in Art Conservation	4년*/3년

미국 보존처리 업무는 우리나라의 재질별 보존처리 업무와 달리 Objective conservator가 목재, 금속, 유리, 도자기 등 모든 재질의 작품을 다루므로 재질별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없이는 한국문화재를 보존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근본적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나 사립 문화재보존기관에서 작품별 보존처리지원도 일시적인 방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한국문화재 보존처리를 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의 미국 보존처리 대학이나 기관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문화재연구소 포함), 보존과학센터간 Apprenticeship이나 Internship프로그램을 개설,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지식, 기술, 경험을 전수하여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여야 한다.

3. 미국박물관 보존처리 운영 사례

클리블랜드 박물관은 조직, 기능, 역할에서 미국 박물관의 전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박물관의 보존처리 현황을 사례로 한국미술품이 처한 보존처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클리블랜드박물관 보존처리부는 그림, 도서, 지류, 직물, 아시아 그림, 중국 그림, 입체 보존처리, 환경보존처리 분야에 9명의 보존처리가와 4명의 보존처리기술자, 1명의 보존처리 행정인력 등 총 14명으로 대부분 미국 박물관이 자체 보존처리부서가 없는 것을 볼 때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다. 한국문화재 보존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시아 회화 담당 보존처리가와 입체 미술품 보존처리가 2명이 있다. 아시아 회화담당 보존처리가는 1년 동안 일본 개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쉽을 하여 일본 회화와 일본식 보존처리 방식에 익숙하다. 공식적으로는 일본, 한국

회화 보존처리 담당이지만 실제 일상 업무는 일본 회화보존처리이다. 이는 담당 큐레이터가 일본미술 전문가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의 부재는 보존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녀는 보존처리 재료 구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본 출장을 가며 일본 보존처리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본과의 보존처리고류에 힘쓰고 있다. 보존처리 재질별료(금속, 목재, 유리, 도자기 등) 전문 보존처리가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Objectives 보존처리가가 모든 재질별 작품들을 보존처리하고 있다. 클리블랜드 박물관 Objectives 보존처리가는 학부 시 고고학을, 대학원에서 보존처리프로그램을 전공하여 박물관 모든 소장품 상태에 대하여 점검하거나 보존처리를 하고 있다. 한국 작품 보존처리 지식과 경험이 없으며 담당 작품수가 워낙 많은 관계로 한국 미술품에 대한 예방적 보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박물관내 미술품 보존처리는 주로 큐레이터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미술품의 전시 및 로테이션, 국내외 기관으로의 대여를 위하여 작품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면 보존처리를 요청하는 시스템 하에서 큐레이터의 관심 대상이 아니거나 전시 등 활용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미술품에 대한 보존처리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 캔자스 시티에서 개최된 책거리 순회전시 시, 캔자스 시티 박물관 중국미술 큐레이터는 한국 방문단 등 전문가들에게 한국미술품 상태 점검을 요청하였다. 그 중 몇 점의 그림들이 한 번도 전시되지 못한 채 수장고에서 훼손되어 가고 있었다. 큐레이터에게 훼손의 심각성을 제기, 현재 보존처리 기금 확보 중에 있다. 또한 캔자스 시티 대학 박물관인 스펜스 박물관(Spencer Museum)은 내부 공사 중 큐레이터가 수장고에서 조선 후기 8폭 병풍 그림 광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를 발견, 국제고류재단 지원으로 보존처리 및 복원되었다. 이처럼 한국미술을 전담하는 큐레이터가 없는 박물관에서는 한국 미술품은 중국이나 일본 미술 순위에 밀려 기본적 처치도 없이 수장고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한국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 큐레이터 유무는 전시, 출판, 교육 등 활용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존처리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한국미술 큐레이터 확보는 한국 갤러리 확장보다 중요하다. 보존처리부 직원들의 인터뷰 시 이들은 한국문화와 미술에 대

한 지식과 경험은 없으나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아주 높았다. 중국문화재나 일본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비해 한국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낮은 실정을 고려할 때 일회성 문화재 보존 지원 프로그램 보다는 이들과의 중장기적 협력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4. 미국 박물관 모범적 보존처리 사례

미국 박물관은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미술품 전시뿐만 아니라 보존처리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보존처리의 공공적 개념 및 가치는 1990년 중반부터 발전되어 지금은 과학박물관뿐만 아니라 미술관에서도 과학적 보존처리와 미술의 융·복합적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는 폐쇄적 위치에 있던 “보존처리”의 영역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박물관의 기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시키며 미술품 및 문화재 보존·보호 의식을 고양시켜 “보존처리 기금” 조성에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다음은 미국박물관 보존 처리의 모범적 활용 소개로 향후 미국 내 한국미술품 보존처리 지원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나전칠기 보존처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은 미국에서 한국 나전칠기를 가장 많이 소장한 박물관으로 2016년 4월 29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국의 나전칠기>(Mother-f Pearl Lacquerware from Korea)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이 박물관은 LA카운티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한국 기관에서 대여한 작품 총 30점의 나전칠기를 전시하면서 한국 나전칠기의 역사와 예술적 가치, 기술적 변천에 관한 연구와 보존처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관람객의 감상과 이해를 심화시켰다.

특히 본 전시를 위해 조선후기 나전칠기 유물 4점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과 게티 보존과학 연구소(Getty Conservation Institute)와의 협력으로 집중적인 보존처리 과정을 거쳤다. 게티 보존과학연구소

는 중국이나 일본 나전칠기를 보존처리해 왔으나 한국 나전칠기만을 연구, 분석, 보존처리한 것은 처음으로 큰 의미가 있는 보존처리였다. 화학적 분광 분석 및 엑스레이 촬영 등의 과학적 분석으로 재료가 규명되어 보존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거북 등껍데기 아래에 금속 포일을 넣은 기법 등 새로운 제작 기술이 확인되었다. 한국나전칠기를 통한 기관 간 융·복합적 연구 결과는 큐레이터, 보존처리가, 과학자, 연구자들에게 한국 미술품의 다양한 전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전칠기 공예 기법과 보존처리 과정을 영상물로 만들어 한국실과 박물관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 관람객들의 한국 나전칠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였다.

2.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LACMA) 보존처리

LACMA's Conservation Center는 LACMA가 개방된 지 2년이 지난 1967년에 설립되어 미국 서부 지역 최초의 보존처리기관으로 보존처리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빨리 정립되었으며 지금은 회화, 지류, 직물, 입체작품, 작품관리, 조사연구 등 6개 분야, 25여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LACMA는 보존처리 과정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각, 세계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은 보존처리 과정을 공개할 뿐 아니라 그 처리 과정을 비디오로 제작,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2010.9.부터 2011.8.까지 한국 불화, *"Buddha Seokamoni Preaching to the Assembly on Vulture Peak"*도 그 보존처리 과정이 관람객에게 공개되었다. 이 불화는 3×4m 사이즈의 큰 패블로 매우 취약한 상태로 오랫동안 수장고에 잠들어 있었다. 2011년 한국 보존처리팀이 초청, 보존처리가 시작된바, 보존처리과정을 공개하자는 박물관에 제의에 보존처리 업무 특성상 대단한 집중력을 요구하기에 처음에는 꺼려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개의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실은 어린이 갤러리 옆에 위치하여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미술을 접하며 한국 불화 보존처리 과정에 큰 호기심을 보이며 부모들에게 한국에서 온 보존처리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숙연한 보존처리 모습에 관람객들은 정숙함을 유지하고 지정된 시간에만 질문을 함

으로써 한국 전문가들의 보존처리 과정을 존중하였다. 보존처리 중 심포지움을 통해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보존처리가 끝난 후 불교의식을 거쳐 한국실에 전시되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디아 등 동양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큐레이터, 보존처리가, 조사연구원, 교육 담당자들에게 직업 선택 동기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읽고 보고 들었던 아시아에 관한 책, 그림, 영화, 음악 등에 호기심이 생겨 전공의 길로 택했다고 한다. 작품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한국미술이 세계인들 사이에서 제대로 인식되고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로 제작, 배포하는 것도 한 방안이며 보존처리과정 공개와 출판, 비디오 제작, SNS 활용은 좋은 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출판물이나 비디오 제작 이전에 현지에서의 가독성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여 현지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시 한 큐레이터는 한국으로 부터의 출판물이나 비디오가 현지에서 활용하기에는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거나 비디오 품질이 낮아 호환이 어렵다며 품질 제고를 요청하였다.

3. 미국역사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다음은 미국역사 국립박물관의 미국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 보존처리과정 공개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박물관은 성조기 보존처리 내내 치밀한 보존처리 계획과 자문, 이행, 수정, 피드백 과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역사의식, 애국심, 자긍심, 문화재 보존의식 등을 증폭시킴으로 보존처리 과정 자체가 한 사회, 한 국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Star-Spangled Banner는 1812년 영국 공격에 대비하여 볼티모어(Baltimore) 맥헨리 요새(McHenry Fort)의 보초기로 제작되어 이 후 미국의 한 상징이 되었다. 34×30ft의 어마어마한 크기로 보존처리는 1999.5.부터 2007.9.까지 무려 8년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박물관은 유리벽을 설치하여 보존처리 모든 과정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하였다. 박물관은 몇 차례에 걸쳐 국민공개 토론을 개최함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보존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 국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상태가 아주 불안정한 직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회의가 계속 이루어졌으며 이 중요한 보존처리가 국민 한 개개인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모든 회의 결과를 공개 발표하였다. 동시에 박물관은 보존처리가, 큐레이터, 교육담당자, 디자이너, 홍보전문가, 행정가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보존처리, 전시, 홍보, 출판, 교육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첫 해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백오십만 명이 방문하여 예상을 훨씬 초과하였다. 방문객들은 보존처리 과정과 성조기를 보고자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관람 중에는 모든 레이블을 읽고 더 많은 정보를 구하고자 많은 질문을 하였다. 예상 밖의 큰 관심에 박물관에서는 별도로 "Today in the Lab"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쇄도하는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였다. 또한 보다 친밀하고 개인적인 체험을 원하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박물관은 "Docent-lead Tour"를 조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였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장거리 학습 프로그램(Long Distance Learning Programs)"을 운영하여 초등학생, 고등학생, 교사 등 첫 방송에 3백5십만 명이 참여하였다. 박물관은 일반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정치가, 기부자, 신문 방송 매체들을 위해 특별 보고서를 작성, 배포하여 보존처리와 전시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미국 보존처리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북미 직물보존처리 컨퍼런스(the North American Textile Conservation Conference), 워싱턴 보존처리그룹(the Washington Conservation Group)과 같은 전문가 기관 대상 강의를 통해 관련 정보, 지식, 기술, 경험 등을 공유하였다. 웹사이트도 정비하여 Star Spangled Flag에 대한 역사적 정보와 보존처리 과정에 대한 교육적 자료를 게시하여 이들이 직접 방문하기 전 사전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06년 한 해만 4백만 명이 접속, 방문하였다. 보존처리과정에 대한 예상 밖의 관심은 당초 전시 계획을 수정하여 보존처리과정과 성조기 제작과정 비디오를 추가 제작하여 전시실에 설치해야했다. 이러한 대장정의 보존처리 후 이 성조기는 국립미국역사박물관 새 전시실에 전시되어 미국 국민의 상징으로 영원히

보존되고 있다.

Star Spangled Banner의 보존처리 사례는 우리나라 보존처리의 사회적, 문화적 인식이나 접근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바가 크다. 문화유산 보존처리를 특정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하여 일반국민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보존처리를 단지 과학적 프로세스로만 인식하여 사회, 문화, 경제, 연구 분야와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1910년 보존처리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예방적 보존처리에서부터 과학적 연구 및 조사, 분석, 보존처리장비 및 재료 개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존처리를 박물관의 공공서비스의 한 축으로 인식, 전시, 교육, 출판, 홍보, 투어,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 학생,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지적 욕구와 호기심을 제공, 충족시켜 보존처리 영역이 확산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온다.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의 나전칠기 제작과 보존처리과정은 미국에서 한국문화재의 융·복합 연구 계기가 되었으며 LACMA의 조선 시대 불화 보존처리는 미국 및 세계 관람객들에게 그 보존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한국미술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역사박물관의 Star-Spangled Banner 보존처리 공개는 국민들의 역사의식, 애국심, 정체성, 보존처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충분히 불러 일으켰다.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하여 한국 문화재 보존처리 시 보다 전략적 계획 수립으로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보존처리가 일시적 과정이 아니라 문화재와 함께 보존될 수 있도록 기록화, 아카이브 하여야 할 것이다.

Ⅲ. 미국 내 한·중·일 미술 및 문화 전파에 대한 고찰

미국은 세계적 박물관뿐만 아니라 작은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미술관에서 자연사박물관 등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박물관들이 아시아미술품(문화재)을 소장하고 있다. 미국 내 이 박물관들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한국 전시관이 일본이나 중국 전시관에 비하여 왜 그렇게나 초라

한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다. 이에 미국 박물관내 현재 한국 미술품 소장 및 활용 이해를 돕고 향후 지원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하여 과거 미국으로의 한·중·일 미술 및 문화전파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29년 벤자민 마치(Benjamin March, Curator of Asiatic art at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1927-1931)는 Carnegie Corporation 요청으로 당시 미국 박물관내 동아시아 -중국, 일본 중심- 미술 소장품을 조사, 출판하였다. 그의 책 *"CHINA AND JAPAN IN OUR MUSEUMS"* 에 의하면 1920년대에 이미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등 주요 도시 박물관과 미시건 대학, 프린스턴 대학 박물관 등 총 43개의 박물관에서 19명의 동양 미술 큐레이터들이 적게는 33점에서 많게는 92,467점에 이르는 동아시아 미술품들을 소장, 전시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책에 의하면 대부분이 일본, 중국미술품이며 보스턴박물관, 하버드포그 박물관, 프리어갤러리, 시카고박물관, 클리블랜드박물관, 디트로이트박물관, 샌디에고 박물관, 호놀룰루박물관, T.B. Walker Art Gallery, The City Art Museum of St. Louis, Worcester박물관 등 11개 박물관에서 약 1,500여점의 한국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었다. 2017년 9월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자료에 의하면 미국 31개 박물관에서 한국미술품 46,404점을 보유,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미술품이 1930년 이후 미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꾸준히 수집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측면은 1930년 이전까지 한국 미술이나 문화는 미국 사회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29년 당시 보스턴 박물관은 일본 미술 88,074점(그림, 프린트, 조각 등 18개 분야)과 중국미술 4,393점(그림, 도자기, 조각 등 16개 분야), 그리고 한국 미술169점(도자기, 회화 등 6개 분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중국 관련 서적 28,000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보스턴 박물관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1929년 당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중국미술품 5,408점, 일본미술품 6,281점, 한국미술품 232점과 약 천권의 중국, 일본 미술 관련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일본과 중국 외에서 가장 많은 미술품과 도서를 소장함으로 미국이 미술사 학문에서 유럽학

계를 앞지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었다. 다음, 큐레이터를 살펴보면 43개 박물관 중 12개 박물관에서 19명의 동양미술 전문 큐레이터를 두고 있었는데 이 중 5명이 중국에서, 4명이 일본에서, 2명이 중국과 일본에서 거주 또는 유학을 한 경험이 있으며 2명의 큐레이터가 일본과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이나 일본 문화에 친숙하고 정통함을 추측할 수 있다. 당시 큐레이터는 박물관 이사회, 학자, 컬렉터, 딜러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집 및 전시, 조사연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인들의 동양미술 기호를 선도하였다. 즉, 당시 그들의 주 관심과 전공은 중국과 일본 미술·문화로 한국 미술이나 문화에는 관심이나 이해도가 부족하며 이런 양상은 학계나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현재 미국 박물관의 프레임은 1929년의 미국 박물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박물관을 방문하다보면 중국과 일본의 웅장하고 화려한 미술관에 비해 중국과 일본의 위세에 자칫 기가 눌린 것처럼 보이는 소박한 한국 미술관을 대할 때 동전의 양면을 발견한다. 첫째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국 문화재가 많이 반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심이며 둘째는, 문화 콘텐츠가 국력을 좌우하는 오늘 날, 콘텐츠 빈곤의 어려움이다. 다음에서는 극동 아시아 미술- 한·중·일 미술- 이 미국에 뿌리 내린 역사적 배경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미래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활용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1. 미국 내 일본미술 및 문화 전파

1) 일본미술과 미국 박람회

19세기 아시아는 미국과 유럽 열강들에 의한 강제 문호개방과 어지러운 국내정세,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가는 물론 개인의 삶이 풍전등화와 같았다. 반면, 미국은 산업성장을 기반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사회·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팽창의 시기였다. 일본은 1853년 미국 페리 제독(Commodore Matthew Perry)에 의해 문호가 개방된 이후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생존을 위하여 천황 중심으로 국

수주의와 동시에 철저한 서구화를 지향하였다. 메이지 유신 아래 과학, 기술, 군대, 교육에 서양의 시스템을 도입하며 유럽 및 미국의 우수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가 하며 젊은 인재들을 유럽과 미국에 보내어 서양식 교육을 받게 하는 등 근대화·산업화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열정은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중국과는 달리 미국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여겨짐과 동시에 일본 미술이나 문화도 중국의 것에 비하여 보다 우수하게 인식되었다. 여기에는 미술품으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일본 정부의 치밀한 전략과 일본 미술에 심취한 미국 컬렉터들의 일본 미술 전파가 큰 역할을 하였다.

본론으로 들어가 미국이 개최한 만국 박람회에서 일본관 전시가 어떻게 미국인들의 일본미술 및 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의 런던 박람회(1851)와 파리 박람회(1867)에서 유럽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마침내 "Japonism"을 이끌어낸 일본은 미국 박람회에서는 한층 더 전략적, 체계적으로 일본관 전시를 기획하였다. 박람회가 개최되기 이전에도 미국인들이 일본 미술품을 접할 수 있었지만 이는 소수 부유층, 컬렉터와 무역업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었고 미술 개념 보다는 이국적이고 신기한 동양의 물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이 미국 대중들에게 일본미술과 문화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박람회는 필라델피아 박람회(Centennial Exhibition, 1876), 시카고 박람회(World's Columbian Exposition, 1893), 세인트루이스 박람회(Louisiana Purchase Exposition, St. Louis, 1904)를 들 수 있다. 필라델피아 박람회는 1876년 미국 독립선언 백주년을 기념하여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로 천 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한 가운데 일본 전시관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일본물품들은 미술관이 아닌 일반 건물을 할당 받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전시관에 최상의 예술품들-청동기, 도자기, 칠기, 병풍, 그림, 비단, 수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종이공예, 전통의상 등-을 진열하였다. 미디어들은 일본 미술품의 "섬세함"과 "완벽함"에 대한 찬탄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으며 박람회에 전시된 물품들은 박물관, 컬렉터, 부유층 인사들에 의해 매진되면서 미국 대중들 사이에서는 일본 물품 수집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 물품은 단

순한 동양의 신비로운 물건이 아니라 유럽의 미술품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예술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콜럼버스의 미국대륙 도착 사백 주년을 기념하여 1893년에 개최된 시카고 박람회는 방문자 수와 전시규모가 필라델피아 박람회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박람회로 약 이천팔백만 명의 관람객들이 46개국과 미국의 각 주별로 참여한 65,000여개의 전시장을 6개월 동안 방문하였다. 이 박람회에서 일본은 가장 유리한 장소로 주목되었던 우드 아일랜드(The wooded Island)에 국가관과 일본정원을 만들어 전통적 예술미와 더불어 근대화·산업화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내부에는 처음으로 일본 최고 수준의 전통 문화·예술품들이 선보였고 서양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경미술아카데미 교장인 오카쿠라 카쿠조¹⁾가 쓴 영어팜플렛 『호오덴 *The Ho-o-den(Phoenix Hall)*』이 출판되었다. 또한 오카쿠라 카쿠조와 함께 시카고 박람회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일본전시 조직과 홍보에 크게 기여했던 어니스트 페놀로사(Earnest Fenollosa)는 『센추리 매거진 *Century Magazine*』에 박람회에 일본 현대미술전시를 소개하였다. 19세기 말 이미 두 번의 큰 박람회에서 경제적 성공은 물론 자국의 이미지를 안정, 풍요, 번성으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일본은 더 큰 자신감을 가져 1904년 세인트루이스 박람회(The Louisiana Purchase Exposition in St. Louis)에서도 미국인 취향에 맞춘 디자인의 미술품들을 선보여 유럽미술과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위와 같이 일본은 미국에서 세 번의 만국박람회를 통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우수한 면모와 국가 전체의 근대화된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비문명국”에서 “문명국”으로 인식되었다. 미국 가정주부들 사이에서는 일본 장식품 구입이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컬렉터와 박물관들은 경쟁적으로 일본 고미술품들을 수집하며 일본관이나 일본정원, 다실들을 설치, 확장하며 미국 관람객들에게 일본 미술과 문화를 선보였다. 당연 다양한 컬렉션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연구와 강연, 논문, 책들이 쏟아지며 대학

1) 오카쿠라는 “Book of Tea”의 저자이며 동경제국미술학교를 조직함. 페놀로사의 조수로 미술품 수집을 도왔으며 모스와 페놀로사와 교유함으로써 일본 전통미술 보호의 필요성을 깨달아 1884년 일본정부로 하여금 “National Treasure Law”를 제정하게 함. 윌리엄 비켈로우에 의해 1904년 보스턴박물관에 초청되어 1910년 아시아부서 초대 부장이 됨

에서 일본미술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 일본미술 컬렉터와 학자

다음은 일본미술사 형성에 선구적 역할을 한 미국학자들의 업적과 역할, 박물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일본미술 수집가 및 학자들로는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 어니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asa), 윌리엄 비겔로우(William Sturgis Bigelow), 데먼 로스(Denman Ross), 찰스 웰드(Charles G. Weld) 등이 있다. 이들 중 가장 핵심 인물은 당연히 모스와 페놀로사이다.

모스는 동물학자로 일본 자연과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877년 동경제국대학(Imperial University in Tokyo)의 초청을 받아 우연한 기회에 일본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심취하여 도자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자기 전문가들로부터 점토, 유약, 도자기 굽는 방법, 기술, 도요지 등에 대해 배우면서 일본 미술 전문가로서 안목과 지식을 갖추어 나갔다 그는 약 3년간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 미술과 문화에 매료되어 일본 *가옥과 환경*(*Japanese Homes and Their Surrounding*, 1886), *일본 토기 도록*(*Catalogue of Japanese Pottery*, 1891), *일본 생활 Japan Day by Day*, 1917)을 저술하여 미국인들에게 일본 문화와 미술을 전파하였다. 일본미술사에 대한 그의 공헌 중 하나로는 일본미술사 형성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페놀로사를 일본으로 초청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영향으로 비겔로우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미술과 불교에 매료되어 귀국 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며 일본 미술사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하였다. 모스의 약 5,000점 도자기 컬렉션은 보스턴 박물관에, 약 30,000여점의 민속품들은 피바디 엑세스(Peabody Essex Museum) 박물관에 구매 및 기증되어 일본미술의 대표적 컬렉션이 되었다.

페놀로사는 1878년 모스의 중개로 일본 제국 대학에 철학과 정치경제 교수로 임명되게 된다. 페놀로사는 어느 날, 한 골동품상에서 벽걸이 그림을 마주한 이후 일본 그림에 매료되어 많은 시간들을 미술가, 컬렉터, 딜러들과 보내면서 일본미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아나갔

다. 그리하여 1880년에는 일본제국 박물관장과 동경예술아카데미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아래 전통을 타파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의 서구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 정부는 전통예술을 미개한 것으로 간주, 전통예술가들을 몰아냄과 동시에 유럽 미술가들에게 일본의 근대미술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전통미술가들은 실업자가 되어 생계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물려든 컬렉터들에게 헐값에 그림들을 팔았다. 전통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쇼군의 몰락으로 봉건귀족들의 지위와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생계가 막막한 그들도 소장하고 있던 보물급 미술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다. 일본 전통미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본 페놀로사는 그림과 판화를 대대적으로 수집함과 동시에 당대 최고 화가 카노 호게(Kano Hogai)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그로부터 개인 미술지도를 받기도 했다. 일본미술을 일본인보다 더 잘 이해한 사람은 페놀로사가 아닌가 싶다. 그는 일본 전통미술 가치에 대한 강연을 함으로써 일본이 다시 전통예술보호 정책으로 돌아가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일본미술교육의 경향 - 미국식 데생과 이탈리아 교사에 의한 조각수업-을 개탄하였는데 그의 연설은 일본인들을 각성케 함으로써 미술교육에 다시 일본 잉크, 붓, 종이 사용되었다. 그는 그림 수집뿐만 아니라 모스와, 오카쿠라 카쿠조 (Okakura Kakuzo)와 전국 유적지와 사찰을 시찰하면서 일본 문화와 미술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키워나갔다. 일본 정부는 그에게 고고학, 미술 전문가와 함께 전국의 (특히 사찰) 미술품 목록 작성과 더불어 전통미술 보존, 복원, 장려, 수출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그의 일본 전통미술 보호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일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가 미국으로 떠날 때 황제가 그에게 한 말에서 잘 나타난다. "당신은 나의 국민들이 그들 미술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쳤으며 미국에 가서도 미국인들에게 일본 미술을 가르치길 명합니다." 황제의 명대로 페놀로사는 귀국 후 미국인들에게 일본미술과 문화를 알리는데 전 생애를 바쳤다. 그는 일본에서 수집한 일본그림 약 1,000여점을 보스턴 출신의 의사 G.C. Weld에게 팔았으며 Weld는 이를 보스턴 박물관에 기증하여 Weld-Fenollosa 컬렉션이 되었다. 페놀로사는 귀국 후 1890년부터 약 5년 동안 보스턴 박물관에서 동양미술 큐레이

터로 일하면서 일본 미술품들을 목록화, 전시, 출판하였으며 수많은 강연을 통하여 동양미술, 특히 일본미술을 미국인들의 문화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또한 1893년에는 시카고박람회에서 미술 심사위원으로 일본정부를 도와 일본관 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20세기 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돌면서 대학, 박물관, 클럽, 사립학교, 화실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일본미술과 문화 강연에 집중하였으며 1911년 사망 시 까지 일본미술의 보존 및 보호, 전파 및 전승에 쏟았다. 그의 일본미술 가르침을 받은 젊은이들은 제2세대 일본미술 전문가가 되어 미국 내 일본미술사를 확산, 발전시키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짧은 기술에서도 일본미술 발전에 페놀로사의 공헌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알 수 있다. 다음은 미국에서 일본미술과 문화가 상업적으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미술상 반틴상(A.A.Vantine & Company)과 야마나카 무역상(Yamanaka & Company)을 통해 알아보겠다.

3) 일본미술 무역상

1853년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 외국 무역상들을 중심으로 일본공예품, 그림, 생활용품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Yumiko Yamamori의 논문 *"Japanese Arts in America, 1895-1920, and the A.A. Vantine and Yamanaka Companies"*에 따르면 당시 가장 알려진 무역상은 반틴(Ashley Abraham Vantine, 1828~1890)이 뉴욕에 연 반틴상으로 당시 매거진에 실린 “일본 제품: 일본에서 수입된 50,000점의 수입품은 기능과 장식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결혼, 생일, 명절 선물로 최고임” 홍보는 미국인들을 사로잡았다. 반틴은 사업을 확장하여 요코하마와 고베에 자사를 열어 일본 예술가들에게 미국인 취향의 상품들을 주문제작하여 미국으로 들여왔다. 상품들은 가구, 실버, 차구 세트, 식기세트, 화병, 보석함, 기모노, 부채, 목공예품, 게이샤나 일본 풍경, 일상생활 모습이 담긴 그림 등으로 이들은 미국 가정의 장식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정부의 지휘 아래 모든 공예품과 그림들은 미국인 취향에 맞게끔 제작, 선별, 수출하

여 미국과 일본은 서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윈-윈 상황이었다. 또한 미국 주부들의 취향에 초점을 맞추어 다실(tearoom)을 열어 미국 주부들은 삼삼오오 앉아 기모노 스타일의 옷을 입은 웨이트리스들의 차 시중을 받았으며 이 다실은 곧 뉴욕의 유행이 되었다.

1894년, 일본에서 모스, 페놀로사, 비겔로우와 막역한 관계였던 고점상 딜러 야마나카(Sadajiro Yamanaka, 1866~1936)가 오사카에서 뉴욕으로 도착한다. 1895년 그들의 지원으로 일본 미술상을 열었고 전시회를 개최, 큰 호평을 받았다. 곧 뉴욕과 보스턴에서 대규모 옥션에 성공하여 보스턴, 런던, 북경, 파리에 지점을 내었다. 다른 일본수입상들과 달리 야마나카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취향의 메이지 시대의 미술품이 아닌 메이지 이전의 일본 전통미술품들을 전시 판매하며 “정통성”과 “전문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반틴이 상업적 홍보에 주력한 것과는 달리 대신 전시회와 옥션, 전문적 출판에 집중하여 박물관, 옥션, 미술관, 미디어로 하여금 일본미술의 가치를 알리게 하였다. 이렇게 반틴과 야마나카는 일본의 진귀하고 이국적인 공예품과 미술품들을 판매하며 일본 문화를 미국에 스며들게 하였다. 이 후 반틴은 미국시장의 트렌드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해 1930년 파산하였고 야마나카회사는 2차 대전 후 1941년 Alien Property Custodian에 의해 미술품이 몰수, 해체되었긴 하지만 약 반세기 동안 이들은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의 다양한 계층들과 박물관, 컬렉터, 딜러에 이르기까지 불상과 불화에서 기모노와 부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미술품과 공예품을 판매하며 일본미술 및 문화가 미국에 스며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1854년 미국과 비관세, 치외법권 인정의 불평등 조약을 맺은 후 서구열강의 침략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황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서구화를 단행하였으며 유럽과 미국의 만국박람회를 정치, 경제, 외교,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국가 이미지를 서구 문명국과 동등한 위치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모스, 페놀로사, 비겔로우와 같은 학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본 내는 물론 미국에서 일본미술사 2세대, 3세대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일본미술과 문화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메이지 정부의 지도

감독 하에 미국인의 취향을 겨냥한 공예품이나 미술품, 생활용품을 제작, 수출하여 야마나카나 반틴과 같은 수십 개의 일본 수입상들로 하여금 미국 일반인들이 일본 문화를 향유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단편으로도 일본 미술이나 문화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미국에 뿌리내렸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의 민관 합작의 일본미술 활용은 발전 확산되고 있는바, 2016년 뉴욕 "Asia Week"에서 일본의 한 갤러리는 일본 정부 지원으로 공예부문 인간문화재(National Living Treasure) 13명을 초청, 일본의 무형문화재 제도와 일본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그들이 제작한 도자기, 칠기공예품, 칠기공예품, 유리공예품등을 전시, 판매하여 매진의 기록을 보였다. 또한 뉴욕행사가 끝난 후 워싱턴으로 옮겨 전시와 더불어 다도(Tea Ceremony)와 각종 강연을 개최하여 일본 차 문화와 공예 문화의 전통을 보여주었다. 일본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전통미술 활용은 우리에게 시사되는 바가 크다.

2. 미국 내 중국미술 및 문화 전파

2017년 3월, New York Asia Week 행사 기간 중 3월 15일 저녁 크리스티 옥션(Christie Auction)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열띤 경매가 진행되었다. 일본 오사카 후지타(Fujita) 박물관의 Fujita Collection 29점이 크리스티 경매에 나와 대다수 작품이 예상가의 10배, 20배, 50배를 넘는 값에 낙찰되었다. 특히 네 점의 청동기와 한 점의 스크롤 페인팅은 참석한 입찰자들과 관람객들의 탄성과 환호를 불러 일으켰다. 13세기 건륭제가 그의 컬렉션 중 가장 중요한 그림 중 하나로 여겼던 "육룡(Six Dragons)"과 청동기들은 청 말 무렵,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 북경의 황실 저택(Prince Chun Mansion)에서 1915년 일본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그리고 마침내 후지타 가문 컬렉션(Fujita Family Collection)이 되었다. "Six Dragons"은 남송시대 화가 첸룽(Chen Rong)이 그린 수작으로 건륭제의 낙인이 있어 입찰가는 1.2백만~1.8백만 달러로 낙찰가는 약 10배인 10백만 달러가 기대되었다. 현장 입찰과 전화 입찰이 약 30분간 진행된 가운데 최종 낙찰가는 무려 48.9백만 달러로 약 50배나 치솟았다. 이 그림은 다른 몇

점의 청동기와 함께 본국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중국인이 구매한 것으로 기사화되었다.²⁾ 오늘 날, 세계미술시장에서 중국미술품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바 이는 중국미술에 대한 낙관적인 투자 가치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웠던 과거에 잃어버린 국보들을 찾고자 하는 애국심도 한 요인이다.

중국인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의 강제 문호 개방과 외국과의 전쟁, 청조 멸망, 크고 작은 내란,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분 등의 사회적 혼돈과 무질서를 거치면서 중요한 문화재와 미술품들이 일본, 유럽, 미국 제국들의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다. 1911년 중국 혁명 후 지위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고위 관료들은 그들이 소장한 최고의 고미술품들을 외국인들에게 대량 팔았으며 철도나 도로 건설 중 발견되거나 고분에서 도굴된 문화재들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딜러들에게 넘겨졌다. 즉, 오늘 날 유럽이나 미국, 일본 박물관과 컬렉터들이 중국 미술품들을 대량 소장하게 된 배경에는 청의 멸망과 초기 공화정의 실패에 따른 정치, 사회적 혼란, 경제적 궁핍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으로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미국과 유럽, 일본 컬렉터들의 무분별한 수집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부패 고위관료와 노동자, 외국 딜러와 컬렉터들은 중국의 보물급 미술품들을 고분, 사원 등에서 도굴, 밀매한 공모자들이었다. 실제로 미국 박물관들을 관람하다 보면 중국 컬렉션의 규모와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워싱턴 D.C.의 프리어 갤러리, 보스턴 박물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캔자스 시티의 넬슨 앳킨스 박물관, 시애틀 박물관, 시카고 박물관, 클리블랜드 박물관 등 동부에서 중부, 서부까지 어디에서든 웅장한 중국갤러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즈음, 중국 미술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국의 거대 컬렉션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중국 미술이 미국 사회와 문화에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컬렉터의 역할, 만국박람회, 미국 내 중국 미술품 전시회 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Li Haowen, "Chinese Buyers Bid Big to Bring Relics Home" Sixth Tone, 2017.3.22.

1) 중국 미술 컬렉터의 역할

1. 19세기 중후반

미국혁명(1765~1783) 이후 중국과의 차 무역은 미국 무역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차츰 은제식기류, 실크, 가구, 그림 등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19세기 초까지 미국에 들어온 중국그림이나 공예품들은 “미술”이 아닌 호기심 충족의 이국적 장식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여겨졌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부터의 수요는 상당하여 중국은 그림이나 공예품들을 서구인들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당시 무역으로 번성했던 메사추세츠클, 세일럼의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Peabody Essex Museum)³⁾ 소장품들이 미술품보다는 민속품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인들은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수출된 그림, 공예품 등을 통해서 중국인과 중국 문화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인들이 중국 그림이나 공예품, 조각들을 “예술품”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으로 미국 거부들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런던 박람회, 파리 박람회에서 보게 된 중국 도자기나 그림들에 매료되어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초창기 중국 도자기 수집가로는 월터(W.T. Walter)와 에브리(Samuel P. Avery)로 월터는 2,400점의 중국 도자기 컬렉션으로 월터 박물관(Walters Art Galley)을 건립하였으며 에브리는 중국에서 미국 공사였던 동생 덕분에 중국인 컬렉터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미국 내 중국 도자기 전문가가 되었다.⁴⁾ 그는 개인 컬렉터나 박물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뉴욕, 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박물관 등 대다수 박물관이 중국 도자기 컬렉션을 소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창기 미국 박물관, 미국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인식, 이해에는 컬렉터와 딜러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내 중국 미술 형성에 기여한 컬렉터로는 프리어(Charles Lang Freer, 1856~1919)와 퍼거슨(John. C. Ferguson, 1866~1945)을 들 수 있다. 프리어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근대 유럽 그

3) Peabody Essex Museum은 유길준이 기증한 복식, 장신구 등 민속품이 한국컬렉션의 절반을 차지함

4) Warren I. Cohen. "Art Collecting as International Relations: Chinese Art and American Culture"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1, No. 4(Winter 1992), pp. 411-412

림과 미국 그림을 수집하다 일본 판화를 접하면서 마침내 일본미술과 중국 미술로 방향을 돌린 미국의 중요한 컬렉터이다. 1895년 일본 여행 중 일본 그림을 구매하면서 중국 그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프리어는 상당수의 중국 그림을 수집하여 그의 일본, 중국 그림의 규모와 가치는 당시 보스턴 박물관과 필적하였다. 그림에서 차츰 고대 도자기에 매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일본, 한국 도자기와 중국 청동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알렌(Horace Allen)으로부터 한국 도자기컬렉션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그는 일본미술에서 중국미술에 집중하는데 이는 더 이상 외국에서 일본 미술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값도 상당하여 상대적으로 중국 미술품을 사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1929년 벤자민의 책 *China and Japan in our Museums*에 나타난 그의 의 컬렉션 중 중국, 일본, 한국 컬렉션을 살펴보면 중국 그림, 도자기, 청동미술품, 조각품, 옥 등 3,429점, 일본 그림, 도자기, 칠기, 조각품 등 1,862점과 한국 도자기, 칠기, 조각 등 미술품 451점이 있다.⁵⁾ Freer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는 미국의 동아시아 미술사 형성 및 발전의 선구자였다. 그는 수집에만 전념한 여타 컬렉터와는 달리 수집 전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였으며 동아시아 미술·문화의 가치와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그는 학자와 학생들에게 컬렉션과 공간을 개방하였으며 마침내 그의 컬렉션 2,250점과 백만 달러의 박물관 건립 펀드를 미국 정부에 기증하여 오늘 날 프리어 박물관(Freer and Sackler)이 건립되었다. 1923년 프리어 갤러리 개관 첫 날 백만 명이 방문하여 아시아 미술을 접하였는데 스미소니언 1년 평균 방문객이 116,000명⁶⁾임을 감안할 때 당시 프리어 갤러리에 대한 미국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저널리스트 Agene는 “프리어 박물관은 중국 미술 발전 단계를 전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으로 만약 유럽 학자들이 중국 그림, 옥, 청동기의 최고 전형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다면 그것은 프리어 때문이다.” 라며 프리어 컬렉션과 그에 공헌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실제로 프리어 컬렉션은 동료 컬렉터들이 아시아 미술품을 더 많이 수집하도록, 박물관들이 아시아 미술에 더 많

5) Benjamin March, *China and Japan in Our Museums*, p104

6) Cohen, Warren, *East Asian Art and American Culture*, p 87

은 공간을 할당하도록, 학자들이 아시아 미술사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들이 아시아 미술사에 관심을 갖도록, 더 많은 미국인들이 아시아 미술을 감상,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였다. 혹자는 프리어 갤러리 건립 이후 아시아 미술이 서구의 미술과 동일한 선상에서 감상되어 졌다고 한다. 분명, 미국 내 중국 미술 확산에 대한 프리어의 공헌은 지대하였다.

미국 내 중국 미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한 또 한 사람으로는 퍼거슨(John.C. Ferguson, 1866~1945)을 들 수 있다. 퍼거슨은 21살의 나이로 중국에 선교사로 가 남경 대학(Nanjing University)의 초대 총장이 되었다. 그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몰두하여 마침내 능통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고위 관료 성선희(盛宣懷, Sheng Xuanhuai)의 관심을 사게 하였다. 그의 도움으로 중국 정부의 자문위원과 같은 주요 요직을 맡았으며 또한 신문사(*Xinwenbao*)를 사들여 상하이의 주요 언론매체로 성공하였다. 그의 중국문화에 대한 전문성은 “송시대의 유교 부흥(Confucian Renaissance in the Sung Dynasty)”의 박사논문으로 이어졌으며 청 멸망 당시 황실 미술품 도록 편찬 위원을 맡기도 하였다. 그 자신 스스로 작품을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딜러와 컬렉터와의 관계를 이용, 뉴욕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을 위해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프리어에게 중요한 중국인 컬렉터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그는 중국 그림과 청동 미술품을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에 기증하였으며 또한 대다수 중요한 그림과 청동미술품, 옥을 남경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퍼거슨은 중국 미술 및 문화에 대한 전문식견과 능통한 중국어로 미국 국민들에게 중국의 정치, 문화, 교육, 예술, 종교 등을 전파하여 미국인들이 중국미술과 문화를 깊이 있게 인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은 중국인 컬렉터의 사례로 청이 붕괴될 무렵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중국 미술 해외 전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다. 단방(端方, Duanfang, 1861 - 1911)은 관료 가문 출신의 청말 개혁적 관료이자 미술 전문가, 수집가였다. 의화단 난(1900년)을 진압함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는 굳건해져 이 후 후베이 성을 통치하였고 텐진(Liangjian) 총독을 역임하였으나 1911년 쓰촨에서 반란군 진압 시 그

의 부대원에 의해 참수되었다. 정부 관료로 단방은 청동, 옥, 석물, 서예, 그림 등의 중국 고미술을 수집, 연구하였으며 중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미술 전문가나 퍼거슨(John C. Ferguson)과 같은 미국 수집가들과도 교류하였다. 특히 퍼거슨에게 중국 전통 미술 감상 안목을 가르쳤다. 1905년 단방과 네 명의 중국 관료들은 서구 정치, 사회, 문화기관들의 제도를 배우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방은 서구 사회를 폭 넓게 인식하게 되었다. 탐방 후 그는 중국의 첫 세계 박람회인 남양 박람회(Nanyang Industrial Exposition, 1910)개최에 주요 역할을 하였다.

1911년 그의 사후 궁핍해진 그의 가족은 그의 컬렉션을 팔아야했고 수많은 보물급 미술품들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넬슨앳킨스 박물관, 프리어 갤러리와 같은 주요 박물관으로 흩어졌다.⁷⁾

이상과 같이 프리어는 막대한 재력과 아시아 미술에 대한 심미안으로, 퍼거슨은 능통한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미국 내 중국 미술과 문화를 이식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말 보스턴 박물관, 뉴욕 메트로 폴리탄 박물관을 필두로, 1900년대 초 프리어가 중국, 일본 미술을 대거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여타 박물관들도 아시아 미술품 수집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미국인 수집가들은 중국 미술품, 특히 당시 최근 발굴된 청동미술품과 같은 고대 미술품을 선호하였는데 1929년 마치의 책 "China And Japan In Our Museum"에 의하면 프리어 갤러리(3,429점), 보스턴 박물관(4,393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5,500점),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9,729점), 하버드 포그 박물관(458점), 호놀룰루 박물관(781점), 세인트 루이스 박물관(577점) 등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는 미국을 비롯 서구 열강들이 경제 대공황으로 실업, 빈곤과 기아에 직면하게 되어 아시아 미술품 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켄자스 시티 넬슨 앳킨스 박물관은 이러한 경제적 불황을 기회로 건립된 유수 박물관이다. 박물관 건립자 Laurence Sickman은 박물관 소장품 50~60%를 1930년 대 사들였으며 1933년 한 해만 1,500점을 구매하였다.⁸⁾

7) <https://www.asia.si.edu/collections/downloads/Duanfang.pdf>

8) Art Collecting as International Relations: Chinese Art and American Culture, Warren I. Cohen, p425.

1930년 중국 정부가 모든 지하 고대유물의 국유화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컬렉터들은 중국 고대 미술품 특히 청동, 옥, 통먼이나 둔황의 불상, 조각품 수집에 모험을 걸었다. 철도 등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 양식을 위하여, 정치가나 군인들은 정치, 군자금을 위하여 달러와 컬렉터들은 더 많은 경제적 이윤을 위하여 그들이 발견한 보물들을 닥치는 대로 외국인들에게 팔아 넘겼다.

2) 미국 만국박람회와 중국

미술품 수집과 마찬가지로 만국박람회도 당사국 미술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미국에서 개최된 세 차례의 만국 박람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그럼 중국은 이들 박람회를 어떻게 활용, 미국인들에게 “중국, 중국인, 중국예술과 문화”를 인식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필라델피아 박람회(1876)

중국 정부는 필라델피아 박람회 이전 런던 박람회(1851), 파리 박람회(1867), 비엔나 박람회(1873)를 거치면서 필라델피아 박람회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비엔나 박람회시 음악 연주회에 오스트리아 황실 가족을 비롯 1,400여명의 청중이 참가하였으며 오스트리아 황제와 독일 황제가 중국전을 방문하여 그 가치를 높였다. 비엔나 전은 관료의 참여, 신뢰할만한 전시, 저명한 인사들의 방문으로 가장 성공적인 전시중 하나로 평가되었다.⁹⁾ 비엔나 박람회 폐막 3개월 후 중국 정부는 1876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될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박람회(International Exhibition of Arts, Manufactures and Products of the Soil and Mine)에 참석할 것을 결정하였다. 즉, 1876년 박람회는 중국 정부 스스로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전시 진행을 위하여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였다. 중국정부는 필라델피아 박람회 전시회를 위하여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50,000tales(약 70,000 U.S. dollars)

9) Jennifer Pitman, "China's Presence at the Centennial Exhibition, Philadelphia, 1876" Studies in the Decorative Arts, Vol. 10, No. 1(FALL-WINTER 2002-2003), p 41

의 예산을 할당하였다.¹⁰⁾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비엔나 박람회의 성공을 상기하며 필라델피아 박람회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리라 기대하였다. 전시 위원회 한 전문가는 미국 언론에 “선정 작품들은 중국정부가 이전 박람회에 보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며 작품의 규모와 수준은 최고의 수준으로 이는 파리나 비엔나전시회를 훨씬 능가한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였다.¹¹⁾ 중국전은 Main Exhibition Building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은 대형 칠기화병, 향로, 자기, 청동제품, 가구, 실크, 상아, 은제식기, 부채 등을 전시하여 중국 전시품들의 홍보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 페이지의 카달로그를 출판하였으며 언론매체들은 중국전시에 대한 호평하였다. 한 예로 Centennial Eagle은 “중국 컬렉션은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데 이는 단지 우아해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회는 미국에 이때까지 들어온 작품들 중 가장 화려하고 포괄적인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회이다.....실용품이든 장식품이든 관람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¹²⁾고 하였다. 여기에서 중국의 미술과 취향이 미국인들에게 폭넓게 소개되었으며 미국 가정에 친밀하게 스며든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성과를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New York Tribune* 보도에 의하면 사람들은 중국 도자기, 칠기, 청동제품을 선호하였고 박람회 6주 후 중국 전시품의 약 절반가량이 판매되었다.¹³⁾ 1876 박람회의 중국전시는 종종 일본과 비교되어 일본의 전시품들이나 전시 기법에 비해 열등하게 평가되어지나 그러함에도 중국 전시회는 중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미술품들이 처음으로 미국 일반인들에게 대대적으로 선보여졌고 그들을 매료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전에는 소수 부자들만이 유럽 박람회를 통해서 중국 미술의 가치를 감상하고 있었지만 필라델피아 박람회를 통해 중국 미술이 미국 대중 속으로 다가간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처음으로 황실과 관료가 이 박람회 가치의 중요성을

10) 상동 p. 43

11) 상동 p. 44

12) Jennifer Pitman, "China's Presence at the Centennial Exhibition, Philadelphia, 1876" *Studies in the Decorative Arts*, Vol. 10, No. 1(FALL-WINTER 2002-2003), p 46

13) 상동 p 47

깨닫고 예산을 확보하고 전시품을 선별하고 전시하여 앞으로 더 있을 박람회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나) 세인트 루이스 박람회(1904년)

1893년 시카고 박람회는 일본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하게 심어주었다. 일본은 박람회 초청을 제일 먼저 수락하며 전시회에 600,000달러를 할당하며¹⁴⁾ 세련되고 다양한 미술품들을 전시하므로 일본 문명의 우수함과 일본 미술을 유럽미술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된다. 일본이 1893년 시카고 박람회를 통해서 일본미술의 위치를 유럽의 미술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1904년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서는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중국은 영국과의 1차 아편전쟁(1840~1842)에서 패하여 1842년 난징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구 열강에 강제적으로 문호가 개방된 이후 다시 한 번 아편전쟁(1861)을 치르고 또 일본과의 전쟁(1894~1895)에서 패하여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2억 3,000만 은량을 일본에 배상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시련을 혹하게 겪고 있었다. 대내적인 불안은 태평천국의 난이나 의화단 사건 등 크고 작은 내란들로 이어졌고 청 정부는 마침내 세계 정세와 중국의 초라한 위상을 깨닫게 되고 일본과 같이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자강운동이나 양무운동 등을 도입하였다. 일본이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근대화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근대화를 성공으로 이끈 반면 중국은 수많은 지방 분권과 보수파와 개혁파의 양분으로 근대화는 부진하기만 하였다. 광서제의 백일유신은 실패하고 의화단 사건(1898~1901)으로 영국 등 8개국 연합국-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게 39년 동안 4억 5,000만 은량(중국인 1명당 1은량)을 배상하는 등 청조는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듯하였다. 두 번의 아편전쟁, 베트남을 두고 벌인 프랑스와의 전쟁, 일본과의 전쟁, 의화단과 영국 등 8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서태후는 유럽과 일본의 신식 무기와 함대의 위력을

14) Where is the East? Asian Objects in American Museums, from Nathan Dunn to Charles Freer, p165

보았고 열등했던 일본이 서구화 근대화로 무장하여 아시아의 맹주로 거듭난 것을 지켜보며 드디어 근대화의 길을 열기로 결심한다. 그 결심은 세인트루이스 박람회 참가로 이어진다. 청은 국고가 거의 바닥난 상황에도 75만량을 들여 정부 주도로 특사단을 파견하고 관민합자 공사(公司)를 설립하며 370여 페이지의 카달로그를 출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또한 서태후는 쿵거 부인¹⁵⁾의 권유로 자신의 초상화를 박람회에 전시하여 서구에 알려진 자신의 추악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서태후의 그림은 “미술궁”에 특별하게 전시되었으며 이 초상은 미국 정부에 증정되어 미국국립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에 소장되었다. 무엇보다도 청 정부는 이 박람회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과 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총 1,400톤의 물품을 들여와 채색 도자화병, 거대 상아조각, 법랑기, 상감 가구, 아름다운 문양의 직물, 자기, 동기, 칠기, 풍경화, 차 등 다양한 물품을 선보였다. 먼저 상업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중국 작품 가격은 미화 70불에서 천불, 만불에 달하였는데 당시 미국 중산층 남성 월급이 60불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가임을 알 수 있다.¹⁶⁾ 당시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골동품 수집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한 골동품이 1만 달러에 팔리기도 하였다. 또한 ‘북경공예국’은 법랑기 제작 과정 하나하나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보여 주는 등 박람회의 교육 취지에 부합하는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다만 여전히 전시기법이나 진열방식에서 다른 참가국 특히 일본과 비교해 뒤떨어지는 수준을 보였지만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며 대표단들의 중국 전통복식, 서태후의 초상화, 황실 가구, 장식 미술품, 청동, 도자기, 칠기, 등 고미술품 등은 미국인들에게 중국 문화와 예술을 다시 선보이며 컬렉터들의 수집 의욕을 부추겼다.

3) 미국 내 중국미술 전시회

다음은 미국의 중국 미술 전시회 사례를 통하여 중국 미술이 어떻게

15) 당시 중국 주재 미국 공사 Edwin H. Conger의 부인

16) 왕정화, 『드러난 ‘중국’-1904년 만청시기의 미국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연구』 「미술사 논단」 20(2005.6.),p12

미국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해 나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던 박물관(Nathan Dunn's Museum)

나단 던(Nathan Dunn)은 필라델피아 무역상으로 중국 문화에 대단히 심취하여 1818년 광둥으로 가 1832까지 14년 동안 중국에 거주하였다. 여타 무역상과는 달리 아편거래를 하지 않아 광둥 지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그는 50,000달러를 지불하고 수집한 10,000여점의 중국 물건들을 전시할 박물관을 세워 1838년 일반 대중들에게 개방하였다.¹⁷⁾ 전시품들은 그림과 자기류에서 중국의 다양한 직업과 지위를 상징하는 의복을 입은 실물 크기의 마네킹, 자연사 표본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생활, 문화, 자연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하며 진귀한 물건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전시품들은 미국 일반인들에게 중국인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다방면적으로 소개하였다. 던의 수집품들은 미국에서 대중에게 소개된 최초의 체계적인 중국 컬렉션으로 방문객들은 던의 컬렉션을 통하여 중국인의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던 박물관이 건립될 무렵 중국은 미개하고 아편에 취한, 퇴보하는 민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전시를 통하여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인쇄술, 나침반, 화약"을 발명한 대단한 민족으로 재평가 되었으며 전시를 통하여 다방면에서 중국의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Wines는 이 전시에 대해 "던의 진귀한 컬렉션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국인의 예술적, 기술적 창의력을 간파할 것이다."라고 평가하여 던의 컬렉션을 이미 예술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1832년, 던의 박물관에서 보듯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이미 2세기 전에 중국의 예술과 문화를 인식, 이해, 향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유럽으로부터의 중국미술 전시회

제 1차 세계대전 후, 1920년대부터 아시아 미술, 특히 중국 일본 미

17) Where is the East? Asian Objects in American Museums, from Nathan Dunn to Charles Freer, p160

술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세기 초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제국국가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고고 원정대를 보내어 이들에 의해 발굴, 수집된 문화재들이 박물관에 소장, 전시됨으로 "미술"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청 멸망 전후, 손문, 장개석, 마오쩌둥과 같은 중국 지도자들은 유럽,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중국을 오랫동안 지탱한 유교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이나 정치체제가 붕괴되어 감을 우려하며 자강운동을 통하여 국내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국의 미술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 길을 택한다. 다음에서는 중국이 미술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활용하였는지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대부터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경쟁적으로 박물관내 중국 갤러리를 신설, 확장하며 크고 작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미국 내 중국 전시회 확산을 이해하기 위해 유럽으로부터의 영향을 먼저 살펴보자. 1920년 런던에서 개최된 로얄 아카데미 전시회는 제 1차 세계대전 전후에 개최된 전시회들 중 최고의 전시회로 평가 받으며 이어 1925년 암스테르담 시립 박물관에서 국제 중국 미술 대여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의 성공으로 1926년 독일 쾰른에서는 '동아시아 친구들(The Freunde Ostasiatischer Kunst)' 단체가 설립되어 '쾰른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1차 대전 후 독일 내 첫 중국미술 전시회로 상당 미술품을 파리 기메 박물관, 개인 컬렉터와 딜러로부터 대여 받은 대규모 전시회였다.

1929년 베를린에서 중국전시회가 또 한 번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13개국 172 컬렉션과 딜러로부터 대여된 전시품과 458쪽에 달하는 카달로그로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전시회는 출판, 강연과 함께 중국 미술과 고고학을 독일 국내와 국제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미술은 국제사회에서 박물관, 컬렉터, 딜러, 학자, 아시아 미술 그룹의 지지와 관심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략으로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을 더하여 1935년 런던 벌링턴 하우스 중국 미술전(The exhibition of Chinese Art Burlington House)에서 정점을 찍는다.

이 전시회는 런던의 벌링턴 미술 클럽(Burlington Fine Arts Club)¹⁸⁾이 주관, 총 전시작품은 3,080점으로 사상 최대 대여 전시회로 무엇보다 중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박물관, 도서관, 문화기관 등에서 대여한 984점의 미술품들이 무사히 도착, 전시, 반환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였다.¹⁹⁾ 중국정부는 중국 국보급 미술품들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우리가 중국의 국보들을 보내는 유일한 목적은 서구 사회가 중국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영국 선별위원회와의 우호적 의견 교환 후 최종 선별이 이루어졌으며 작품은 중국 초기시대부터 1800년대에 이르는 청동, 도자기, 그림, 서예, 옥, 철기 등을 포괄한다...대부분 작품은 고궁박물관과 국립박물관 소장품이다.²⁰⁾

이를 통하여 중국 정부가 미술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거듭나기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였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은 1911년 청 멸망과 경제적 붕괴로 수많은 실권 관료들과 컬렉터들은 값이 좋기만 하다면 누구에게나 그들 작품들을 팔았다. 미술품이나 발굴 유물들은 현금화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 수단이었으며 1911년 청의 멸망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 컬렉터들은 중국미술품 구매의 황금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내외국인들에 의한 도굴이나 약탈, 그리고 중요 미술품들이 유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1930년대 초, 중국미술품 반출 제한 법을 공포하였으며 국립 고미술 보존 위원회와 같은 정부 기관을 설립하였다.²¹⁾ 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중국미술 국내외 시장을 통제할 법적 기틀을 다지며 중요 문

18) 대부분 회원들은 중국미술 수집가, 큐레이터 그리고 미술전문가들임

19) Jason Steuber, 'The Exhibition of Chinese Art at Burlington House, London, 1935-1936', The Burlington Magazine, Vol. 148, No. 1241(Aug., 2006), p532

20) The Chinese Organizing Committee: *Illustrated Catalogue of Chinese Government Exhibits for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Chinese Art*, London, Shanghai 1936

21) 1930.6.7. '고대 유물 보존법'(Law on the preservation of Ancient Objects), 1931.7.3. '고대유물보존 시행령' (Detailed Rules for the Impletation of the Law on the Preservation of Ancient Objects)
Jason Steuber, 'The Exhibition of Chinese Art at Burlington House, London, 1935-1936', The Burlington Magazine, Vol. 148, No. 1241(Aug., 2006), p533

화재가 더 이상 개인 수집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시작하였다. 즉, 1930년 이후 중국정부는 문화유산 보존 보호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재 유출을 제지함과 동시에 해외 중국 문화재 전시를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미술을 통한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다. 미국 내 중국미술 전시회

유럽에서 개최된 중국미술 전시회는 미국 박물관이나 미술시장, 미술사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1920년 후반부터 미국 내 중국미술 전시회는 미국사회에서 하나의 문화예술 트렌드가 되었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1920년대, 30년대 미국 박물관이 개최한 중국미술 전시회를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국미술 및 문화가 미국 내 아시아 미술의 핵심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 아래 내용들은 당시 Art Magazine이나 Bulletin에 게재된 기사들을 요약한 것으로 당시 인식을 이해하고자 함

- 1) 1923년 동부 뉴저지 주 뉴워크 박물관은(Newark Museum, NJ) "*China and China*" 전시회를 1923.11~1923.12 동안 1여년에 걸쳐 전시함

전시회의 목적은 미국인들이 중국의 광대하고 섬세한 문화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며 전시는 중국인의 일상생활, 그들의 공예품, 이들 작품을 통한 미, 문학, 철학, 문화적 개념의 정신적 표현을 나타 냄. 전시회를 통하여 최근 세계 각 행사에서 부각되고 있는 중국에 관한 호기심 충족, 학교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의 중국에 관한 연구가 심오하게 진행되길 희망함²²⁾

- 2) 1929년 중서부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박물관은 (Detroit Institute of Arts, MI) "*The Chinese Art Exhibition*"을 전시함

22) *The American Magazine of Art*, Vol. 14, No. 8(August, 1923), pp. 453-454

전시회의 목적은 디트로이트 시민들에게 박물관 중국 소장품을 다른 박물관 소장품과 비교 평가 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향후 중국 미술 확산에 있음. 이 전시회는 최고 수준의 그림, 청동미술품, 옥, 도자기, 조각품 등 90여점으로 구성되어 관람의 즐거움과 중국미술에 관한 지식을 함께 제공함²³⁾

3) 1929년 동부 펜실버니아 주, 펜실버니아 박물관(Pennsylvania Museum of Art)은 “Philadelphia’s Notable Accession of Chinese Art” 전시회를 개최함

새 펜실버니아 박물관, 중국관에서는 9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최고 수준의 그림 300여점이 전시 됨. 이는 현존하는 중국 그림 중 최고 컬렉션 중 하나로 평가 됨. 갈수록 희소해지는 이 작품들을 획득하게 되어 행운이며 이들은 보스턴 박물관의 중국 그림들과 필적하는 것으로 미국 여타 박물관과 유럽이나 동양에 남아 있는 작품들보다 훨씬 우수한 수준임.

초상화, 풍경화, 화조화, 정물화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이 전시회는 중국회화의 포괄적, 종합적 위대함을 보여줌.

박물관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의 최고 미술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필라델피아 관람객들에게 미술 감상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임. 이는 과거 프랑스 화가들을 선호한 미국 현대 미술가들에게 영감과 동양미술의 신선함을 제공할 것임. 또한 미국과 유럽의 많은 학생들과 미술 전문가들을 필라델피아로 불러들이며, 이들은 곧 이 그림들이 중국회화사 연구에 필수적임을 깨닫게 될 것임.²⁴⁾

4) 1931년 뉴욕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중국 궁중복과 장신구전 “Exhibition of Chinese Court Robes and Accessories”을 개최함

박물관에 유증된 중국 궁중복식과 장신구들로 박물관은 중국 복식 소장의 부러움의 대상이 됨. 이번 전시회는 대여 궁정복과 18세기 황실 연회복도 포함되어 서구 국가에서 최초로 중국 황실 복식의 세련미와 화려함을 보여줌²⁵⁾

5) 1933년 대학연합회(College Art Association)는 중국그림 대여전시

23) Bulletin of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City of Detroit, Vol. 11, No. 3(December 1929), p XLIII

24) *Parnassus*, Vol. 1, No. 6 (Oct., 1929), pp. 28-30

25) *Parnassus*, Vol. 3, No. 8 (Dec 1931), pp. 25-26

회 "A loan Exhibition of Chinese Painting"을 개최함

이 전시회의 목적은 일반대중들에게 중국예술의 근원인 지속적 선율감의 미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전시회는 다양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장 초기 작품은 당, 송 불화임. 중국 미술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는바 중국 미술의 간결미와 섬세함은 다양한 분위기와 결합하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이 전시로 중국미술 감상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길 바람. 이번 작품은 클리블랜드, 볼티모어, 스프링필드, 맨체스터 등에서 순회 전시될 것임.²⁶⁾

6) 1933년 뉴욕의 야마나카 갤러리(Yamanaka gallery)는 송나라 프레스코: 3명의 위인전, "The three Main Personages from a Chinese fresco of the Sung Dynasty" 을 개최함

야마나카 갤러리의 송 프레스코는 너비 33feet, 높이 10feet의 도교 대표작임. 이 거대 벽화는 산시성, 룡만 사원에서 가져 온 것으로 130여개로 잘려져 나간 조각들을 다시 맞춘 작품임. 이들 벽화는 불교와 도교의 종교, 속세와 역사를 내포하는 이례적이며 최고 수준의 경지를 보여 줌.²⁷⁾

7) 1934년 캘리포니아 Mills College는 "Chinese Art, The First Exhibition of the Friends of Far Eastern Art(1934.10.12~11.25)" 전시회를 개최함

오늘날 태평양 연안 도시들 사이에 중국미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 전시회는 신석기 시대 채색 도기로 시작함. 신석기 시대 중국 미술은 미국 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분야임.

초나라 시대 위주로 수집된 청동미술품들은 놀라운 수준을 보여 줌.

기원전 1,200년에서 200년대까지 거의 모든 타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옥들은 이 전시의 극치를 이루며 한나라 철기들도 놓칠 수 없음. 또한 당의 거대한 불상과 송나라 자기들도 전시됨

"극동미술 친구들(Friends of Far Eastern Art)"은 중국미술 상설전시실 마련을

26) *Parnassus*, Vol. 5, No. 5 (Oct.,1933), pp. 18

27) *Parnassus*, Vol. 6, No. 6 (Nov., 1933), pp. 18-19

보증할 것임.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수준의 미술품들이 수집되고 있음을 의
미함²⁸⁾

이상과 같이 1920, 30년대 미국 내 박물관들에서 개최된 중국미술 전시회를 보면 지역적으로 뉴욕이나 뉴저지의 동부에서 미시건, 펜실 버니아 중부, 캘리포니아 서부로 확산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시회의 목적 또한 호기심 충족, 미술 감상의 즐거움에서 중국미술의 심오한 연구로 이는 중국미술이 전문적인 분야로 발전되어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전시 장르 또한 신석기시대의 발굴유물과 민속품, 도자기, 청동, 칠기, 옥 등의 장식미술에서, 초상화, 풍경화, 화조화 등의 그림, 궁중복식, 거대불상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시대와 장르를 아우른다. 물론 1920, 30년대 당시 상기 전시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시회가 있었으며 이후로는 전시 기법이 더욱 세련되며 컬렉션도 다양해져 각종 강연, 출판, 행사들과 함께 중국미술과 문화는 미국사회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미 18세기, 무역을 통하여 중국미술과 문화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던 박물관”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중국 물품이나 미술품들은 체계적으로 소장, 전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세기 중엽부터 아시아 각 국 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교관, 선교사, 개인컬렉터들의 아시아 미술품 수집은 전문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은 청 말에서 초기 인민공화국 수립 무렵, 정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으로 고위 관료에서 노동자들에 이르기 까지 그들이 소유하거나 도굴한 중요 문화재들을 유럽, 미국과 일본 컬렉터들에게 팔아 넘겼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더 이상 일본 고미술품을 구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중국은 황금 시장이었다. 프리어, 퍼거슨 등 수많은 컬렉터들의 대규모 컬렉션 기증으로 미국 전역 박물관의 중국 갤러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컬렉션은 각 대학의 중국미술사 개설로 이어진다. 또한 중국정부는 유럽과 미국이 개최한 세계박람회를 외교적,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부패하고 아편에 취한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일반 서민에서 전문

28) *Parnassus*, Vol. 6, No. 7 (Dec., 1934), pp. 14-16

컬렉터와 박물관들에 이르기까지 중국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였다. 오늘 날, 미국 내 박물관, 도서관, 미술시장, 대학의 중국 미술품 컬렉션 규모와 수준은 어마어마하며 중국미술사 교수와 학생들의 수도 타 아시아 미술사에 비해 압도적이다. 아이러니하게 중국 정부는 일본과 한국과 달리 별도로 이들 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미국 박물관등 문화기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보존,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컬렉션은 규모도 작을 뿐더러 그 가치가 잘 인식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존도 활용도 저조한 편이다. 당분간 한국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3. 미국 내 한국미술 및 문화 전파

미국의 문화·경제 심장부인 뉴욕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 홍보 전광판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세계 관광객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준다. 화려한 전광판을 마주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어려운 시대를 거쳐 온 과거사에 대한 연민으로 만감이 교차한다. 오늘 날 미국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한류”가 입증하고 있는 바, 본인의 연구지인 오히리오 주 중소 도시 클리블랜드에서도 한류를 체감할 수 있다.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축제(Asian Festiva)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시민과 함께 하는 “K-pop”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어린 꼬마에서, 대학생, 주부, 노인사들까지 K-pop에 맞추어 “강남스타일” 춤을 추며 축제를 한껏 즐긴다. 또한 미국 어디에서든 한국 드라마를 즐겨 시청하는 한국 드라마 마니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의 관심은 역사드라마에까지 이른다. 최근 2017년 7월, 한국 드라마와 K-pop 미국 팬들을 위하여 *Kocowa*(Korean Content Wave)가 서비스되어 KBS, MBC와 SBS의 드라마들을 거의 실시간(한국 내 방송 6시간 후)으로 미국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²⁹⁾

현재 미국 내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위상은 조미통상조약 체결(1882

29) Korean Broadcasters Launch U.S. Streaming Service, Taking on Warner Bros's DramaFever, *Variety*, Todd Spangler, 2017.7.24.

년) 후 19세기 말 20세기 초와 비교한다면 그 눈부신 성장에 놀랍기만 하다. 한 예로 1893년 조선은 처음으로 세계박람회에 참석하게 된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여 시카고시가 개최한 시카고 만국박람회(World's Columbian Exposition)에 고종은 13명의 소규모 대표단과 조선 물품 등을 보낸다. 조선 전시관에 대한 평가는 당시 미국 유학생이었던 윤치호의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그의 일기에 의하면 "오전 11시에 조선전시관에 가서 오후 다섯 시 까지 머물렀다!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거기를 떠날 수 없었다. 비참한 조선 전시장. 일본인은 자랑스러워할 수 밖에" 1세기 전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상은 그의 말대로 "비참함" 그 자체였으며 당시 미국인에게 한국인과 한국 문화는 단지 "호기심"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했던 한국 문화, 예술, 기술, 패션, 음식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기쁘고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 장에서는 과거 한국전통 미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미국 사회에 뿌리 내렸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한국 전통미술의 위상과 한국문화재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미술사와는 달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부족하여 당시 박물관 수집, 전시 기록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에 최초 유입된 한국 문화재 이미지를 살펴보고 둘째, 박물관 연대별 자료를 통하여 한국 문화재의 양적, 질적 변화를 파악하며 셋째, 시카고 박람회에서 표현된 조선의 이미지와 1950년대와 1970년대 2건의 정부 주도 순회 전시회를 파악하여 현재 한국 전통미술 위상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19세기 중엽 극동아시아는 제국주의 팽창으로 유럽과 미국의 강제문화개방에 대내외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842년 중국은 영국과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난징조약(南京條約)을 시작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을 맺었다. 일본은 1853년 미국 페리 제독(Commodore Matthew Perry)에 의해 강제적으로 문호가 개방되었으며 1858년 불평등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불평등조약을 조선에 적용,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가 체결되어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이 차례로 개방되었다. 또한 미국도 청과

일본에 이어 한국과도 통상을 시도하고자 1866년 상선 제너럴셔먼호 (General Sherman號)를 이끌고 왔으나 평양 군민에 의해 배는 불태워졌고 선원들은 처형되었다. 이 후 1871년 로저스(John Rogers)가 콜로라도(Colorado)함대를 이끌고 제너럴셔먼호 사건 책임을 물으며 통상 요구를 시도하며 조미 전투가 일어났다. 이 후 조선의 쇄국정책은 강화되었고 미국은 몇 년 동안 조선과의 통상을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1876년 일본과의 통상조약은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조선과의 통상 요구를 시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882년 마침내 슈펠트 제독(Commodore Robert Wilson Shufeldt)에 의해 조선은 서구사회에 첫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문호 개방 이후 미국으로부터 외교관, 선교사, 사업가, 탐험가, 여행자들이 조선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으며 이들에 의해 조선인, 조선 문화가 미국인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 한국 문화재의 미국 내 초기 형성은 조선의 정치, 외교적 특수성과 미국의 고고학 및 민족학 태동에 기인한다. 이 당시 조선은 일본과 중국의 정치적 간섭에서 독립하고자 외국, 특히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왕실과 양반들은 미국 주요 정치인이나 선교사들에게 우호의 징표로 고품격 물품(현재 문화재)을 선물하였다. 그리고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는 제국주의 팽창으로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민족학(인류학)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박물관들은 식민지나 세계 각국의 민족지학적 물품들을 수집, 세계 문명의 우열을 전시하였다.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펜실버니아 대학 박물관,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을 들 수 있으며 당시 한국 민족학 컬렉션에 기여한 수집가로는 버나도(John Baptist Bernadou), 알렌(Horace Newton Allen)과 주이(Pierre Louis Jouy)를 들 수 있다. 다음은 이들 컬렉터와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의 수집 및 전시행태를 통해 미국 내 한국 문화재 첫 전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국립박물관의 한국문화재 최초 전시

1880년대 초 스미소니언 연구소(Smithsonian Institution)와 미 해군(U.S. Navy)은 협약을 체결, 고고학적 지식과 기술을 훈련 받은 해군을

해외로 보내어 각 국의 자연적, 문화적 산물과 정보를 수집하여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에 보고하게 하였다. 조선에 파견된 대표 인물은 버나도, 포크(George Clayton Foulk)와 주이를 들 수 있으며 당시 조선에 머물며 의료 선교사로 조선 정치에 크게 관여한 알렌도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이 미국에 문호를 개방한 다음 해, 1883년 말 버나도와 포크는 조선에 입국하여 각각 송도(개성), 평양, 운산, 의주 등 조선 북부와 서울, 전라남도, 경상도 등 남부를 탐험하며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을 위하여 조선의 민족학 컬렉션, 동·식물군 표본을 수집하였다.

버나도우는 1885년까지 조선의 민족학적 물품 156 품목을 수집하여 25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으로 전적하였다.³⁰⁾ 1886년 국립박물관에 도착한 버나도 컬렉션은 미국의 첫 주요 한국 컬렉션이 되었다. 그의 수집품들은 예술품이 아닌 조선시대 일상생활용품으로 옷, 신발, 모자, 가구, 식기, 식탁, 필기구 세트, 민화, 풍경화, 초상화 등 그림, 책, 지도, 게임, 악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표본으로 고려청자 몇 점이 있었다.

버나도 컬렉션은 당시 스미소니언 큐레이터 메이슨(Otis Mason)에 의해 *Corea by Native Artists* 제목으로 *Science*지에 게재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컬렉션은 산업과 관습 전반에 이어져 온 한 민족의 전형을 보여주며 이들은 사라지거나 변형되어 왔다."³¹⁾

그의 말에서 조미 수교 이후 미국에 첫 전시된 한국 수집품들은 한국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 미의 전시가 아니라 주변 열강에서 생존한 민족지적 전시의 보기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알렌의 수집품으로 알렌은 선교사, 의사, 외교관으로 1884년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은 후 1905년 미국 공사관 철수로 조선을 떠날 때 까지 20년을 조선에 거주하면서 정치, 외교,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외국인 중 한 명이다. 그는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은 민영익의 생명을 구해주어 고려청자 대접을 선물 받음으로 고려청자의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알렌은 20년 체류 동안 한국 미술을 공부하며 그 자신과 프리어(Charles Land Free)와 같은 개인 컬렉터

30) Robert Oppenheim, *An Asian Frontier: American anthropology and Korea, 1882-1945*, University of Nebraska, 2016, p34-35

31) Mason, "Corea by Native Artists," 115

또는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미술품을 수집하였다.

1889년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은 알렌으로부터 조선의 민족지적 품목 118점을 받았으며 많은 물품들이 조선의 왕이 알렌에게 하사한 물품이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알렌은 조선의 1893년 시카고 박람회 참석에도 주요 역할을 하며 전시품들이 스미소니언이나 여타 박물관에 남도록 주선하였다. 당시 시카고 박람회는 민족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만국 박람회로 미국 내 인류학자와 고고학자들의 방문이 이어졌음을 볼 때 박람회 내 조선 전시관도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의 동일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1901년 미국 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미비할 무렵 알렌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그의 컬렉션 일부를 팔기 위해 록힐(W. W. Rockhill)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14세기 이전 고려청자 최고 컬렉션이 있는데 10,000달러 제의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컬렉션 목록을 만들어 본국 컬렉터에게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더 많이 수집하고자 합니다.³²⁾

이 편지에서 알렌이 꾸준히 도자기 등 한국미술품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20세기에 진입하면서 고려청자 등 한국 도자기의 경제적 가치가 놀랄 정도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세기 말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전시 무렵 민속품 수준으로 전시되었던 한국 도자기들이 20세기 초 들어서면서 예술품의 경계로 넘어왔음을 보여준다.

주이(Pierre Louis Jouy)는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소속 조류학자로 1883년 한국에 도착하여 1886년 7월 한국을 떠날 때까지 약 2년 반 동안 한국에 머물며 수집 활동을 하였다. 그는 그의 수집 활동을 일기로 남겼는데 그 중 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2) Robert Oppenheim, *An Asian Frontier: American anthropology and Korea, 1882-1945*, University of Nebraska, 2016, p74

1883년 겨울,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조선 도자기에 매료되었다. 평범한 도자기와 확연히 다른 도자기 몇 점을 구하여 일본 감정가에게 보였는데 그는 도자기가 아주 희귀하고 진기하다며 좋아하였다. 이 진귀한 가치를 지닌 훌륭한 표본의 도자기들은 일본, 특히 오랫동안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오사카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졌다.

운 좋게도 가끔씩 나에게 도자기류나 다른 부장품들을 가지고 오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는 이것들을 대구, 울산, 동래 근처 고대 고분에서 가져왔다고 했다. 도자기 이외 도금 구리 반지, 청동 장식품, 석제품, 그 중 가장 흥미 있는 것은 석관에서 발굴한 화살촉으로 오랜 세월에도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33)

그의 일기에서 우리는 1880년대 이미 고분이나 분묘 도굴이 성행하였으며 고려청자나 값진 부장용품이 일본 컬렉터나 미국과 유럽 컬렉터들 사이에서 거래가 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이는 같은 책에서 “조선은 하나의 거대한 묘지이다(Korea is one vast graveyard)" 라고 말하였다. 주이는 이렇게 수집한 40점의 유물과 43점의 사진을 박물관에 제공하였으며 이들 품목에는 일상용품, 고고학적 물품과 박물관이 처음 획득한 것으로 장승 등이 있었다.

1891년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민속학자 휴(Walter Hough)는 버나도, 알렌, 주이가 조선에서 수집한 컬렉션을 *미국 국립박물관의 버나도, 알렌 그리고 주이 컬렉션(The Bernadou, Allen and Jouy Corean collections in the United National Museum)*으로 출판하였다. 그는 책에서 이 컬렉션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이는 1884년 해군 버나도에 의해 미국 국립박물관에 보내진 한국에서 서방으로의 첫 한국 민족학적 컬렉션으로 한국의 사회상과 산업발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수집되었다. 이 컬렉션을 중점으로 서울의 미국 공사 서기관 알렌과 주이의 컬렉션이 더해졌으며 그리고 록힐(W. W. Rockhill)과 고우드(Gustavus Goward) 등 의 기증품으로 이 컬렉션의 중요성과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34)

결론적으로 휴의 말에서 짐작하듯 최초 미국 국립박물관에 전시된 한국 문화재는 심미적, 예술적 가치가 아닌 민족지학적 관점에서 이용되었다. 이 컬렉션들의 총 목록을 살펴보자면 수집품을 농업과 농업 연관 산업, 해양 및 어업, 제조업 및 기타 세공업, 가정용품과 장신구, 복식(服飾), 화장용품, 그림·조형·장식 예술, 사회관계 및 복지, 통치와

33) Jouy, "The collection of Korean Mortuary Pottery," p589

34) The Bernadou, Allen and Jony Corean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Walter Hough, p18

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인류학의 물질문화 분류체계를 따른 것이다.³⁵⁾

당시 알렌은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의 이러한 전시행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는바 당시 미국에서 동양학 전문가이자 *코리아: 은둔의 나라* (*Corea: the Hermit Nation*)의 저자 그리피스(Wiliam Eliot Griffis)에게 쓴 편지에서 알 수 있다. “국립박물관의 비합리적 컬렉션은 조선인이 야만인이라는 발상을 담고 있다. 버나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었다. 이에 우리는 좀 더 세심하게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박물관 전시를 위해 고종에게 요청할 것이다”.³⁶⁾

알렌의 표현에서 그는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 큐레이터와 버나도가 한국을 야만적 단계의 민족으로 전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왕실로 부터의 고려청자나 미술품으로 한국문화와 미술의 세련미를 보여주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미통상 조약 이후 조선에는 외교관, 선교사, 군인, 탐험가, 상인 등이 들어와 한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적, 개인적 목적으로 한국 물품들을 수집하였다. 버나도, 알렌, 주이는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에 고용되어 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각자의 안목과 판단으로 조선의 일상생활용품과 고려청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물품들을 수집하였고 이 물품들은 미국의 제국주의 팽창의 구실, 즉 민족학적 목적으로 이용, 전시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알렌과 주이는 고려청자 등 한국 도자기에 보다 집중하였고 당연 고려청자의 우수성은 개인 컬렉터나 박물관에 인지, 선호되었다. 즉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한국 도자기를 포함, 조선의 물품들이 민족적 전시품에서 심미적 가치의 예술품으로 옮겨가는 시기였다.

다음에서는 1880년대 이후 1940년대까지 미국 내 박물관들의 한국 미술품 수집, 전시에 관한 기사들을 통하여 한국 미술품 수집, 전시, 인식 발전을 알아보고자 한다.

35) 최협, 2008,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한국소장품에 반영된 한국문화: 문화적 표상화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41권 2호, 3~38쪽.

36) Robert Oppenheim, *An Asian Frontier: American anthropology and Korea, 1882-1945*, University of Nebraska, 2016, p38

2) 한국문화재 수집, 전시 및 인식변화

시기	장르	제목	주요내용	기관
1911	도자기	Korean Pottery ³⁷⁾	우리 박물관이 획득한 <u>한국 도자기는 한국의 훌륭한 미술품임</u> 한국 도자기 제작은 중국 도자기와는 전혀 다르게 다채롭게 독자적으로 발전했으며 <u>일본에게 거의 모든 것을 전수해 주었음</u> 우리 소장품은 기술과 감각에서 가장 뛰어난 시기, 고려시대의 것으로 뛰어난 미를 보여 줌. 이 컬렉션은 <u>고려시대 무덤에서 파낸 것으로 일본과 조선에서 Mr. Warner가 선정한 것임</u>. Mr. F. G. Macomber로부터 대여한 몇 점의 탁월한 작품과 더불어 전시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음 -고려청자의 기형, 유약, 상감기법 소개	보스톤 미술관
1915	도자기	Korean Pottery ³⁸⁾	극동 아시아의 초기 도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는 오늘 날 Mr. Samuel T. Peters이 박물관에 기증한 <u>32점의 한국 고대 도기는 아주 시의 적절하며 환영받을 만함</u>. <u>10년 전부터 한국도자기는 서구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는 러시아의 극동아시아 교란으로 전통관습과 미신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무덤을 파헤침, 대부분 한국 도자기는 고분에서 나온 것임.</u> 이 컬렉션의 고고학적 정보가 애매하나 고려시대의 것임이 확실함. <u>발굴자들의 부주의로 도자기 개별적 시대 유추가 어려워며 고분의 교란 상태는 정확한 정보나 지식 획득을 어렵게 함</u> 중국 문헌 인용하여 고려자기 우수성 소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37) F.S.K Museum of Fine Arts Bulletin, Vol. 9, No. 54(Dec., 1911),pp. 63-64

38) Durr Friedle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Vol. 10, No. 3(Mar., 1915), pp. 43-45

시기	장르	제목	주요내용	기관
1918	도자기	Grave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³⁹⁾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일본도자기는 고려 도자기에 크게 영향을 받음 <u>상감기법은 다른 나라에서 시도되기 전 고려에서 시작된 것 같음</u> -토기 부장 관습 소개, -기형, 유약, 장식, 중국과 비교. 고려시대 섬세한 도자기 기술은 후기 들어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시대 도자기들은 형태, 기술, 디자인, 유약이 거칠어짐. 지금은 일본 관리, 감독하에 고려도자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음	펜실버니아 박물관
1921	도자기, 그림, 자수, 금속	Korean Art in Gallery X ⁴⁰⁾	뛰어난 그림, 아름다운 도자기, 조화롭게 수 놓아진 자수와 예술적 철제품들이 즐거운 양상블을 이룸. <u>한국 미술의 중요한 작품들은 방문객들이나 미술전공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음</u> <u>얼마 전 Dr. A. I. Ludlow가 한국 체류시 수집한 한국 도자기와 귀국, 그의 컬렉션을 John L. Severance가 구입하여 우리 박물관에 기증하였음</u> 세브란스 컬렉션 이전, <u>Worcester R. Warner의 한국도자기 컬렉션이 한국컬렉션 형성의 주요 역할을 함.</u> -컬렉션 대표 작품 유약, 기형, 장식, 색상, 청자 제작 과정 설명	클리블랜드 박물관
1924	불화	Korean Temple Painting ⁴¹⁾	디트로이트 박물관은 최근 <u>한국 불교 벽화를 획득함. 이 벽화 사이즈는 높이 7feet 2inches*feet 10inche 길이로 아주 대형이며 화려한 장식과 섬세한 기법으로 드물게 훌륭한 작품임.</u> 불행히 16세기 일본의 조선 침입은 한국의 위대한 미술의 종말을 가져옴.	디트로이트 박물관

39) Mrs. Langdon Warner, *Bulletin of the Pennsylvania Museum*, Vol. 16, No. 61 (Apr., 1918), pp.17-20

40) J. A. M.,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Vol. 8, No. 8 (Oct., 1921), pp.121-122, 127

41) R.P., *Bulletin of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of the City of Detroit*, Vol. 6, No. 3

시기	장르	제목	주요내용	기관
			<u>일본의 훌륭한 예술가들의 스승은 한국인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임.</u> <u>나라 시대 중요한 일본 사원들은 한국인에 의해 장식됨</u>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불교미술 비교	
1928	도자기	Recent Additions to the Collection of Korean Pottery ⁴²⁾	<u>한국 고분에서 발견된 34점의 고려도자기를 획득함으로 우리 박물관 대표적 컬렉션의 완성도를 더함. 이 작품들은 Dr. A.L. Ludlow의 소장품으로 John L. Severance가 구매하여 박물관에 기증함</u> <u>이 컬렉션으로 미국 내 다른 박물관과 필적하게 됨</u> -고려청자 유약, 상감기법, 기형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신라토기 서술 - 청자 종류별, 작품 한 점, 한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클리블랜드 박물관
1928	도자기	The Allen Collection of Korean Pottery Goes to San Diego ⁴³⁾	<u>알렌 박사(Dr. Horace N. Allen, of Toledo)가 20여점의 희귀하고 아름다운 한국 도자기를 샌 디에고 박물관에 기증함. 그의 첫 한국도자기는 민(Prince Min)으로부터 왕실의 우호 표시로 받은-황실 보물중 하나-작은 고려청자 대접이었음</u> <u>큐레이터(Ralph Moris)가 말하길 "한국 예술의 높은 교육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음.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이전에 수준 높은 예술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동양미술, 문학,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임"</u>	샌 디에고 박물관
1929	도자기	Korean Pottery from Keiryu San ⁴⁴⁾	<u>동양 도자기의 서양 수집가들은 근 20년 동안 고려시대 고분 출토 도자기에 관심을 가짐. 그러나 조선 도자기는 잘 볼 수 없음.</u>	

42) K. P. S.,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Vol. 15, No. 9.(Nov., 1928), pp182-184, 187

43) *The American Magazine of Art*, Vol. 19, No. 9(SEPTEMBER, 1928), pp. 519-520

44) Lorraine d'O. Warner, *Notes(Fogg Art Museum)*, Vol. 2, No. 4 (Jun., 1929), pp 125-134

시기	장르	제목	주요내용	기관
1929	도자기	Korean Pottery from Keiryu San	<u>한국 남부지역 도자기들이 일본 차도인들에 의해 선호되었고 일본 도자기의 근원은 한국이라고 들었음.</u> 한국 도요지 설명. <u>계류산에 약 8개 고대 가마지가 있음</u> 여기에서 아사카와 부인과 야나기의 친절함 덕분에 중요한 도자기 편들을 대량 수집하고 수 천 편을 조사할 수 있었음. 수백 개 조각편들이 연구 목적으로 포그박물관(Fogg Museum for the study series of Hoyt Collection)으로 왔으며 이 컬렉션은 우리가 직접 두엄더미에서 수집한 것과 농부들이 약간의 돈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져온 것들임. 전체 구릉 중턱이 도자기 파편으로 덮여져 있음 - 계류산 요지의 역사적, 외형적 특수성과 당 요지에서 생산된 도자기 특징 설명 <u>16세기 일본인들은 차도용으로 계류산 도자기들을 들여왔다. 일본인들은 디자인을 그대로 모조했으며 또한 우리는 일본 Satsumu, Seto 그리고 십여 개의 다른 요지가 계류산 요지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을 발견함. 더 깊이 있는 연구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것이며 조선 도자기에 대한 광범위한 출판에 흥미를 가지고 기다릴 것임. 현재 Lessrs. Yanagi and Asakawaa가 우리에게 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음</u>	
1930	Korean Art	The Art Centers of Korea ⁴⁵⁾	<u>미국과 유럽 내 거의 모든 공공 박물관들이 한국 섹션을 가지고 있음. 그 중 가장 최고는 캠브리지의 포그박물관과 켈런의 동양예술박물관임. 또한 교토박물관 대학 방문객들도 한국 예술적 발전상을 볼 수 있음</u>	

45) Alfred Salmony and David E. Berenberg, *Parnassus*, Vol. 2, No. 6 (Oct., 1930), pp. 32-34

시기	장르	제목	주요내용	기관
			조선총독부의 유물보호령 아래 일본의 뛰어난 고고학자들이 발굴 및 내용을 편찬하여 한국 고고학적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고분 도굴꾼에 의한 그리고 우연히 발견된 유물들은 결국은 조선 내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 감 금관총(Grave of the Gold Crown) 발굴 및 발굴유물 소개 ,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석굴암 등 경주 유적지, 대구 유적지 소개. 발굴성과를 통해서 조선미술 및 문화의 아시아 각국과의 상호 영향 소개. “전체적으로 한국미술은 동아시아 미술의 부속 그 이상임. 그 자체로 뛰어난 예술이며 그 업적은 위대함”	
1935	칠기와 은제	A Han Lacquer Dish and a Koryo Silver Ewer from Korea ⁴⁶⁾	시간이 갈수록 한국미술은 극동아시아 미술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음 한국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과 한국유물연구 단체(Society for the Study Korean Antiquities)의 왕성한 연구 활동 덕분에 한국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음 한 예로, 평양과 경주 고대 고분에서 뛰어난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으며 이 발굴들은 한국의 찬란한 과거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문화사 지식 획득에 도움이 됨 -중국의 한국 미술 영향 서술 최근 야마나카(Mr. S. Yamanaka)가 보스턴박물관에 큰 칠기접시를 기증함. 아쉽게도 출토 무덤에 대한 정보가 없음 아마도 1924년 귀중한 보물("valuable finds") 발견에 극성이었던 해주(Heijo)에서 출토되어 여러 해 개인 컬렉터가 보유한 것으로 여겨짐 접시 내 명문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칠기 역사의 귀중한 자료임	보스턴 박물관

46) Kojiro Tomita,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3, No. 199(Oct., 1935), pp.64-69

시기	장르	제목	주요내용	기관
1941	도자기	A Korean Water-pot of the Koryo Period ⁴⁷⁾	보스톤 박물관내 기존 뛰어난 고려청자 컬렉션은 최근 또 다른 훌륭한 도자기 획득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 지리적 관계로 한국의 예술과 종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음 -도자기 장식물(거북이)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해석, 점토 성격 규명, 중국 문헌에 나타난 고려청자 내용 소개. Hsu Ching 이 말하길 "고려인들은 푸른 유약(celedon)을 물총색(kingfisher color)이라 부른다. 최근에 고려청자들은 우수한 경지(excellent state)에 이르렀다" 이번 도자기들은 훌륭한 시기의 주목할만한 작품들이므로 보스톤 박물관은 이들을 획득하게 되어 큰 행운임.	보스톤 박물관
1941	금속	Korean Silver-Work of the Koryo Period ⁴⁸⁾	고려시대 미술은 도자기로 잘 알려져 있음. 그러나 또 주목할 공예품으로는 은세공품으로 이 또한 고려시대 대표 미술품임. 그 동안 미술시장에서 뛰어난 은세공품을 찾아볼 수 없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함. 그러나 최근 들어 보스톤 박물관은 뛰어난 컬러티의 고려 은제품 2점을 추가 함 1.Silver-gilt Plaque(Bigelow Collection), "Dragon and the ball"의 용문 상징적 의미 설명, 여의주의 전설 설명, 음양소개 2.Silver Reliquary(Weld Collection), 기형, 장식, 용도, 고려불교 소개	보스톤 박물관
1948	청양사 清凉寺	A Little-Known Temple in South Korea and Its Treasures: A Preliminary Reconnaissance ⁴⁹⁾	“비록 현재 청양사에 대한 역사적 정보가 없으나 한국 역사나 고대불교와 사원에 관한 몇 권이 책이 있는 것 같음. 이 잊혀진 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다른 기관들도 같이 정보를 구하는데 함께해 주기를 바람.	

47) David B. Little,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9, No. 232(Apr., 1941), pp. 18-19

48) Kojiro Tomita,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9, No. 231 (Feb., 1941), pp. 2-7

49) Helen B. Chapin, *Artibus Asiae*, Vol 11, No. 3 (1948), pp. 189-195

시기	장르	제목	주요내용	기관
			<u>-청양사, 불상, 석등 소개</u> <u>-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 불국사, 해인사,</u> <u>팔만대장경, 석탑, 석등 등 소개</u>	

위에서 보듯 1910년대부터 보스턴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클리블랜드박물관 등 미국 주요 박물관들이 한국문화재의 심미적, 경제적 가치를 인식, 도자기에서 그림, 칠기, 금속 등 적극적으로 수집, 전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박물관내 한국 컬렉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대학 내에도 한국미술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박물관들은 초기에는 도자기에 집중하였으며 차츰 칠제, 칠기, 그림, 불교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들을 수집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40년대까지 여전히 도자가 주를 이루며 이들 도자기들은 대부분 도굴꾼들에 의해서 일본인이나 미국 등 외국 수집가들에 헐값에 팔린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 Alfred Salmony가 *Parnassus*에서 “고분 도굴꾼에 의해 그리고 우연히 발견된 유물들은 결국은 조선 내 일본인들의 손에 들어간다.”고 말하였듯 이는 당시 한국의 유물들이 일본인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불법 매매되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계룡산 발굴요지에서 보듯 미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한국 유물들이 직접 수집되기도 하고 미국 일반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도자기 등 한국미술품들을 적극 수집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당시 미국 미술사학자나 전문가들은 한국 미술이 일본 미술에 비해 훨씬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일본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에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미국에서의 한국 문화재 수집역사나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브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부 주도 미술 전시회: 1893년 시카고 박람회, 1950년대 “*Masterpieces from Korean Art*”와 1970년대 “*5,000 Years of Korean Art*”

가. 1893년 시카고 박람회와 조선

1851년 런던 수정궁 박람회(London's Crystal Palace Exhibition)를 시작으로 19세기 중엽 이후 유럽과 미국이 개최한 세계 만국 박람회는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더불어 국가브랜드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서구 선진국들은 박람회에서 자국의 전통문화와 더불어 예술, 교육, 기술·과학, 군사력, 경제력을 과시하며 제국주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동양의 제국주의 국가, 일본은 이러한 박람회의 성격을 일찌감치 파악, 왕실과 더불어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박람회에서 새롭고 강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다. 즉, 박람회에서 일본은 세련되고 섬세한 전통문화와 더불어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화와 근대화 면모를 보여주며 세계로부터 아시아의 “당연한 맹주”로 인정받았다. 이를 지켜본 중국도 정치적, 외교적 목적에서 1876년 필라델피아 박람회와 1904년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 참석을 하였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은 일본과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다. 조선도 늦었지만 마침내 세계무대에 진출할 결심을 하고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참석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최초 만국박람회 참석 의의 및 평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 조선의 시카고 박람회 참석 배경

1876년 일본과 불평등 통상조약을 맺은 후 조선 내 일본의 간섭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882년 임오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을 거치는 동안 조선은 청과 일본의 본격적인 파워 게임 각축장이 되었다. 1885년 위안스카이가 청을 대표하여 조선에 도착한 이후 조선을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었으며 미국 공사 허드(Augustine Heard)는 조선을 떠나기 직전 한국 정세에 대해 “불만이 만연하고 있으며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조짐이 있다.”라고 말하여 장차 청일전쟁(1894), 명성황후 시해사건(1895), 아관파천(1896) 등을 예고하였다. 청, 일본과 더불어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수탈에서 조선의 국권은 위태롭기만 하였다. 당시 조선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고종이 1893년 시카고 박람회(Chicago's World's Columbian Exposition)에 참석을 결정하게 된 근

본적 동기는 정치적, 외교적 목적에 있었다. 즉, 고종은 미국이 일본과 청의 정치적 간섭에서 한국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여기에는 당시 고종은 알렌이 시카고 박람회의 명예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알고 알렌이 박람회에서 조선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것을 생각하였다.

□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 참석 현황 및 반응

고종의 갑작스런 참석 결정으로 조선정부는 출품사무대원 정경원, 행정요원 최문현, 통역사 안기현과 음악단 10명으로 총 13명의 소수 파견단을 구성하였다. 조선 대표단이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도착했을 때 미국은 이들에 대한 첫인상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기이한 실크 가운을 입은 한국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착하였다. 그들은 이상한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기묘한 모양이었다.” 이 후 미국을 떠날 때까지 한국인들은 줄곧 이국적인 모습으로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한국은 제조공예 전시를 하였는데 총 \$506 경제적 가치, 25톤 상당의 물품, 81m²의 전시장으로 가장 작은 전시장 중 하나였다. 이는 일본이 63만 달러를 할당하여 1,750톤 상당의 전시물품을 제조공(Manufactures), 교양공(Liberal Arts), 미술공(Fine Arts), 농업공(Agriculture), 원예공(Horticulture), 수산업공(Fisheries), 광업공(Mines) 등 총 54,000평방 전시공간에 전시하여⁵⁰⁾ 전통적 예술과 근대화, 산업화 면모를 충분히 보여준 일본과 비교할 때 초라하기만 하였다.

조선 전시품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적이었는바, 그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 물품을 아주 저급하게 취급하였다. “박람회에는 제조 산업이 아직 초창기 단계 국가들의 조야한 물품들이 있는데 이들 나라로는 잔지바(Zanzibar), 오렌지 프리 스테이트(The Orange Free States), 마다가스카(Madagascar), 조선(Korea) 그리고 시암(Siam)”을 들 수 있다.⁵¹⁾ 박람회측이 출판한 책에서는 조선 전시품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민족의 호기심 가득한 상품 전시는 대다수 농산물과 면, 실크, 마, 가죽,

50) 조은영, 『미국 박람회에서 일본-일본신화 만들기와 문화정책』 「미술사 학보」 18(2002.9): p 16

51) Daniel Kane, "Korea in the White City: Korean Participation in the World's Columbian Exhibition of 1893", p.26.

종이, 의복, 가구 등이다.....가장 흥미로운 물건은 마, 실크를 혼합하여 만든 이상한 보자기로 대체로 품질이 좋지 않다.”⁵²⁾ 라고 언급하였다. 조선관 전시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윤치호가 적은 일기에서도 나타난다. “오전 11시에 조선 전시관에 가서 오후 다섯 시 까지 머물렀다!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요? 거기를 떠날 수 없었다. 비참한 조선 전시장. 일본인은 자랑스러워할 수 밖에.”라며 조선관의 초라함과 조선 국력의 미약함을 슬퍼했다. 당시 기술적, 산업적으로 훨씬 앞선 미국과 유럽의 시각에서 볼 때 조선의 첫 만국박람회 전시는 규모면에서, 내용면에서 한창 뒤떨어진 수준이었다.

조선 전시관에 큰 관심을 가진 미국인으로서는 그리피스로(Willian F. Griffis, 1843-1928)로 그는 1870년부터 3년간 일본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쳤으며 당시 극동전문가였다. 그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1882년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을 출판하여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의 주요 참고서가 되었다. 조선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뉴욕 주에서 시카고 박람회 조선관을 방문한 그리피스는 정경원에게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였고 또한 조선이 주자학이라는 학문에 치중하고 군비에 소홀함으로써 국세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⁵³⁾ 시카고 박람회 2년 후 그리피스는 *American Geographic Society*에서 “*Korea and the Koreans: In the Mirror of Their Language and History*”를 발표하여 학계와 일반인들의 조선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었다.

마지막으로 박람회 종료 후 조선으로 귀국하기 전 정경원과 대표단이 주최한 고종 생신 기념 만찬에서 정경원이 제의한 건배사에서 박람회 참석의 자체평가 및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미국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전에 은둔의 나라로 알려진 조선이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폐하께서는 미국 대통령의 박람회 초청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조선의 초라하고 적은 물품들이 제조공예 전시되었습니다. 조선전시관은 세계 각국의 전시관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 훌륭한 박람회의 한 부분이 된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52) Daniel Kane, "Korea in the White City: Korean Participation in the World's Columbian Exhibition of 1893", p.29.

53) 육영수, '은자(隱者)의 나라' 조선 사대부의 미국문명 건문록 -출품사무대원 정경원과 1893년 시카고 콜롬비아 세계박람회,

니다. 이 이로운 점들을 조선 백성들에게 소개할 것이며 미국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⁵⁴⁾ 라며 박람회의 교훈과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유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시카고 박람회에서 세련된 전통미술과 교육, 군사, 사회, 과학의 근대화된 면모를 다시 한 번 세계에 각인시킨 것과 달리 조선은 소규모의 대표단과 전시품으로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시카고 박람회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 조선의 독립적 정체성 추구하고 개방 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즉, 조선의 첫 세계 만국박람회 참석은 정치적, 외교적 목적으로 그 소임을 다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후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과 식민지를 거치면서 세계와 만날 기회를 박탈당하고 광복 이후에서야 한국미술과 문화를 알릴 수 있었다. 한국은 1950년대 냉전시대와 1970년대 탈냉전 시대에 정부 주도의 순회 전시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는 이 두 전시회 현황 및 의의를 고찰하여 오늘 날 미국 내 한국 전통미술 및 문화적 위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나) 정부 주도 한국문화재 순회전시회

나)-1. 한국 미술걸작 전(*Masterpieces of Korean Art*)

□ 전시 개최배경

한국미술 첫 해외전시, 한국미술 걸작 전(*Masterpieces of Korean Art*)은 1957년 1월부터 1959년 6월까지 미국 워싱턴 D.C., 뉴욕, 시애틀, 보스턴, 미니애폴리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등 8개 도시에서 순회전시 되었다. 이 전시회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미국무부와 록펠러 재단 후원으로 미국 대중에게 한국, 일본, 중국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개최된 3개의 극동아시아 미술전시회 중 하나였다.⁵⁵⁾

54) Daniel Kane, "Korea in the White City: Korean Participation in the World's Columbian Exhibition of 1893", p.35.

55) Nancy Lin, 5,000 Years of Korean Art, Journal of the History of Collections vol. 28 n0. 3 (2016) p388

1953년 휴전이 되었을 무렵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가열되었고 우리 문화제는 1893년 시카고 박람회 이후 다시 한 번 정치적,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차이점은 시카고 박람회 참석이 조선 정부(고종)의 의지에서 시작하여 전시 물품도 조선 정부에 의해 선별되어 한국 문화와 한국 정체성(Identity)을 소개한 반면 1950년대 말 시도된 첫 한국미술 해외전시는 미국정부의 의사로 미국박물관 큐레이터에 의해 선별, 주도되었다. 당시 배경을 살펴보자면 1953년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에 맞서 한국의 반공산주의, 친미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였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은 국제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국미술 순회전시회 이전에 독일미술 순회전 *"Paintings from the Berlin Museums, 1948"*, 오스트리아 미술전 *"Art Treasures from the Vienna Collections, 1949-1950"* 그리고 일본미술 순회전 *"Treasures from Japan, 1951/Japanese Painting and Sculpture Sponsor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1953"*을 주관하였다. 1940년대 말부터 진행되었던 한국미술 미국 순회전은 전쟁 후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며 이 전시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도는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법린 의원의 국회의원 대상 연설에서 알 수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의 이해도는 아주 낮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수천 년 동안 독립국이라는 것, 독특한 고유문화를 창조했다는 것과 우리말과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광복 후 한국은 오로지 한국 전쟁으로만 세계에 알려져 있고 문화국가로는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동안 일본이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면만 출판하였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가능한 빨리, 우리 문화를 홍보할 이 해외전시를 추진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자유로운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⁵⁶⁾

그의 표현대로 한국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 체결 후 70여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은 미국에게 여전히 미지의 나라, 은둔의 나라, 일본의 식민지, 전쟁, 기아 등의 소극적, 부정적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었다. 이에 한국

56) Sang-hoon Jang, Cultural diplomacy,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museum: South Korea's first overseas exhibition in the US, 1957 TO 1959, Museum & Society, 2016, p459.

정부는 이 순회전시를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인 목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1956년 마침내 미국에서 미국 측 준비위원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큐레이트 프리스트(Alan Priest)와 보스턴박물관 큐레이터 페인(Robert T. Paine, Jr.)이 도착하여 한국 위원들이 선별한 305점의 작품 중 187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미술품들은 금령총, 금관총,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 포함 18점의 금제품, 23점의 금동, 34점의 그림, 10점의 도토기, 102점의 도자기등 기원전 200년에서 1900년대를 아우르는 미술품으로 이들은 중국·일본 미술과 확연히 구별되는 한국미술과 문화를 미국 대중에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 전시현황 및 반응

첫 순회 전시는 *"Masterpieces from Korean Art: An Exhibi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타이틀로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시 및 관람현황은 아래와 같다.⁵⁷⁾

전시기관	전시기간	관람객(명)
워싱턴 국립박물관	1957.12.14.~1958.1.12.	43,843,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1958.2.6.~1958.4.3.	38,840
보스턴 박물관	1958.5.6~1958.6.15.	11,000
시애틀 박물관	1958.7.16.~1958.8.17.	10,536
미니에폴리스박물관	1958.9.19.~1958.10.19.	3,300
California Palace of the Legion of Honour, San Francisco	1958.11.20~1959.1.4.	41,551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박물관	1959.1.27.~1959.3.1.	9,096
호놀룰루 미술관	1959.4.15.~1959.6.7.	9,600
총계		167,731

당시 전시연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바, Lin에 의하면 이 전시는 "심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별, 미디어별

57) Ibid.,p.464

연관성을 무시한 전시연출로 문화적 맥락이 결여된 전시였다. 그 결과 그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 수는 워싱턴 국립박물관 43,939명,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35,097명으로 대단하지 않은 숫자에 머물렀다.⁵⁸⁾

당시 이 전시는 한국의 통합적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였지만 신라금관과 금동반가사유상, 고려청자 등의 한국의 대표적 문화재들로 한국미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1950년대 미국은 동아시아에 친미 반소(반공) 노선을 구축하고자 특히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하였으며 동시에 문화교류에 힘썼다. 한국이나 일본에는 미국의 영화를 수출하여 미국문화를 이해하게 하였으며 미국 대중들에게는 한국과 일본 전통미술을 전시하여 양국 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이 성공하였음은 1953년 The Perry Centennial Celebration⁵⁹⁾ 주최 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다. 1953년 갤럽조사에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일 일본이 공격당한다면 공산주의와 대항할 일본군대가 창설될 수 있도록 미국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63%가 그렇게 하여야한다("should")고 하였으며 18%만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should not")고 응답하였다 그들은 일본이야말로 민주적 평화를 위한 유일한 희망, 극동 아시아에 미국의 견고한 발판, 미국의 충직한 동맹국이 될 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1944년 실시된 갤럽과 비교할 때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이다. 1944년, "전쟁 후 일본이라는 나라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13%는 "일본인을 몰살하여야 한다. "라고 했으며, 33%는 "일본 정치체제가 붕괴되어야 한다. "라고 응하였다.⁶⁰⁾

위 갤럽조사의 반응에서 보듯 문화적 영향력이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1893년 고종이 시카고 박람회에 조선 문화재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한

58) Nancy Lin, 5,000 Years of Korean Art, Journal of the History of Collections vol. 28 no. 3 (2016) p389

59) 1853년 Commodore Matthew C. Perry에 의해 일본 문호 개방 100주년 기념행사로 일본과 미국 동시에 미술전,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여 미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국민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60) The Perry Centennial Celebration: A case Study in U.S.-Japanese Cultural Diplomac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Review, Vol. 80, No. 3/4(2005), p146-147

것과 같이 1950년대 한국 정부도 문화재가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었다.

즉, 한국 정부의 첫 해외전시 "*Masterpieces of Korean Art*"는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 잡으며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한국 고유미를 미국대중에게 처음 알린 가치 있는 전시였으며 20년 후에 있을 한국미술 오천년 전을 더욱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 시험무대였다.

나)-2. 한국미술 오천년 전(*5,000 Years of Korean Art*)

□ 전시배경

1975년 미국 의회는 미술품과 공예품 연방 보장법(Federal Indemnification Act: the Arts and Artifacts Indemnity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전시회 보험 비용을 최소화하여 해외 순회 전시를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People magazine*은 다음과 같이 이 법을 지지하였다. "전시회를 통하여 방문객이 미술품이 만들어진 문화와 이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을 더 잘 이해한다면 이것이 미국의 정치적 목적이다. 이 법의 목적은 관계를 개선하여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의 적대적 여론으로부터 저항을 최소화하여 보다 공식적인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협상을 잘 이끌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예술과 문화 지원 정책은 1970년대 데탕트(Detente)에 기인한다. 1972년 닉슨대통령이 중국과 소련을 방문하면서 데탕트는 절정에 달했으며 헨리 키신저는 중국이 중미 관계 개선과 중국의 광대한 역사와 문화, 문화진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순회전시를 미국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1973년 중국은 미국 순회전시(Exhibition of Archaeological Find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당시 최근 발굴된 유물을 중심으로 385점의 미술품을 보냈으며 미국 국립박물관에서만 684, 238명이 관람하였다.⁶¹⁾

61) Nancy Lin, 5,000Years of Korean Art, Journal of the History of Collection vol. 28. no 3(2016)

이를 지켜본 한국 정부도 정치, 외교적으로 더욱 강한 동맹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입지를 다지고자 또 한 번의 해외 순회 전시회를 기획하였다. 즉, 한국 정부는 당시 유신헌법과 데모 등으로 얼룩진 한국 정치 및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한국 문화의 영속성과 독창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문화 국가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전시현황 및 반응

한국미술 걸작 전(*Masterpieces from Korean Art*) 전시 후 20여년이 지난 1979년 한국은 한국미술 오천년 전(*5,000 Years of Korean*)으로 두 번째 미국 무대에 진출하게 된다. 1979.5.1.~1981.10.30. 2년 5개월 동안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캔자스 시티, 워싱턴 D.C. 8개 도시를 순회하며 약 220만 명이 이 전시를 관람하였다. 1957년 한국고대미술전의 약 2배 규모의 문화재들은 신석기 시대 토기, 청동기, 신라금관, 고려청자, 조선백자에서 20세기 초 그림에 이르기까지 345점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한국 오천 년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대형 전시회였다.

1957년 전시회가 작품 선정에서 전시, 연출기법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큐레이터에 의해 이루어져 미국 관람객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 반면 이번 전시회는 한국인 전문가들에 이루어졌다.⁶²⁾ 그리하여 1957년 전시가 작품의 개별적 “미”에 중점을 두어 문화적 연속성을 표현하지 못한 실수를 감안 신석기 시대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5천년 역사와 문화, 예술의 영속성과 중국과 일본 문화와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전시회는 지도, 고고학적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의 사진과 전시의 상세한 설명 텍스트도 충분히 포함했다.⁶³⁾

샌프란시스코 박물관에서 시작된 이 전시회의 전시 및 관람 현황은 다음과 같다. ⁶⁴⁾

62) 전시를 주도한 전문가는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장 최순우, 학예연구관 정양모,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이었음

63) Nancy Lin, 5,000Years of Korean Art, Journal of the History of Collection vol. 28. no 3(2016)p391

전시기관	전시기간	관람객 수(명)
샌프란시스코 박물관	1979.5.1.~1979.9.30.	547,159
시애틀 박물관	1979.11.1~1980.1.13.	57,874
시카고 박물관	1980.2.16.~1980.4.27.	17,839
클리블랜드 박물관	1980.6.10.~1980.8.10.	44,430
보스턴 박물관	1980.9.16~1980.11.30.	9,195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1981.1.5.~1981.3.15.	157,887
넬슨 앳킨스 박물관	1981.4.17.~1981.6.14.	64,862
워싱턴 D.C.	1981.7.15.~1981.9.30	1,210,000
총계		2,109,246

1957년 전시회 당시 한국은 우리 문화재를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전문가가 없어 전시, 출판, 행사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20년 후 오천년 전시회에는 적극적 주도로 전문가 강연과 심포지엄, 출판 등이 뒤따랐다. 예로, 박물관 설립 초기부터 한국 미술 수집 및 전시에 적극적인 박물관 중 하나인 클리블랜드 박물관에서는 셔먼 리(Sherman Lee) 관장 주도로 동양미술사 입문 코스 개설, 영화, 아시아 미술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으로 전시회 효과를 더하였다. 이 전시회의 평가를 살펴보자면 셔먼 리는 "이번 전시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걸작들과 지금은 익숙한 한국의 민족적 독특함을 재확인하는 해설이 겸비된 굉장한 전시였다"고 호평하였다.⁶⁵⁾ 또한 미술평론가 앨프리드 플랭컨스타인은 전시회 관람 후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문화에 있어서는 '동양의 미국'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큰 나라"라고 평하였으며 저명한 칼럼니스트 허브 코는 "한국미술 5천년 전은 동시에 열리고 있는 이집트의 '투탕카멘' 전보다 훨씬 훌륭하며 종합적"이라고 호평하였다.⁶⁶⁾ 또한 전시회 기간 중의 주요 일간지 기사게재만 1천 27건에 이르렀다.⁶⁷⁾

64) 매일경제, 1981.10.3.,

65) Nancy Lin, 5,000Years of Korean Art, Journal of the History of Collection vol. 28. no 3(2016)p394

66) '한국미술 5천년전' 샌프란시스코 전 폐막', 중앙일보, 1979.10.1. 4면

67) 미국에 실은 '한국의 미', 중앙일보, 1981.10.2. 6면

결론적으로 1979년 5,000년 한국미술전은 미·소 냉전 종식, 데탕트의 산물로 미국과 한국 두 정부가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전시회였다. 한국고대미술전 관람객이 167,731명이었던 반면 5,000년 한국미술전 관람객은 220여 만 명으로 이 전시회가 한국 전통미술 및 문화 확산에 크게 성공하였음을 보여준다. 미국대중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 독창성, 영속성을 보여줌으로 한국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였으며 미술사학자와 학생들의 학문적 동기도 유발할 수 있었다.

세계 각 국은 오래 전부터 자국의 문화재를 정치, 외교적으로 활용하였고 지금도 활용중이다. 문화재는 연방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한 편으로는 적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할 때 최우선적으로 이용 되었다. 문화재는 그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내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문화재를 대하는 관람객들은 문화재를 그 국민 자체로 인식하여 상호 이해와 우호가 증가, 지속될 수 있다. 본인의 훈련기관인 클리블랜드 박물관에서는 지난 2016년 한국,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개최된 '조선 궁중화·민화 걸작-문자도·책거리' 전시가 뉴욕과 켄자스 시티에 이어 마지막 베뉴(Venue)로 전시되었다. 클리블랜드 전시회(책거리: 소유의 즐거움, *Chaekgeori: Pleasure of Possessions*)는 한국의 수묵화에만 익숙한 미국 대중에게 채색화를 소개하며 학자들과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선사하고 있다. 저명한 미술 평론가 Steve Litt의 호핑과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특집 기사 하에 한국 전통미술이 크게 홍보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였다. 책거리 전시회는 단지 전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술 학자, 학생, 큐레이터, 일반인 등이 참석한 심포지엄 개최, K-pop 개최, 갤러리 토크, 도슨트 토크, 기부자 모임 토크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한국미술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전시회는 상설전시회와 달리 단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계층으로부터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중국미술이나 일본미술과 달리 미술품의 질적, 양적 빈곤을 겪고 있는 한국 미술의 효과적 해외 활용을 위해서는 작품 대여나 순회 전시회를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 문화재의 미국으로의 초기 유입과정과 수집, 전시, 활용 면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일본문화재가 18세기 말, 19세기 초 유입되어 20세기 초, 이미 공고한 지위를 확보한 반면 한국 문화재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선교사, 외교관, 고고학자, 의사, 상인들에 의해 수집, 박물관에 기증되면서 소규모의 한국컬렉션이 형성되었다. 미국 대중은 19세기 말, 미국 국립박물관과 시카고 박람회 에서 민족지학적 시각으로 한국문화재를 처음 접한 이후 20세기 초 프리어 갤러리,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시카고박물관, 보스턴박물관, 클리블랜드박물관 등 유수 박물관들에서 차츰 더 자주 만나며 중국과 일본 미술과 함께 한국미술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한국 전쟁 후 두 번의 정부 주도 해외 순회전시로 미국 대중은 오천년 한국 역사와 문화의 고유함, 독특함, 수려함을 이해,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그 때의 훌륭한 전시를 기억하는 미국인은 많지 않으며 특히 지금 세대들은 한국 문화를 K-pop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문화재 해외 활용에 비해 약 100년이 뒤쳐진 한국으로서는 한국 전통미술 및 문화 확산에 보다 적극적 방안이 요구된다.

IV. 미국 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현황

다음은 미국 내 한국미술품 소장 박물관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 문화재의 과거, 현재 및 미래 활용 현황을 이해하며 이들 박물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 지원과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첫째, 미국 박물관 내 극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대상) 갤러리 규모, 소장 작품 수, 전시 및 출판, 보존처리, 구매 등 작품 확장 노력, 외부로부터의 후원 등 비교조사로 극동아시아 미술 내 한국 미술의 현 주소를 이해하고, 둘째,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가 있는 박물관과 없는 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현황 비교조사로 담당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마지막으로 미국 대학 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제 1군은 한·중·일 갤러리가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으로 동부 지역의 브룩클린 박물관, 서부 지역의 포틀랜드 박물관, 샌디에고 박물관, 넬슨 앳킨스 박물관(3곳), 중부 시카고 박물관, 디트로이트 박물관(2곳), 남부 버밍햄 박물관, 호놀룰루 박물관(2) 총 8개 박물관이 설문에 응해 주었다.

제 2군은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가 있는 5개 박물관중 동부 필라델피아 박물관, 서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중부 클리블랜드 박물관 등 총 3개 박물관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제 3군은 대학 박물관으로 동부의 6개 박물관- 프린스턴 대학, 코넬 대학, 시라큐스 대학, 스미스 칼리지, 로드 아일랜드 스쿨 디자인 대학, 버지니아 대학 박물관과 서부의 스펜스 박물관, 중부의 미시건 대학, 오벌린 대학 박물관, 남부의 플로리다 대학교 박물관 등 10개 박물관을 조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박물관은 총 21개 박물관으로 이들 박물관들은 아시아 한·중·일 미술 컬렉션이 강한 박물관이며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여 설문 목적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기관들이다.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들 박물관의 한국 미술품 수집 과정, 소장 현황, 전시 및 출판현황, 보존 현황, 기금 현황, 향후 계획을 살펴봄으로 극동아시아 미술 내 한국 미술의 위치를 알아보겠다.

1. 극동아시아 갤러리 내 한국문화재 활용 현황

1) 브룩클린 박물관(Brooklyn Museum)

브룩클린 박물관은 1823년 설립, 1903년 극동아시아 갤러리가 오픈되었다. 한국컬렉션은 1909년 일본에서 획득한 고고 철제편들로 시작되었으며 1977년, 외부 지원 없이 박물관 자체 기금으로 한국전시관을 확보하였다. 2017년 7월 현재 한·중·일 갤러리 규모와 소장품은 아래와

같다.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600sq (33.3)%	650(36.1%)sq	550(30.6%)sq	1,800sq
소장미술품	700점(6%)	4,000점(34%)	7,000점(60%)	11,700점
현대미술품	10점 (3.8%)	50점(19.2%)	200점(77%)	260점

극동아시아 미술품 중 한국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로 일본 미술품 60%, 중국 미술품 34%에 비해 미미하며 현대 미술품 비중도 일본이 77%로 압도적으로 높다. 소장품 규모에 비해 한국갤러리 공간은 33%를 차지하여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큐레이터(Joan Cummins)는 남아시아 미술 전문가이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현황으로 전통, 현대 일본 미술품 획득이 각각 40점, 195점으로 가장 많으며 특히 이들 대부분은 기증이었다. 중국은 전통미술 17점과 현대미술 30점을 구매 또는 기증 받았다. 한국 전통미술은 22점의 기증과 구매 1점으로 23점을 획득하여 전통미술 확장에 큰 성과를 보였으나 현대미술은 1건도 획득하지 못하였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유증(Bequest)	계
한국미술품	전통	1	22	-	23
	현대	-	-	-	0
중국미술품	전통	2	15	-	17
	현대	5	25	-	30
일본미술품	전통	-	40	-	40
	현대	5	190		195

o 특별전, 출판

최근 5년 동안 극동 아시아 미술 부문에서 개최된 특별전은 2014년 현대 설치전(Ai Weiwei: According to What?)이 유일하며 출판물로는 박물관 매거진, *Orientation*에 한국 컬렉션 기사(2017년)와 일본 컬렉션 기사(2014년)을 게재하였다. 이는 남아시아 미술 전문가가 광범위한 극동아시아 미술품을 출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o 보존처리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는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 된 한국 미술품은 2012~2013년 국립문화재연구소 펀드 지원으로 4점의 활옷과 4점의 갑옷이 보존처리 되었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한국미술은 2012년과 2013년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보존처리기금을 지원받았으며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는 2014년~2016년 동안 한국 실 재개관 펀드를 지원 받았다. 중국과 일본미술 지원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2017년 9월 한국미술관 재개관으로 단색화 연중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미술품이 상당히 많은 편(700여점)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한국미술 특별전이나 출판, 프로그램 운영, 보존처리 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2) 포트랜드 박물관(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 박물관은 1893년 설립, 1936년 질이 낮은 차 대접(Tea Bowl) 이 한국 첫 소장품이었으며 이 대접은 결국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라 De-accession되었다. 1970년 중반 극동아시아 전문 갤러리 설립 이후 1997년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비용 20%를 지원 하여 한국미술 독립 갤러리가 마련되었다. 2017년 7월 현재 갤러리 규모와 소장품은 아래와 같다.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74 ㎡(10.1%)	455㎡(62.2%)	202㎡(27.7%)	731 ㎡
소장미술품	145점(2.4%)	919점(15.6%)	4,860(82%)	5,924점
현대미술품	39점(2.5%)	9점(0.5)	1,510점(97%)	1,558점

극동아시아 미술품 중 한국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중국 미술품과 일본미술품 중 Study collection objects가 제외된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양적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현대미술품 비중 역시 일본

이 97%로 압도적이며 한국미술은 2.5%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포트랜드 박물관은 일본 미술이 주류인 박물관으로 큐레이터 (Maribeth Graybill) 역시 일본 미술 전공자로 대학에서 일본미술 후학을 양성했으며 박물관에서도 일본미술 전문가로 역량을 펼치고 있다. 또한 포트랜드 박물관 옆에는 일본 전통 찻집이 있어 일본도자기와 그림, 도서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대학생들의 예술, 문화, 학문 교류의 장 역할을 하며 일본 문화 홍보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현황으로 전통, 현대 모두 일본 미술품 획득이 각각 120점, 149점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 미술품은 8점과 7점으로 중국의 49점과 23점과 비교해도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이는 큐레이터가 학부 시절부터 축적한 일본미술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구매나 기부의 접점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은 구매보다 기증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유증(Bequest)	계
한국미술품	전통	2	6	-	8
	현대	1	6	-	7
중국미술품	전통	3	46	-	49
	현대	1	22	-	23
일본미술품	전통	52	68	-	120
	현대	36	113		149

o 특별전, 출판

최근 5년 동안 극동 아시아 미술 부문에서 개최된 특별전은 2014년과 2017년 한중일 공동 컬렉션 3건과 한국 미술로는 2017년 마틸리 컬렉션 중 송광사 오불도 반환 관련, *Five Buddhas: A Korean Icon's Journey through Time*(2016년), *Masterworks from the Mattielli Collection of Korean Art*(2017년) 2건을 개최하였다. 중국 미술은 2016년 *Woodblock Prints*를 개최하였으며 일본미술은 2012년 1건, 2013년 3건, 2015년 3건과 2016년 1건으로 총 8건을 전시하며 프린트, 복식, 장신구, 무구류, 그림, 칠기, 도자기, 목제, 상아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

다. 전시회 또한 큐레이터의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판 부문에서는 한중일 공동 출판 1건, 한국미술 2건, 중국미술 1건, 일본미술 5건으로 파악되며 한국미술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결과물 *"Korean Art Collections in the Portland Art Museum, Portland, Oregon"* 과 오블도 반환 관련 브로슈어 *Five Buddhas: A Korean's Icon's Journey through Time* 가 출판되었다. 현실적으로 미술이나 문화재 용어에 민감한 박물관이나 학계에서 한국 문화나 미술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는 일본미술 전문 큐레이터가 한국문화재에 대한 전문서적이나 도록을 출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o 보존처리

아시아 미술품이 강한 포틀랜드 박물관도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 된 한국 미술품은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 펀드 지원으로 8폭 병풍화(평양도)가 보존처리 되었으며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 지원으로 2건의 조선시대 자수 병풍이 보존처리 중에 있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한국미술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한국그림 및 도자기 조사(2015-2016년)와 보존처리(2017)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미술은 2012년 일본국제교류재단(Japan Foundation)으로부터 전시 지원, 2015년 예술가 강연을 받았다. 또한 2016년에는 일본전시관 리모델링 기금, 2017년에는 인력확충으로 일본미술 어시스턴트 큐레이터(Assistant Curator) 포지션 기금을 받았다. 일본정부가 일본미술 확산을 위하여 갤러리 공간 뿐만 아니라 일본미술 큐레이터 자리까지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 보존처리: 7개 미술품
- 전시회: 송광사 공동 불교전시회, 고려대박물관 공동 전시회, 미국

개인컬렉션의 무속적 가면 및 그림 전시회

- 한국실 확장 및 리모델링
- 강연, 공예전시, 무형문화재 공연 등

3) 샌디에고 박물관(San Diego Museum of Art)

샌디에고 박물관은 1926년 설립되었으며 극동아시아 전문 갤러리는 다소 늦은 1975년 마련되었다. 1928년 고려청자 등 도자기가 한국미술 첫 소장품이었으며 한국전시관은 박물관 자체 기금으로 2012년 만들어졌다. 큐레이트는 Diana Y. Chou로 그녀의 전문분야는 중국 그림이다. 2017년 7월 현재 극동아시아 갤러리 규모와 소장품은 아래와 같다.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34 m ² (11.2%)	188m ² (62.1%)	81 m ² (26.7%)	303m ²
소장미술품	150점(3%)	2,400(47.5%)	2,500(49.5%)	5,050점
현대미술품	-	10점(16.6%)	50점(83.4%)	60점

극동아시아 미술품 중 한국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이며 중국 미술품과 일본미술품은 각각 47.5%와 49.5%로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현대 미술품은 없으며 다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일본 갤러리는 현대 미술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 현황으로 한국 전통 미술품이 30점 기증 되었는데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본 미술품은 전통미술품 36점, 현대미술품 6점으로 가장 많이 획득 하였으며 중국 미술품은 각각 2점씩 기증 받았다. 5년 동안 구매는 없었는바 이는 작품 구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기증(Donation)	계
한국미술품	전통	-	-	30	30
	현대	-	-	-	0
중국미술품	전통	-	-	2	2
	현대		2	-	2
일본미술품	전통		6	30	36
	현대		6		6

o 특별전, 출판

최근 5년 동안 극동 아시아 미술 부문에서 개최된 특별전은 일본이 2건으로(*Dyeing Elegance, Modern Japan*) 현대 Textile과 Prints를 전시하였다. 중국 미술은 *Brush and Ink*로 중국 전통미술전을 개최하였다. 한국미술 특별전 개최는 없었다. 특별전은 상설전과는 달리 개최 국가의 또 다른 문화와 미술을 보여줌으로 관람객의 관심과 학자와 학생들의 연구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근 6년 동안 한국미술 특별전이 한 번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문화재 활용이 저조함을 보여준다.

출판 부문에서도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바 한국미술에 대한 출판물은 1건도 없다. 이에 비해 일본 미술은 *Modern Japann : Prints from the Taisho Era(1912-1926) and Beyond*를 출판하여 일본 근현대 미술을 알렸고 중국미술은 2015년~2017년 3년 동안 중국미술가와 작품에 대한 북 리뷰(Book Review)와 논문(Paper on 13th century painter Ren Renfa and his bird and flower painting)을 출판하여 중국미술의 전문성을 더하였다.

o 보존처리

극동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는 없으며 또한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한 한국미술품은 없다. 보존처리는 대부분 상설전시회 작품교체나 특별전, 출판 과정에서 작품 상태가 점검되어 보존처리로 이루어진다. 전시나 출판이 원활하지 않은 박물관에서 한국미술 보존 상태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먼저 조사를 제의하여 작품 전수조사와 보존 상태를 점검하여 한국미술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최근 5년 동안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후원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한국문화재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는 박물관 소장 컬렉션 하이

라이트(Collection Highlights) 출판, 병풍화 보존처리, 복식 전시와 전통무용 및 음악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전시, 출판, 보존처리, 무형문화재 공연 등 한국문화재의 바람직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장품 부족에 따른 전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국미술(전통&현대미술) 장기 대여를 희망하였다. 대부분 박물관이 한 작품 전시 후 미디어에 따라 3~ 5년의 휴식 기간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품이 적은 한국미술관은 상설전시회조차 고민이 아닐 수 없다.

4) 넬슨애킨스 박물관(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캔자스 시티 넬슨애킨스 박물관은 아시아 전문 박물관들이 19세기말에 설립된 것과 달리 다소 늦은 1933년 대공황 무렵 설립되었지만 당시 설립자의 높은 현금 보유와 미술시장의 가격 저하로 보물급 문화재들을 대량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런 특수성으로 극동아시아 전문 갤러리는 당연 박물관 설립과 동시에 1933년에 오픈하였다. 큐레이터(Ling-en Lu)는 중국미술 전문가이다. 중국갤러리는 미술품 장르에 따라 여러 개의 갤러리가 있으며 일본 갤러리도 상당히 넓은 공간에 2개의 갤러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독립된 공간 없이 전시장 몇 개가 전부이다. 극동아시아 미술을 대표하는 이 박물관에서 한국 소장품과 갤러리 그리고 전시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진열장 (Show Case)	여러 개의 독립갤러리 (Several Galleries)	2개 갤러리 (Two Galleries)	
소장미술품	70점(0.7%)	8,000점(79.5%)	2,000점(19.8%)	10,070점
현대미술품	8점(9.1%)	16점(18.4%)	63점(72.5%)	87점

극동아시아 미술품 중 한국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7%, 중국 미술품 79.5%, 일본 미술품 19.8%로 한국미술품 비중이 아주 낮다. 한국 갤러리 위상이 치명적인 것은 0.7%라는 수치가 아니라 극동미술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전시의 규모로만 한국미술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중국 전시실은 중국의 위용을 제대

로 보여주며 찬탄을 자아내며 일본 미술은 중국미술에 비해 수적으로는 적지만 컬러티가 대단하여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관람객과 전문가들의 미적, 학구적 열망을 충분히 충족시킨다. 큐레이터가 다루어야 할 중국, 일본 미술품은 10,000여점이며 한국미술품은 70여점이다. 설사 한국미술에 대한 애정이 있다 할지라도 물리적, 시간적으로 한국 미술품을 둘러볼 시간은 거의 없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 현황으로 전통, 현대 모두 일본 미술품 획득이 각각 21점, 26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중국 미술품으로 각각 21점과 6점을 획득하였다. 한국 미술품은 각각 4점이며 이 중 50%가 박물관에 의해 구매된 것으로 이는 박물관의 한국미술 확장 의지를 보여준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유증(Bequest)	계
한국미술품	전통	2	2	-	4
	현대	2	2	-	4
중국미술품	전통	1	20	-	21
	현대	-	6	-	6
일본미술품	전통	1	20	-	21
	현대	10	16		26

o 특별전, 출판

소장품 규모는 특별전과 출판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최근 5년 동안 극동 아시아 미술 부문에서 개최된 특별전은 한중일 공동 컬렉션 2건과 중국 미술로는 2013, 2014년 중 개최된 *Secret Messages: Symbolic Meaning in Chinese Art*(그림)와 2014년 *Living with the Spirits: Decorating Homes in Traditional China(Woodblock prints)*로 각각 6개월씩 전시되었다. 일본 미술은 2014년 *Splendors of Japanese*전을 1년 동안 전시하였으며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Traditions of Japanese Art*가 전시 중에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미술에 대한 전시는 없으며 결론적으로 이 박물관 극동미술 분야에서 한국미술 활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출판물로는 한중일 공동 도자기에 관한 출판 1건과 중국 미술품 출

판이 여러 건 있었으며 한국, 일본 미술에 관한 독자적 출판은 없었다. 이는 큐레이터의 전문이 중국미술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o 보존처리

극동 아시아 미술 전문 박물관으로 아시아 전문 보존처리가가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 된 한국 미술품은 한 점도 없다. 이는 중국, 일본, 한국 미술 보존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미술이나 일본미술 보존처리 전문가일 경우 한국미술은 보존처리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는 게 현실이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최근 5년 동안 한국미술과 중국 미술에 대한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일본 미술은 수미토모 재단(Sumitomo Foundation)이 일본 그림 보존 처리 기금을 지원하였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큐레이터가 제시한 한국미술 활성화 5년 계획으로는 개인 및 공공컬렉션으로부터 작품들을 대여 받아 상설전시회에 보다 많은 한국작품들을 전시하며 비록 소규모이지만 특별전도 고려중에 있다. 또한 박물관 여러 부서에서 한국 현대미술 구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으며 보존처리, 출판, 강연, 이벤트 개최에 필요한 기금 확보 노력도 언급하였다.

5) 시카고 박물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시카고 박물관은 유서 깊은 미국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1879년 설립되었으며 극동아시아 갤러리도 같은 해 오픈하였다. 첫 한국문화제는 1895년, 은 상감 철제 박스였다. 큐레이터(Janice Katz)는 일본미술 전문가이며 2017년 7월 현재 한중일 갤러리 규모와 소장품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59㎡(4.9%)	546㎡(44.9%) (독립갤러리)	610㎡(50.2%) (독립갤러리)	1,215㎡ (50.2%)
소장미술품	283점(1.2%)	6,427(27.8%)	16,404(71%)	23,114점
현대미술품	53점(2.4%)	180점(8%)	2,000점(89.6%)	2,233점

중국, 일본전시관은 독립 전시공간으로 각각 165평과 185평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 전시공간은 18평 남짓한 규모로 복도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미술 소장품은 283점으로 타 박물관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 미술품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한국전시관 운영은 미미한 편이다.

극동아시아 미술품 중 한국미술품 비중은 1.27%, 일본 미술품은 16,000여점, 71%, 중국 미술품은 27.8%를 차지하나 소장품은 약 6,500점에 이른다. 미국 최상급 박물관답게 소장 현대미술품도 상당하다. 일본 현대미술품은 2,000점에 이르며 중국 또한 18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 미술품도 53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현황으로 전통, 현대 모두 일본 미술품 획득이 각각 81점, 229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중국 미술품으로 각각 120점과 6점을 획득하였다. 한국 미술품은 각각 15점, 4점을 수집하여 갈수록 차이가 심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미술은 현대 미술품 176점 기증과 더불어 56점을 구매하였다. 이는 당연 일본미술 베테랑 큐레이터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유증(Bequest)	계
한국미술품	전통	-	15	-	15
	현대	2	2	-	4
중국미술품	전통	11	105	4	120
	현대	-	6	-	6
일본미술품	전통	8	72	1	81
	현대	56	176	-	229

o 특별전, 출판

한중일 상설전시회 로테이션과 최근 획득한 미술품 소개 전시회로 최근 5년 동안 특별 전시회는 없었으나 2018년 2건의 특별전시회 (중국 청동기, 일본 Ukiyo-e painting)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한중일 미술에 대한 출판은 없으며 2018년 일본, 중국 미술 특별전 카달로그 출판 기획 중에 있다.

o 보존처리

1명의 아시아 전문 보존처리가 있으며 전문 분야는 지류(Paper)이다.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 된 한국 미술품은 한 점도 없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최근 5년 동안 일본미술과 중국 미술에 대한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한국 미술은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조선시대 불화 보존처리 기금을 확정 받았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향후 5년간 한국미술 활용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으며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존처리가 유일하다. 이는 세계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미국 3대 박물관인 당 박물관에서 한국미술의 초라한 전시공간과 한국미술에 대한 뚜렷한 목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전시 실태는 124년 전 시카고 박람회에 전시된 한국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아 보인다.

6) 디트로이트 박물관(Detroit Institute of Arts)

디트로이트 박물관은 1885년 설립, 1890년 몇 점의 도자기가 첫 한국 컬렉션이었다. 1927년 극동 아시아 전문 갤러리를 오픈 하였으며 큐레이터(Katherine Kasdorf)는 남아시아 미술 전문가이다. 2017년 7월 현재 갤러리 규모와 소장품은 아래와 같다.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600sq.ft(18%)	1,400sq.ft(42.4%)	1,300sq.ft(39.4%)	3,300sq.ft
소장미술품	196점(4.3%)	1,568점(34.1%)	2,836점(61.6%)	4,600점
현대미술품	9점(25.3%)	2점(5.7%)	24점(68.5%)	35점

극동아시아 미술품 중 한국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아주 낮으며 현대미술품 비중은 25%로 이는 현대미술품 구입으로 한국 전통 미술품 부족에 따른 전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갤러리 규모는 18%로 소장품에 비해 작은 공간은 아니며 앞으로 한국 컬렉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 현황으로 한국 전통미술품 구매가 19점으로 가장 많으며 현대작품 획득은 일본미술이 9점으로 전통미술과 더불어 일본미술이 강세임을 알 수 있다.

구 분		구매	기프트(Gift)	유증(Bequest)	계
한국미술품	전통	19	6	-	25
	현대	2	1	-	3
중국미술품	전통	4	2	-	6
	현대	-	-	-	0
일본미술품	전통	13	8	2	23
	현대	5	4		9

o 특별전, 출판

최근 5년 동안 극동 아시아 미술 부문에서 개최된 특별전은 2014년 일본 전통 미술품으로 구성된 *Samurai- Beyond the Sword*이 유일하다. 출판 부문에서는 한국미술 2건, 중국미술 1건, 일본미술 2건으로 파악되며 한국미술은 *"Heritage and Identity; Korean Art at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Entry on Chong Tae-gyu's Plum Blossoms*로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에 대해 각각 출판하였다.

o 보존처리

디트로이트 박물관은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 된 한중일 미술품은 1건도 없었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한국미술은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한국 갤러리 재개관 (Reinstallation) 기금을 후원 받았으며 한국미술품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2명의 전문 인력이 파견되었다. 일본미술은 2014년 한 해만 4건의 후원을 받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갤러리 재개관 용도로 디트로이트 일본 기업협회(Japanese Business Society of Detroit)로부터 \$791,750을 후원 받았으며 일본 특별전 *Samurai: Beyond the Sword*을 위하여 도요타 자동차 회사(Toyota Motor Engineering & Manufacturing North America), 덴소 일본 기업(DENSO International America, Inc.) 그리고 야자키 일본 기업(Yazaki North America, Inc.)가 각각 \$50,000, \$55,000, \$22,500을 후원하였다. 특별전에 대한 후원금은 대부분 전시진열장 설치, 카달로그 제작, 홍보 및 교육, 이벤트 개최 등으로 사용되므로 이들 후원금은 특별전 유치와 규모, 효과 창출에 중요한 원천이다.

o 향후 계획

2018년 11월 아시아 미술관이 재개관됨으로 컬렉션 확장 등 한국미술 확산 집중과 이에 따른 기금 확보 노력 중에 있다.

7) 버밍엄 박물관(Birmingham Museum of Art)

버밍엄 박물관은 남부 앨라배마 주 버밍엄에 소재한 박물관으로 1951년에 설립, 극동아시아 박물관은 1979년 오픈하였다. 1973년 신라시대 토기를 구입함으로써 한국 컬렉션이 시작되었으며 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1993년 한국실을 확보하였다. 큐레이터(Donald A. Wood)는 아시아미술 전문가이다. 2017년 7월 현재 극동아시아 갤러리 규모와 소장품은 아래와 같다.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750sq.f(11%)	3,000sq.f(44.5%)	3,000sq.f(44.5%)	6,750sq.f
소장미술품	218점(4.9%)	2,411점(54.3%)	1,811점(40.8%)	4,440점
현대미술품	20점(11.8%)	50점(29.4%)	100점(58.8%)	170점

극동아시아 갤러리 중 한국 미술관은 전체 공간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미술관이 동일하게 한국의 4배 규모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미술품은 218점으로 한중일 미술품의 4.9%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많은 소장품은 중국미술로 2,400여점이며 일본미술도 1,800여점으로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현대미술품도 100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현대미술품 20점 중 도자기가 대부분이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현황으로 중국 전통 미술품 수집이 두드러진다. 일본 전통 미술 소장품도 125점에 이르나 한국 미술품은 16점에 그쳤다. 박물관 자체적으로 일본과 중국 전통미술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전통미술 구입은 5년 동안 1점도 없었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유증(Bequest)	계
한국미술품	전통		16		16
	현대				
중국미술품	전통	√	√		300±
	현대				
일본미술품	전통	√	√		125±
	현대		√		25±

o 특별전, 출판

최근 5년 동안 극동 아시아 미술 부문에서 개최된 특별전으로 일본은 사무라이를 주제로 2건을 개최하였으며 중국미술은 도자기와 조각으로 올해 11월 전시(Afterlife, The Weldon Collection)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8년 Of Asian Art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한국 특별전시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출판 부문에서는 한중일 미술 모두 1건도 출판되지 않았다.

o 보존처리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는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 된 한국 미술품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최근 5년 동안 한중일 미술 모두 외부로부터 지원은 없었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이 박물관에서 30여년 동안 아시아미술을 담당한 큐레이터가 2017년 말, 퇴직함으로써 구체적 향후 계획은 없다. 새로운 큐레이터가 확보됨과 동시에 한국미술 확산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이 필요한 박물관이다.

8) 호놀룰루 박물관(Honolulu Museum of Art)

호놀룰루 박물관은 1927년 설립, 극동아시아 갤러리와 한국관도 같은 해 오픈하였다. 박물관 설립자 앤나 라이스 쿡(Anna Rice Cooke)여사의 고려청자 컬렉션(약 100여점)이 한국 미술품의 기반이었으며 박물관장 로버트 그리핑 주니어(Robert Griffing Jr) 재직기간 동안 (1946~1963년) 한국컬렉션이 확장되었다. 1997년 아시아 미술 전시공간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2001년 국제교류재단 지원 지원으로 한국관이 재개관 되었다. 큐레이터(Shawn Eichman)는 아시아미술 전문가이다. 2017년 현재 극동아시아 미술 갤러리와 소장품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906sqf(15.3%)	2,627sqf(44.3%)	2,390sqf(40.4%)	5,923sqf
소장미술품	1,050점(3.5%)	5,100점(16.9%)	24,000점(79.6%)	30,150점
현대미술품	10점(0.6%)	100점(6.2%)	1,500점(93%)	1,610점

호놀룰루 박물관내 한중일 갤러리는 각각 독립 전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관이 15.3%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전시관은

소장품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나누어져 있다.

극동아시아 미술품 중 한국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일본 미술품 24,000점(79.6%)에 비하면 아주 작은 비중이지만 소장품 수는 1,050점으로 컬렉션도 삼국시대 도기, 고려청자, 조선백자와 분청사기 등 800여점의 우수한 도자기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미술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하여 백남준, 서도호, 민병헌의 현대 작품을 구매하였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현황으로 전통, 현대 모두 일본 미술품 획득이 각각 134점, 121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중국 미술품으로 각각 86점과 7점에 이른다. 한국 미술품은 9점과 1점으로 한국미술 시장의 침체를 볼 수 있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유증(Bequest)	계
한국미술품	전통	-	7	2	9
	현대		1		1
중국미술품	전통		34	52	86
	현대	1	5	1	7
일본미술품	전통	2	132		134
	현대	26	95		121

o 특별전, 출판

최근 5년 동안 극동 아시아 미술 부문에서 개최된 특별전을 볼 때 한국미술은 2015년 2건(*Masterpieces of Koryo Ceramics*와 *Splendor and Serenity: Korean Ceramics from the Honolulu Museum of Art*)의 특별전을 개최하였는데 아쉬운 점은 도자기 부문에 한정되어 한국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칫 관람객들의 한국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 이상 유발하지 못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 3개 도시에서(뉴욕,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순회전시 중인 한국의 책거리 병풍화(채색화)와 같은 다른 장르의 전시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미술 특별전과 달리 일본 미술은 그림, 조각, 프린트를 중심으로 *Imayo: Japan's New Traditionists*를 개최하였으며 *Hiroshige's City: From Edo to Tokyo*를

통하여 Woodblock prints의 미와 정보를 소개하였다. 중국미술도 도자기와 조각품을 중심으로 *Art in a Time of Chaos: Masterworks from Six Dynasties China, 3rd-6th Centuries*를 개최하여 중국 300여년 걸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외 *Yun-Fei Ji: The Intimate Universe*를 개최 중국현대미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출판 부문에서는 한중일 미술품 출판 1건(*HoMA: Collection Highlights*), 한국미술 2건, 중국미술 1건, 일본미술 2건으로 파악되며 한국미술은 2010년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Honolulu Academy of Art*와 2015년 *Splendor and Serenity: Korean Ceramics from the Honolulu Museum of Art*를 출판하였다. 중국미술은 2015년 특별전 카달로그를 출판하였으며 일본미술은 특별전 외 *Shunga: Stages of Desire(2014)*, *The Beauty of the Moment(2012)*를 출판하였다.

o 보존처리

극동아시아 미술품 30,000여점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는 없는 바, 이는 박물관 재정이 보존처리부를 운영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 된 한국 미술품은 2015~2017년 문화재청 지원으로 7점의 조선시대 그림이 보존처리 되었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2012~2017년)

한국미술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처리지원(2015-2017년)과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전시와 프로그램 지원(2015-2017)을 받았다. 중국과 일본 단체로 부터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향후 5년 동안 한국미술 활용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한국기관(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재단)의 지원과 협력으로 한국미술 조사, 보존처리, 전시, 출판, 프로그램 운영 등 큰 성과가 있음을 언급하며 향후 보다 많은 협력 기회와 한국미술 확산을 희망함

2.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 보유 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현황

다음은 제 2군 박물관, 즉 독립된 한국 갤러리와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가 있는 박물관의 전시, 출판, 보존처리 등의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박물관과 제 1군 박물관과의 차이점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1) 필라델피아 박물관(Philadelphia Museum of Art)

필라델피아 박물관은 동부 펜실버니아 주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1876년 설립되었으며 극동 아시아 미술관도 같은 해에 오픈하였다. 한국 첫 미술품은 1903년 조선시대 분청사기 등 몇 점의 도자기였으며 한국 전시관은 1997년 박물관 자체 기금으로 마련하였다.

총 441점의 한국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31점이 현대미술품이다. 한국미술 큐레이터(우현수)는 조선시대 궁중화(Court Painting) 전문가이며 필라델피아 박물관에서 11년째 한국미술을 전담하고 있다.

o 최근 5년간 수집현황

최근 5년간 전통미술 4점과 현대미술 2점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1년에 한 점씩 구입한 것으로 박물관 구매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각 미술별(일본,중국) 구입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수량이 아니다.

구분	구입(Purchase)	기증(Gift)	유증(Bequest)	합계
전통미술품	4	2		6
현대미술품	2			2

o 최근 5년간 특별전 및 출판현황

2014년 *Treasures from Korea: Arts an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를 개최하였다. 이 특별전에 전시된 작품은 그림, 복식, 도자기, 조각, 금속공예품 다양한 미디어에 걸쳐 약 200여점이 전시되어 조선시대의 미술 전체를 아울렀다. 출판물로는 전시회 카달로그가 있다. 8명의 전문가가 도자, 그림, 복식 등 여러 분야의 에세이를 실어 조선미술에 대

한 이해와 감상의 깊이를 더하였다.

○ 보존처리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는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 된 한국 미술품으로는 조선시대 김득신의 그림, “*General Guo Ziyi's Banquet*”이 Korean Mountning and Conservation Association에 의해 보존처리 되었다.

○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2014년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특별전시회 지원을 받았으며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한국 갤러리 시설 확충과 국외소재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존처리 지원을 받았다.

○ 향후계획

3건의 한국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는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현대미술품으로 특별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도전이다. 이는 한국현대미술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작가와도 상당한 네트워크가 있는 한국인 큐레이터이기에 가능하다.

- 2017년: Korean artists participation in the Craft Show of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 2018년: Special Exhibition featuring works of Jean Shin
- 2021년: Special Exhibition of Contemporary Korean Art, Craft and Design

2)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로스앤젤레스는 할리우드와 같은 명소와 아름다운 해변, 연중 따뜻한 기온으로 세계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LACMA는 게티 센터(Getty Center)와 함께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이다. 박물관은 1965년 설립되어 약 50여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이지만 항상 관람객들로 붐빈다. 첫 한국 컬렉션은 1966년 육영수 영부인이 박물관에 기증한 23점의 고려청자와 조선도자기였다. 한국갤러리는 국제교류

재단 지원으로 1999년 오픈하였으며 전시관 규모는 6,627sq.f로 국외 한국갤러리로서는 최대 규모이다.

총 499점의 문화재와 850여점의 고려, 조선시대 도자기편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50점이 현대미술품이다.

한국미술 큐레이터 버지니아 문(Virginia Moon)은 어시스턴트(assistant)으로 한국미술을 5년째 담당하고 있으며 Stephen Little이 중국과 한국미술 책임자(Head of Chinese and Korean Art)로 7년째 한국미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조직으로 비교한다면 학예연구사와 학예연구관의 관계이다. 작품 구매, 전시, 출판, 보존처리 등 각 프로세스마다 학예연구관격인 Head가 결정하므로 학예연구사적인 한국미술 큐레이터의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 미술 큐레이터는 어시스턴트가 아닌 어소시엇(Associate) 지위를 갖고자 하나 이 역시 인다우먼트(Endowment) 형식의 기금이 필요하다.

o 최근 5년간 수집현황

최근 5년간 전통미술 2점과 현대미술 8점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현대미술 시장 개방도와 접근도가 전통미술 시장에 비해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또한 이 박물관의 현대미술 부서가 한국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와 협력이 뛰어남을 말해준다.

구분	구입(Purchase)	기증(Gift)	유증(Bequest)	합계
전통미술품	2	5	-	7
현대미술품	8	4	-	12

o 최근 5년간 특별전 및 출판현황

최근 5년 동안 총 4건의 특별전이 개최되었는바 한국미술 전담 큐레이터가 없는 박물관과 비교할 때 한국미술 활용의 현저한 대조를 볼 수 있다. 특별전 현황을 대략 살펴보자면 *Elegant Simplicity: Furniture and Ceramics from the Amorepacific Museum* (2011)전시는 한국 아모레태평양 박물관으로부터 6점의 가구와 7점의 도자기를 대여, 전시하여 조선시대 생활상을 보여주었다. *Masterpiece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2013) 특별전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조선시대 풍경화,

도자기 등을 대여 받아 한국 미술의 깊은 멋을 소개하였다. *Treasures from Korea: Arts an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2014) 특별전은 한국 내 개인 및 공공컬렉션으로부터 그림, 서예, 복식, 장신구, 가구, 불교 미술 작품 150여점에 이르는 최상급 미술품을 대여, 전시하여 미국 내 관람객들에게 한국미술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를 제공하였다. *Unexpected Light: works by Young il Ahn*(2017-2018) 특별전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 안영일의 잘 알려진 작품 *Water* 시리즈를 전시, 미국 내 한국의 민족적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한 미술관에서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박물관 내부 프로세스와 외국기관과의 파트너쉽 구축 등은 생각보다 상당한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 큐레이터들이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미술 특별전을 개최하고자 함은 그들이 누구보다 한국미술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미국 관람객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할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으로부터의 많은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출판현황으로는 최근 5년 동안 3건의 출판물이 발간되었다.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2012)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미술 소장품 조사 결과물로 한국어와 영어로 출판되었다. *Treasures from Korea: Arts an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2014년)는 개인컬렉션과 공공컬렉션이 소장한 조선시대의 왕실, 학자, 불교 미술 걸작을 출판하여 조선시대 미술의 다양하고 심오한 면을 알렸다. *Unexpected Light: Works by Young Il Ahn*(2017)은 180여점의 삽화와 작가의 에세이로 구성된 220페이지 도록으로 특별전 효과를 더하였다.

o 보존처리

LACMA는 그림, 직물, 지류, Objects, collections management와 Research 분야로 구성된 자체 보존처리센터가 있어 국내외 보존처리기관과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최근 5년간 보존처리된 한국문화재로는 조선시대 Screen Panel 1점, Hanjing scroll 2점이 있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국립중앙박물관, 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코리아 타임즈 등 여러 기관으로 부터 리모델링, 특별전, 프로그램, 보존처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았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도	후원 기관	후원 내용
2017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LACMA's "Korean Inspiration: A Night of Art & Exploration" 한국상설전, 특별전관람, 갤러리 디스커션, art-making, 차시음회, 게임 등으로 한국미술과 문화경험
2017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Five-part Lecture Series on Korean Art 한국갤러리 투어와 고대토기에서 도자기, 가구,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강연시리즈
2015~2017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보존처리) 조선시대 그림 보존처리
2015	현대자동차	(전시) Beyond Line: The Art of Korean Writing 현대자동차 10개년 후원 중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삼국시대부터 현대의 서예전 후원
2014	국제교류재단, 대한항공, 코리아타임즈	(전시) Treasures from Korea: Art an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150여점의 조선시대 걸작 특별전으로 조선시대 정치, 종교, 사회, 문화상 전반을 보여줌
2012~2013	국립중앙박물관	(갤러리 리모델링) 한국실 전시진열장 교체 등

○ 향후계획

LACMA 한국미술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건의 전통미술과 3건의 현대미술 특별전과 1건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착공, 2020년에 완공될 LACMA 새 건물 내 한국관과 한국미술 상설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Beyond Line: The Art of Korean Writing*

· 삼국시대 이후 현대까지 한자와 한글 서예전으로 서예의 역사와 미에 대해 알림. 서예작품과 함께 그림, 판화, 데생 등 다양한 장르 전시

-2019년, *Solo show of the works by 박대성*

· 신라시대 김생의 서체를 이은 박대성 화백의 개인 전-2018, *Korean*

Inspiration: A Night of Art & Exploration

- 청년 층 대상 한국컬렉션 투어 및 토론, 공예 워크숍, 한국 음식 및 다과 시식회, 차 시음회, 미니 패션쇼개최 등으로 한국미술 및 문화 향유 확산
- 2022년: A Contemporary Show
- 2024년: A Modern Show

3) 클리블랜드 박물관(Cleveland Museum of Art)

1916년 설립된 클리블랜드 박물관은 설립당시부터 극동아시아 전시관을 오픈하였으며 한국 전시관은 2013년 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한국전시관 규모는 141m²으로 일본전시관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전시관은 한국의 2배 규모이다. 한국미술 컬렉션은 1916년 세브란스가 기증한 고려청자로 시작하였으며 총 377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백남준, 김범, 이각영 작품 등 현대미술품 5점이 있다.

한국미술 큐레이터는 임수아로 2014년 캔자스시티 대학에서 18세기 조선과 중국의 그림 비교로 박사학위를 받아 2015년 7월 이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를 시작하였다. 그녀 이전에는 일본미술 큐레이터가 한국미술을 함께 담당하였다.

o 최근 5년간 수집현황

최근 5년간 전통미술 3점과 현대미술 1점을 구입하였으며 클리블랜드 개인 소장가로부터 4점의 작품을 유증 받았다.

구분	구입(Purchase)	기증(Gift)	유증(Bequest)	합계
전통미술품	3	-	4	7
현대미술품	1	-	-	1

o 최근 5년간 특별전 및 출판현황

2017년 현재 책거리 순회전이 전시 중에 있다. *책거리: 소유의 즐거움*은 2016년 한국에서도 큰 호응을 받은 전시로 미국에서는 뉴욕 왕센터, 캔자스 시티의 스펜스 박물관에 이어 클리블랜드에서 2017.

8.1~11. 1일까지 전시 중에 있다. 유명한 미술평론가 Steven Litt의 호평과 함께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 중에 있다. 이 특별전은 미디어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 K-pop 개최 등으로 클리블랜드 내 한국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011년에는 그림, 서예, 도자기로 구성된 *The Lure of Painted Poetry* 특별전이 있었다.

출판물로는 책거리 전시와 함께 출판된 *Chaekgeori: Power and Pleasure of Possessions in Korean Painted Screen*이 있다. 이 책은 이 분야 저명 학자들의 에세이로 한국의 책거리를 중심으로 중국과 유럽의 장르와 시각을 담은 폭 넓은 연구 출판물이다.

○ 보존처리

클리블랜드 박물관은 자체 보존 처리부를 두고 있다. 이 중 아시아 미술 보존처리 전문가는 2명으로 한 명은 일본 그림 전문가이며 다른 1명은 중국 그림이 전문이다. 일본미술과 중국미술은 일본과 중국내 보존처리기관과 협력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반면 한국미술 보존처리는 아주 드물게 이루어진다. 최근 5년간 보존 처리된 한국미술은 2017년 이 박물관 일본미술 보존처리가에 의해 조선시대 회화 1점이 보존 처리 되었다.

○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전시 진열장 설치와 2016년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책거리 특별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펀드를 지원 받았다.

○ 향후계획

한국 미술 소장품 온라인 출판과 여성 미술전을 계획하고 있다.

3. 미국 대학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현황

미국 내 한국 미술품을 소장한 대학 박물관은 예상외로 많으나 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방

문한 시라큐스 대학박물관(Syracuse University Art Gallery)에서 컬러티가 아주 뛰어난 신라시대 토기, 고려청자, 조선백자, 분청사기 등을 만났다. 컬러티에 비해 한 개의 진열장에 그저 진열되어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곧 자료조사를 한 결과 클리블랜드 박물관 도서관에서 1965년 출간된 이 컬렉션 도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John R. Fox Collection of*

KOREAN CERAMICS

SYRACUSE UNIVERSITY

1965년 출판, 한국역사 및 미술사 소개

신라토기 9점, 통일신라시대 기와 등 7점, 고려청자 51점, 조선백자, 분청사기 41점, 청동 및 금속 10점 유물 삽화 및 해설

문제는 이 대학 박물관이 1960년대 이후 미국미술 전문 박물관으로 전환한 이후 한국 컬렉션 수집, 전시, 보존처리가 멈추었다는 것이다. 아래 설문조사에서 상술하겠지만 이 박물관은 총 444점 한국컬렉션이 있음에도 한국미술 활용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 후 미국 내 한국미술품 소장 대학박물관을 조사하여 시라큐스 대학, 예일대학, 프린스턴 대학, 시카고 대학, 오블린 컬리지, 스미스 컬리지, 웰슬리 컬리지 등 약 20개의 대학 박물관에서 한국컬렉션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연히 이보다 더 많은 대학박물관들이 한국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 박물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보내었으나 8개 박물관-시라큐스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코넬 대학교, 오블린 대학, 스미스 대학,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대학, 미시건 대학교, 캔자스 시티 대학교-에서만 응답하였다. 응답하지 않은 박물관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한 한국미술 소장품과 보존처리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은 설문조사에 응한 박물관 자료를 토대로 미국 대학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시라큐스대학 박물관(Syracuse University Art Galleries)

시라큐스 대학 박물관 컬렉션은 1873년 형성되었으나 박물관은 2006년 설립되었으며 별도로 아시아미술 전시관은 없다. 큐레이터(David L. Prince)는 미국 그림, 판화(American Painting & Prints) 전문으로 이 박물관에서 30년 동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o 한국미술품 현황

1962년과 1964년 2회에 걸쳐 팩스 대령이 그가 소장하고 있던 한국미술품 444점을(Col. John R. Fox collection of Korean Ceramics) 이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 중 434점이 신라토기, 고려청자, 조선백자, 분청사기 등 도자기이며 10점은 청동거울 등 금속이다. 문제는 이 박물관이 1960년 이후 미국 미술에 주력하면서 한국미술 기증이나 구매 등 수집은 팩스 컬렉션 이후 한 건도 없을뿐더러 뛰어난 컬렉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o 전시 및 출판 현황

최근 5년 동안 전시나 출판은 없으며 1965년 이후 *The John R. Fox Collection of KOREAN CERAMICS*가 한국컬렉션의 유일한 출판물이다.

o 교육 프로그램, 강연, 행사

최근 5년 동안 한국문화나 미술 관련 프로그램, 강연, 행사는 없었다

o 보존처리

최근 5년 동안 한국미술품 보존처리 건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o 향후 5년간 한국미술 활용계획

향후 5년간 이 컬렉션에 대한 특별전 개최, 강연, 출판 등의 활용이나 보존처리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최상급격 도자기와 금속미술품 등 440점을 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여 년 동안 진열장에 단순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국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2)프린스턴대학 박물관(Princeton University Art Museum)

o 박물관 현황 및 큐레이터

프린스턴대학 박물관은 1882년 설립되었으며 아시아미술 전시관은 20세기 초 오픈하였으며 한국 독립 전시관은 없다.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는 2명(Cary Liu와 Zoe Kwok)이며 중국미술 전문가들로 프린스턴에서 각각 20년, 4년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o 한국미술품 현황

1929년 도자기 컬렉션이 최초 한국미술품이었으며 1960년대 고려청자들을 수집하였다. 이 박물관은 대표적 한국미술품으로 12세기 고려청자 주전자를 손꼽았다. 이 박물관의 한국컬렉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장르	수량
그림(Paintings)	8
도자기(Ceramics)	35
불교미술(Buddhist art)	2
가구(Furniture)	2
현대미술(Contemporary Art)	1
계	50점

o 최근 5년간 한국미술품 수집 현황

구분	구매(Purchase)	기증(Gift)	유증(Bequest)	합계
전통미술품	1	2	-	3
현대미술품	1			1

전통미술품과 현대미술품을 각각 1점씩 구매하였는바 이는 한국미술 확장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2015년 전통미술품이 2점 기증되었다.

o 전시 및 출판 현황

최근 5년 동안 전시나 출판은 없음. 아시아 미술사로 유명한 프린스

턴대학 박물관에서 이러한 현상은 대학 내 한국미술사의 위축을 초래한다.

o 교육 프로그램, 강연, 행사

최근 5년 동안 한국문화나 미술 관련 프로그램, 강연, 행사는 없었다

o 보존처리

최근 5년 동안 한국미술품 보존처리 건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o 향후 5년간 한국미술 활용계획

2018년 새로운 갤러리로 이전함에 따라 향후 5년간 한국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컬렉션의 적극적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대여 전시를 적극적으로 희망함

3)코넬대학 박물관(Herbert F. Johnson Museum of Art)

o 박물관 현황 및 큐레이터

코넬대학 박물관은 1953년 설립되었으며 아시아미술 전시관은 1973년 오픈하였으며 한국 전시관은 박물관 자체 기금으로 2011년 마련되었다.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Ellen Avril)는 중국미술 전문으로 이 박물관에서 20여년 동안 아시아미술을 담당하고 있다.

o 극동아시아 갤러리 규모 및 미술품 소장 현황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53㎡(11%)	244㎡(51%)	182㎡(38%)	479㎡
소장미술품	350점(6.6%)	2,500점(46.7%)	2,500점(46.7%)	5,350점
현대미술품	15점(8.3%)	40점(22.2%)	125점(69.5%)	180점

코넬대학은 아시아 미술사가 아주 강한 대학으로 박물관 소장 아시아 미술품은 학문적 뒷받침을 충분히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일본미술품과 중국미술품이 동일한 규모로 각각 2,50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 소장품도 350점으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현대미술로는 일본미술

품이 강세를 보인다.

o 한중일 미술품 획득현황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현황으로 중국 미술품은 전통미술 222점을 획득하였으며 일본 미술은 전통미술 355점, 현대미술 64점 획득으로 가장 많이 획득하였다. 한국 현대미술도 31점의 기준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유증(Bequest)	계
한국미술품	전통	2	3	-	5
	현대	2	31	-	51
중국미술품	전통	4	218		222
	현대	6	5	-	11
일본미술품	전통	6	284	65	355
	현대	7	45	12	64

o 특별전, 출판

최근 5년 동안 극동 아시아 미술 부문에서 개최된 특별전을 볼 때 한중일 미술 공동 전시회가 1건 있었으며 중국미술과 일본미술 특별전이 각각 2건과 3건씩 개최된 반면 한국미술 특별전은 없었다. 특히 일본미술전은 그림, 도자기, 프린트, 장식미술, 사진 등 모든 미디어가 전시되어 일본미술의 미적 다양성과 문화적 깊이를 선보였다.

최근 5년 동안 한중일 미술 출판물은 없었다.

o 보존처리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는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된 한국 미술품은 없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2012~2017년)

한국미술과 일본미술에 대한 외부 기관 지원은 없었으며 대만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R.O.C)로부터 2건의 특별전 지원을 받았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향후 5년 동안 한국미술의 예술적, 학문적 활용에 대한 계획이 없어 매우 아쉽다.

4)스미스 대학(Smith College Museum of Art)

o 박물관 현황 및 큐레이터

스미스대학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명문 여자대학으로 1879년부터 컬렉션을 수집하기 시작, 박물관은 1919년에 설립되었다. 아시아 독립 갤러리는 2015년에 오픈했으며 별도의 한국 독립 전시 공간은 없다.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Yao Wu)는 아시아 미술 전문으로 아시아갤러리 오픈과 함께 2년째 아시아미술을 담당하고 있다.

o 한국미술품 현황

최초 한국 미술품은 1919년 이 대학 동문의 기증품이었으며 이 후 구매와 기증으로 컬렉션이 확장되었으며 현대미술 획득에도 노력을 기울여 현재 그림, 도자기, 사진, 프린터&드로잉, 가구, 현대미술 등 총 43점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 대표작으로는 현대작가 민영순의 *Movement*를 손꼽았다. 이유로는 이 작품이 KASS(Korean American Students of Smith)와 KAF(Korean Art Foundation) 회원들의 발의와 기증으로 구매되었으며 작품 설치와 출판, 전시과정을 통해 한국과 한국계 미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장르	수량
그림(Paintings)	4
도자기(Ceramics)	11
가구(Furniture)	3
금속공예(Metal works)	1
사진(Photographs)	9
Prints and Drawings	7
현대미술(Contemporary art)	8
계	43점

o 최근 5년 한국미술품 수집 현황

최근 5년 동안 전통 작품 획득은 없으나 현대미술품은 아래와 같이 19점을 획득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6년 동안 매년 적게는 1점 많게는 6점씩 구매하여 적극적으로 한국미술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구매	기증 (Gift)	유증(Bequest)	합계
2017	1		-	1
2016	6	1	-	7
2015	6		-	6
2014	1		-	1
2013	2		-	2
2012		2	-	2
합계	16	3	-	19

o 전시 및 출판 현황

최근 5년 동안 전시나 출판은 한국 컬렉션 규모에 비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2016년 *Collecting Art of Asia*, 2015년 *Dislocation/Urban Experience: Contemporary Photographs from East Asia* 전시회를 통해 한국컬렉션과 사진 등을 특별 공개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김수자 작가의 비디오 작품 *A Beggar Woman --Cairo*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출판으로는 상기 특별전 2건에 대한 카달로그를 출판하였다.

o 교육 프로그램, 강연, 행사

최근 5년 동안 한국문화나 미술 관련 프로그램, 강연, 행사는 없음

o 보존처리

최근 5년 동안 한국미술품 보존처리 없음

o 향후 5년간 한국미술 활용계획

- 전시: 아시아 상설전시회에 한국미술품을 많이 전시할 예정임.
2018년 특별전 "*Modern Images of the Body from East Asia*"에 한국작품 상당수 출품.
- 구입: 한국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장식미술과 Ink painting 구입 계획
- 강연: 한국미술가 또는 한국계 미국 작가 초청 강연

5)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Road Island School of Design Museum)

o 박물관 현황 및 큐레이터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은 동부 로드아일랜드 주에 위치한 명문 예술대학으로 박물관은 일찌감치 1877년 설립되었다. 아시아 갤러리는 1952년에 오픈하였으며 한국 독립 전시실은 없다. 현재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는 없으며 판화 및 사진 전문 큐레이터가 아시아 미술을 담당하고 있다.

o 한국미술품 현황

최초 한국 미술품은 1912년 3점의 청동 숟가락으로 시작, 2017년 7월 현재 그림, 도자기, 조각, 금속공예, 가구, 현대미술 등 다양한 컬렉션 137점을 아래와 같이 소장하고 있다.

장르	수량
그림(Paintings)	5
도자기(Ceramics)	17
조각(Sculpture)	3
가구(Furniture)	2
금속 및 장식(Metal works & DecArts)	52
복식 및 장신구(Textile & Accessories)	29
Works on paper, Drawings & Watercolor	13
Time base media	1
현대미술(Contemporary art)	15
계	137

o 최근 5년 한국미술품 수집 현황

최근 5년 동안 현대미술 작품 획득은 없으나 전통미술품은 2012~2014년 동안 5점, 2015년 2점, 2016년 1점, 2017년 2점, 총 10점을 획득하여 한국미술 확장에 꾸준한 노력을 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o 전시 및 출판 현황

최근 5년 동안 전시나 출판은 없었다. 이는 2009년 이후 2017년 7월 현재까지 아시아미술 큐레이터 자리가 공석인 것이 이유일 수 있다. 2018년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 채용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한국미술 활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o 교육 프로그램, 강연, 행사

최근 5년 동안 한국문화나 미술 관련 프로그램, 강연, 행사는 없었다.

o 보존처리

가장 최근 보존 처리된 한국미술품은 고려불화 수월관음도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아시아미술 보존처리가에 의해 7년에 걸쳐 보존처리 되었다.(2001~2008년)

o 향후 5년간 한국미술 활용계획

최근 보존처리한 고려불화 전시와 이 작품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보존처리는 코리아파운데이션과 E. Rhodes and Leona B. Carpenter Fund 지원을 받았으며 작품 재설치 기금 확보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 요청 중에 있음

6) 스펜스 박물관(Spencer Museum of Art)

스펜스 박물관은 넬슨 앳킨스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서부 미주리 주에 소재한 박물관으로 캔자스시티 출신 Sallie Casey Thayer가 1917년 7,500여점의 미술품을 기증함으로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그 컬렉션 중 고려청자 등 도자기와 조선시대 그림과 직물 등 100점이 한국 미술품이었다. 독립 아시아전시관은 없으며 한중일 미술품이 공동으로 전시되고 있다. 2017년 7월 현재 소장품 규모는 아래와 같다.

	한국	중국	일본	계
소장미술품	143점(1.96%)	2,024점(27.7%)	5,133점(70.3%)	7,300점
현대미술품	15점(25%)	25점(41.7%)	20점(33.3%)	60점

극동아시아 미술품 중 한국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일본 미술 70.3%와 중국 미술 27.7%와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웃 박물관 넬슨 앳킨스 박물관이 중국 미술품 79.5% 소장으로 중국 미술을 대변하고 있다면 스펜스 박물관은 일본 미술 70.3%로 일본 미술을 대표하여 이 두 박물관은 미주리 주의 중국미술과 일본 미술을 이끌고 있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현황으로 전통, 현대 일본 미술품 획득이 각각 91점, 18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중국으로 43점, 37점이며 한국 미술품은 15점과 19점을 수집하였다. 중국미술과 일본미술은 구매보다 기증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아직도 개인 컬렉터들이 중국, 일본 미술을 많이 소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유증(Bequest)	계
한국미술품	전통	6	9	-	15
	현대	15	4	-	19
중국미술품	전통	11	32	-	43
	현대	35	2	-	37
일본미술품	전통	15	76	-	91
	현대	3	15		18

o 특별전, 출판

최근 5년 동안 극동 아시아 미술 부문에서 개최된 특별전으로는 중국 2건, 한국 2건, 일본 1건으로 총 7건의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중국은 Artist-in-Residence Project의 일환으로 2011년, 2012년 두 해에 걸쳐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한국미술은 2011년 도자기로 그림으로 구성된 *Nature*전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 한국에서 큰 호응을 받은 *책거리* 순회전을 유치, 국제적 전문가를 초청 심포지엄도 함께 개최하여 한국 채색화의 감상과 연구를 심화하였다. 일본은 2014년 6개월 동안 *퀼트* (Quilts)전을 개최하였다.

출판 부문에서는 한중일 미술 단독 출판 건은 없으며 아시아 미술 전체를 아우르는 *Color in Ancient and Medieval East Asia*(2015), *Temporal Turn: Art&Speculation in Contemporary Asia*(2016) 2건이 출판

되었다.

o 보존처리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는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한 한국 미술품은 2016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펀드 지원으로 곽분양행락도(郭汾陽行樂圖)가 보존처리 되었으며 보존처리과정은 비디오로 제작, 설치되어 한국문화재를 홍보하고 있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한국미술은 2016년, 국외소재문화재단으로부터 보존처리지원과 2017년,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전시와 컨퍼런스 개최 지원을 받았다. 일본 미술은 2013년과 2016년 전시회 지원을 받았으며 중국미술은 2010년 Ching Ching-kuo Foundation으로부터 컨퍼런스 개최 지원을 받았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향후 5년 동안 한국미술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7)미시건 대학교 박물관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

o 박물관 현황 및 큐레이터

미시건대학교 박물관은 1946년 설립되었으며 극동 아시아미술 전시관은 1953년 오픈, 한국 전시관은 2009년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개인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오픈하였다. 큐레이터는 근현대 일본미술 전문가 Natsu Oyobe로 10년째 박물관을 맡고 있다.

o 갤러리 및 소장품 현황

한국컬렉션은 1952년 김영진의 그림 *Fourteen Fruit and Flower Sketches*을 시작으로 형성되었다. 2017년 9월 현재 이 박물관 극동아시아 갤러리 규모와 소장품은 아래와 같다.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90.1㎡ (32.4%)	98.3㎡ (35.2%)	90.1㎡ (32.4%)	278.5㎡
소장미술품	450점(9.5%)	2,300(48.4%)	2,000(42.1%)	4,750점
현대미술품	10점(1.35%)	160점(21.6%)	570점(77%)	740점

극동아시아 미술 중 한국 전통 미술과 현대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5%와 1.35%로 비중이 높지 않다. 특히 현대 미술은 일본 570점, 중국 160점과 비교할 때 10점으로 독자적 전시회를 개최하기는 어렵다. 반면, 갤러리는 3국이 약 30평 규모의 비슷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 현황으로 한국 전통 미술품은 구매 1점, 기증 2점, 현대미술 2점 총 5점을 획득한 반면, 중국 미술품은 전통 미술품 46점 기증, 현대 미술품 64점 기증으로 총 110점을 확보하였으며 일본 미술품은 전통 미술품 70점과 현대 미술품 263점으로 총 333점을 확보하였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기증(Donation)	계
한국미술품	전통	1		2	3
	현대	-	2	-	2
중국미술품	전통	-	-	46	46
	현대	-	64	-	64
일본미술품	전통	-	-	70	70
	현대	3	260	-	263

o 특별전, 출판

최근 5년 동안 개최된 특별전으로 2012년 한국미술에서 비디오 아트 전시회(*Heavy Industries*)를 개최하였으며 전통미술과 관련된 특별전은 없다. 일본은 2014년에서 2017년 동안 설치전과 프린트 전시회(*Paramodel/Japanese Prints of Kabuki Theater*)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미술은 2013년과 2016년 동안 그림과 드로잉전(*Isamu Noguchi/Qi Baishi/Beijing 1930과 Xu Weixin: Monumental Portraits*)을 개최하였다. 미시건 대학

은 아시아 미술사가 강한 대학으로 학생들의 한국미술사에 대한 동기 부여와 자료 제공을 위해서 전통미술 특별전이 필요하다. 이에 큐레이터는 한국기관으로 부터의 관대한 미술품 대여를 희망하였다.

출판 부문에서 한국미술은 2014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 결과물로 *Korean Collection,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rt*가 출판 되었다. 일본 미술은 특별전 브로슈어가 2건 출판되었으며 중국 미술은 특별전 관련 책자가 2건 출판되었다. 미국 박물관 재정은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박물관들은 재정 부족에 시달린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지난 회계연도(2015.7.1.~2016.6.30) 4천만 달러(452억원)의 재정적자로 관장이 사임되었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명예퇴직이나 해고로 박물관을 떠나야했다.⁶⁸⁾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의 모든 특별전이나 출판은 외부로 부터의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미술품에 대한 자체 출판은 전문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재정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외소재문화재단이나 코리아파운데이션의 특별전이나 출판에 대한 지원은 한국미술을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학생,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다.

o 보존처리

극동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가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한 한국미술품은 없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최근 5년 동안 한국미술은 2015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한국실 재개관을 지원 받았으며 일본미술은 2014년과 2017년 일본 국제교류재단(Japan Foundation)으로부터 2건의 특별전 개최 지원을 받았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2020년 극동아시아 그래픽 디자인 전을 준비 중이며 또한 전통 및 현대 칠기전을 계획하고 있다. 보존처리로는 고려청자 보존처리를 위

68) '적자수렁'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수장, 재정 논란속 사임, 한국일보, 2017.3.1.

한 기금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8) 오블린 대학 박물관(Allen Memorial Art Museum, Oberlin College)

오블린 대학 박물관은 1917년 설립되었고 아시아미술 전시관은 박물관 설립 무렵 마련되었으며 한국 독립 전시 공간은 없다.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는(Kevin R. E. Greenwood) 중국, 일본미술 전문가로 이 박물관에서 3년째 아시아미술관을 담당하고 있다.

o 한국미술품 현황

이 박물관의 한국미술품 컬렉션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894년 이 대학 출신인 벙커(Dalzell A. Bunker, 1853-1932)⁶⁹⁾가 기증한 미술품들이 한국 첫 컬렉션이었다. 이 후 1918년과 1933년 2회에 걸친 그의 유증으로 한국컬렉션이 다양화되었다. 1920년 클리블랜드에 거주하던 Lilian S. Ludlow가 27점의 도자기를 기증하였으며 1949년 Dr. Alfred I. Ludlow⁷⁰⁾가 69점을 기증함으로 한국컬렉션은 도자기, 금속, 가구, 조각, 악기 등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이 박물관의 한국컬렉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대표 작품으로는 벙커 컬렉션인 조선시대 10폭 병풍화 Visiting the Flower Blossoms and Following Willow Trees Along the Stream(방화축유과전천)를 꼽았다.

장르	수량
그림(Paintings)	3
도자기(Ceramics)	47
가구(Furniture)	8
금속공예(Metal works)	52
목조각(Wood sculpture)	7
현대미술(Contemporary art)	3
계	120점

69) Dalzell A. Bunker는 1886년 미국정부에 의해 한국교육기관 현대화 임무로 한국에 보내져 약 16년 동안 한국에 머물며 Royal College와 배재학당(Paichai Boy's School)에서 가르쳤으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의 부인 Annie Bunker는 medical attendant, confidant로 명성황후의 주치의였다.

70) Dr. Alfred I. Ludlow는 1912년에서 38년까지 26년 동안 서울 세브란스 병원 대학(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에서 수석외과의사로 지냈다.

o 최근 5년 한국미술품 수집 현황

최근 5년 동안 획득한 작품은 2014년 현대미술 1점이 있다. 이는 작품 수는 적으나 박물관이 한국미술 확장과 활용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o 전시 및 출판 현황

최근 5년 동안 전시나 출판은 없음. 컬렉션이 다양하며 퀄리티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시나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큐레이터가 중국, 일본미술 전문가로 한국미술에 대해서는 특별전이나 출판을 할 정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o 교육 프로그램, 강연, 행사

최근 5년 동안 한국문화나 미술 관련 프로그램, 강연, 행사도 없음

o 보존처리

최근 5년 동안 한국미술품 보존처리 건 없으나 최근 박물관 대표작인 Visiting the Flower Blossoms and Following Willow Trees Along the Stream(방화축유과전천) 보존처리 기금 지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한 상태이다.

o 향후 5년간 한국미술 활용계획

한국작품 구매와 도자기 특별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1점의 그림과 8점의 가구 보존처리를 계획하고 있음. 이 박물관의 컬렉션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3명의 선교사나 의사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작품도 소장하고 있는 뛰어난 컬렉션으로 향후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박물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국 문화재 활용을 기할 필요가 있다.

9) 사무엘 한 박물관(Samuel P. Harn Museum of Art)

사무엘 한 박물관은 플로리다 주에 소재한 박물관으로 1990년 설립된 역사가 짧은 박물관이나 아시아 미술에 대한 큐레이터 Jason

Steuber의 열정은 아주 대단하다. 아시아 미술은 한 개의 갤러리에서 공동으로 전시되고 있으나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단,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지원으로 유일하게 한국갤러리가 마련되었다. 박물관 설립 2년 전 1988년 플릿 대령(General James Van Fleet)이 김홍도, 장승업, 김은호 그림과 도자기를 기증한 것이 한국컬렉션 기반이 되었다. 2017년 7월 현재 극동아시아 갤러리 규모와 소장품은 아래와 같다.

	한국	중국	일본	계
갤러리 규모	95.3㎡(10%)	-	-	
소장미술품	192점(9.7%)	762점(38.6%)	1,020점(51.7)	1,974점
현대미술품	9점(6.6%)	52점(38.4%)	74점(55%)	135점

극동아시아 미술품 중 한국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7%, 중국 미술 38.4%, 일본 미술 51.7%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현대작가들의 미술품을 꾸준히 구매함으로써 한국미술 확장을 꾀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5년간(2012~2017) 미술품 획득현황으로 일본 미술품 수집이 두드러진다. 현재 일본미술 소장품은 1,020점으로 이는 최근 5년 사이에 소장품의 43%(구매 120점, 기증 321점)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이는 전략적으로 일본 미술 확장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미술품 또한 5년 동안 62점이 기증되어 이 시기에 한국컬렉션 30.8%가 수집되었다. 중국 미술 또한 20점과 17점을 획득함으로써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구 분		구매	기증(Gift)	유증(Bequest)	계
한국미술품	전통	2	61	-	63
	현대	5	1	-	6
중국미술품	전통	8	12	-	20
	현대	6	11	-	17
일본미술품	전통	120	321	-	441
	현대	-	1		1

o 특별전, 출판

최근 5년 동안 극동 아시아 미술 부문에서 개최된 특별전은 한중일 미술 공동전시회로 2012년 도자기전 *Avenues of Exchange*, 조각전 *Religion in the Round*, 여러 미디어의 *Religion in the Round* 3건과 2017년 *Show Me the Mini* 등 총 4건의 특별전이 있었다. 한국 미술로는 2012년 보존처리작품 전시회 *Korean Art: Conserving Treasures*과 *Korean Art: Collecting Treasure* 2건을 개최하였다. 일본미술은 2012년부터 2016년 5년 동안 2건의 현대미술전과 도자기전, 목판화전, 그림 등 3건의 전통미술전으로 총 5건을 전시하였다. 중국미술 특별전은 없었다.

출판 부문에서는 한중일 공동 출판 *Ink Garden* 1건, 한국미술 5건, 중국미술 4건, 일본미술 4건으로 다른 박물관에 비하여 출판이 많은 편이다. 한국 출판물 내용을 살펴보면 *Arts of Korea: Histories, Challenges and Perspectives*(2017), *Korean Art: Articles from Orientations 1970-2013*(2015), *Arts of Korea: Histories, Challenge, and Perspectives*(2013)와 *Sacred Secrets*(2012)로 특히 2015년 출판물 *Korean Art: Articles from Orientations 1970-2013*은 아시아미술 저명 매거진 *Orientation*에 게재된 한국문화재와 에세이를 집대성하여 한국미술사 참고서로도 손색이 없다.

o 보존처리

아시아미술 전문 보존처리가는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보존처리 된 한국 미술품은 2012~2013년 국립화재연구소 펀드 지원으로 김홍도 그림 *Hunting with Falcons*와 장승업 그림 *Scholar in a Garden* 2점을 보존처리 하였다. 2015~2016년에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으로 김은호 그림 *Folk Dancers Dressed as Buddhist Nuns*와 Bokjang objects associated with Seated Bodhisattva가 보존처리 되었다.

o 외부 기관으로 부터의 후원

한국미술은 코리아 파운데이션으로부터 한국전시실 확충 기금(2011,2012)과 2015년 출판기금 지원을 받았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웹사이트 제작 등 교육 지원(2011~2012)과 보존처리(2012~2013)지원

을 받았으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보존처리(2015~2016) 지원을 받았다.

o 한국미술 향후 계획

- 한국전통 미술과 사진, 비디오 포함 현대미술 컬렉션 확장
- 국제 저널지에 한국미술품 출판
- 신규 한국컬렉션 온라인 업데이트
- Hanging scrolls 2점 보존처리

다음은 각 박물관들이 한국미술 운영(문화재 활용)에 있어 겪는 공통된 어려움과 한국정부나 기관에 대한 희망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4. 한국미술 운영 애로사항

구분	내 용
한국미술품의 한계	● 한국미술품 소규모로 전시의 어려움 ● 지역내 개인 컬렉터들의 컬렉션 소규모로 기증 받기가 어려움 ● 박물관내 구매 예산 부족으로 기증에 의존하고 있음. 한국미술 기증자는 거의 없음.
한국미술 전문 인력 부족	● 아시아 미술 큐레이터 부재 ● 한국 미술 큐레이터 부재 ● 한국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상시인력 부족 - 기증 미술품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기증 결정에 외부 전문가 초빙 활용
한국미술 시장의 한계	● 미국 내 박물관급 한국 전통미술 취급하는 딜러 없음 ● 미국 내 한국현대미술 취급하는 딜러 거의 없음 ● 박물관 컬러티 한국미술품 부족 ● 미술시장에 나오는 박물관급 한국문화재는 박물관 예산을 훨씬 상회함 ● 미국 내 옥션에 나오는 한국미술품들의 프로버넌스적 문제 - 한국 당국과의 Double-check Mechanism 설치 요청

구분	내 용
박물관 예산, 리더쉽	● 극동미술 구매 예산 없음 ● 리더들의 한국미술 이해 부족
기타	● 한국 전통미술 반출 제한 ● 전통 및 현대미술품 구입과 수출에 대한 법적 및 절차적 지식 부족으로 구매 어려움 ●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으로 한국미술 옥션이나 미술시장 등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5. 요청 사항

구 분	내 용
기금지원	● 한국실 설치 및 Reinstallation 기금 지원 ● 한국미술 소장품 조사 지원 ● 한국미술 보존처리 지원 ● 출판 및 행사 개최 지원 ● 한국 전통예술 공연 지원 ● 한국문화재 고해상도 사진촬영 및 웹사이트 구축, 유지 지원으로 학계 전문 지식 제공 ● 한국 전통미술 구매 기금 지원 ● 한국현대미술 구입 프로그램 운영, 현대작가의 기증 유도
인력지원 및 교류	● 한국미술 펠로우쉽 확보 - 한국 박물관, 갤러리, 미술가들과 관계 형성 및 지속, 한국미술품 활용 확산 담당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펠로우 지원
인력지원 및 교류	- 진위 검토, 문화재 기능 및 용도, 보존처리 판단 등 ● 한국과 미국 박물관 파트너쉽 담당 기구 조직화 - 한국, 미국, 유럽의 한국미술 담당자 미팅 2년 마다 개최 - 큐레이터, 학자 한국기관 방문 기금 조성 - 학자 교류 ● 한국미술담당 큐레이터 자리 endowment

구 분	내 용
미술품 대여	● 한국으로부터 미술품 장기 대여 ● 전통미술품 및 현대미술품 교류 (EXVHANGE)와 순회전시
기타	● 한국미술 담당 큐레이터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한국 옥션, 딜러, 한국문화재보호법 소개 등의 워크숍 개최 ● 한국 미술품 구입시 작품 적법성 및 진위성에 대해 더블체크를 할 수 있는 한국정부의 장치 마련 ● 미국 소재 한국문화재 소장 기관 및 소장품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의 설문조사에서 보듯 미국 내 한국문화재는 극동아시아 미술의 한 부분으로 일반 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에서 활용, 연구되고 있다. 한·중·일 문화재에서 한국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 2~4%, 5~6%가 대부분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갤러리 공간 또한 충분치 않다. 큐레이터의 대부분이 일본 또는 중국미술 전문가로 한국미술 큐레이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별전 개최, 보존처리, 수집, 출판 등 활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재의 활용도는 소장품 규모보다는 담당 큐레이터의 관심과 역량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즉,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큐레이터와의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재 관련 법제, 역사적·문화적 배경지식, 옥션현황, 컬렉터와 딜러 현황, 전통미술 및 현대미술 작가, 보존처리 기술, 대학 미술사에 대한 정보 등을 수시로 교환할 수 있을 때 한국문화는 확산될 수 있다.

V. 미국 미술시장의 한국문화재

한국문화재 활용의 세 축은 박물관, 미술시장 그리고 미술사를 가르치는 대학으로 박물관은 수집과 전시, 미술시장은 문화재 수요와 공급의 장으로 그리고 대학은 문화재 연구와 학문의 장으로 이들은 통합적, 선순환적 유기체로 상호 발전과 성장을 돕는다. 이 장에서는 미국 미술시장에서의 한·중·일 문화재 유통현황을 살펴봄으로 한국문화재의 시장 규모와 그 비중을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미술 시장이 있지만 미국 3대 옥션인 크리스티(Christie), 소더비(Sotheby) 그리고 보넴(Bonham)에서 아시아 미술 시장의 가장 성수기라 할 수 있는 Asia Week 주간에 개최된 한·중·일 문화재 옥션으로 한정하겠다. 옥션을 알아보기 전 먼저 아시아 문화재 활용의 장인 Asia Week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한국문화재 활용 이해에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Asia Week는 매년 3월, 10일 동안 뉴욕에서 세계의 아시아 미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아시아 미술 행사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히말리야, 동남아 미술 관련 옥션, 전시, 심포지엄, 특별강연, 특별 이벤트, 박물관 투어 등이 이루어진다. 행사 배경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sia Week 현황

가. ‘아시아 주간(Asia Week)’ 제정 배경

- 소더비의 ‘3월 아시아 미술품 옥션(March Asian art auctions)’ 행사가 1990년대 말, 다른 옥션들과 국제 아시아 예술 박람회(International Asian Art Fair)와 결합하여 아시아 주간(Asia Week)으로 성장함
- 2001년 9.11 이후 Asia Art Fair는 링컨센터로 옮겨졌으며 정책과 법 강화로 외국에서 미술품 반입이 어려워져 행사가 축소되며 2008년에는 경기 불안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음
- 2009년 3월 14일 뉴욕 16개 갤러리들이 “Asian Art Dealers of the Upper East Side”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갤러리를 개방 전시하여 “Asia Week New York”의 모델이 됨

- 2010년 “Asian Art Dealers New York”로 재 명명, 31명의 아시아 미술 국제 딜러들이 3월 뉴욕 맨하탄에서 전시회를 개최, 주요 옥션, 박물관, 문화기관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룸
- 2011년 “ Asia Week New York Association”으로 공식 명칭 변경, 이 후 참여 딜러 및 기관들이 많아지고 행사 내용도 갤러리 개방, 전시, 옥션, 특별 강연, 심포지엄, 박물관 투어 등으로 다양해 짐.

나. 최근 3년간 아시아 주간(Asia Week) 내용

- 2016년 아시아 주간(Asia Weeky) : 3.10.~3.19.
 - 45개 갤러리와 5개 옥션, 650여명의 컬렉터, 큐레이터, 전문가들이 참여, 다양한 전시, 강연, 이벤트로 성황을 이루었지만 이민관 세청이 크리스티와 인도 미술상에서 불법 반출 문화재를 적발, 압수하여 옥션은 침체되어 작품 판매가는 \$130million에 그침.
- 2015년 아시아 주간(Asia Week) : 3.13.~3.21.
 - 아시아 주간 7주년으로 다양한 전시, 옥션, 특별이벤트가 이루어 졌으며 작품 판매가는 무려 두 배에 이르는 360백만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아시아 주간(Asia Week): 3.14.~3.22.
 -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갤러리들이 참여하였으며(47dealers)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리셉션 개최, 아시아갤러리들을 개방하여 큐레이터들이 관람객들과 주요 전시를 투어 함. 작품 판매가는 \$200million에 이룸

다. 2017년 Asia Week New York 개요

- 기 간 : 2017. 3. 9.(목) ~3. 18.(토)
- 참여기관 : 16개 미술관·박물관·문화원, 5개 옥션, 50개 갤러리
 - 주요 박물관 및 기관
 - 뉴욕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필라델피아박물관, 뉴웍박물관, 프린스턴 대학박물관, 한국문화원, Asia Society Museum, China Institute Gallery, Japan Society Gallery, Taipei Cultural Center 등
 - 옥션(5)
 - Sotheby's, Christie's, Bonhams, Doyle, iGavel

- 갤러리(50)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스위스, 영국,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 미술 갤러리
 - 50개 갤러리 중 Kang Collection Korean Art, Pace Gallery, HK Art&Antiques LLC, Michael C. Hughes LLC, Kaikodo LLC, Tina Kim Gallery, Priestley & Ferraro 등 7개 갤러리가 한국 미술을 취급하여 작년보다 참여 갤러리가 늘어남.
 - Kang Collection Korean Art는 미국 내 가장 오래된 한국미술 전문 갤러리로 미국 내 많은 박물관과 개인 컬렉터들에게 컬러티 높은 한국 전통미술품을 판매함.
 - Pace Gallery, HK Art&Antiques LLC, Kaikodo LLC, Tina Kim Gallery는 한국 현대미술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Pace Gallery는 Lee Ufan의 "*Ceramics*" 전을 개최하여 현지에서 호평을 받음. HK Art&Antiques LLC는 고려청자와 더불어 구본창 작가의 조선편자를 전시하여 한국 전통미와 현대적 재해석을 미국에 선보임.

○ Auction 현황 및 시사점

- 2016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미술이 압도적으로 전시, 판매 되었으며 회화, 도자기, 불상, 가구, 보석, 수석, Snuff Bottle 등 다양하게 선보임. 크리스티에서 개최된 일본 Fujita 박물관 소장품 경매에서는 13세기 그림 "Six Dragons"이 예상가 \$1,200,000~\$1,800,000의 거의 50배에 달하는 \$48,967,000의 낙찰가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중국 미술품들은 일본이나 한국 미술품에 비해 높은 낙찰률을 보임. 소더비 옥션 중국 미술 경매에 참석한 사람은 약 300여명으로 대다수가 중국인이며 70%가 2,30대의 청년층으로 보이며 30%가 40대 이상 장년층으로 보임. 미국 내 미술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 경제의 저력을 과시함.
- 일본 미술 옥션은 그림, 판화, 불상과 도자기가 주를 이루며 보넴(Bonhams)옥션에는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 중 90%가 미국인으로 보이며 미국인들의 일본 미술 애호를 다시 한 번 확인 함

- 한국 문화재는 이 기간 중 두 번의 옥션이 있었음. 1차는 보넴 옥션에서 일본미술품과 함께 14점이 경매되었는데 대부분이 회화로 이 중 작가미상의 금강산도와 신학권의 내금강 그림이 각각 \$35,000, \$140,000에 거래 됨. 2차 옥션은 미국 내 한국미술품 수집가 로버트 무어 컬렉션(The Collection of Robert W. Moore)으로 고려청자, 조선백자, 분청사기 등 도자기 42점, 그림 6점, 나전칠기, 불상 등 총 62점으로 구성 됨. 이 중 약 30여점이 판매되었으며 조선시대 10폭 지도 병풍화가 \$50,000로 경매되어 최고가를 보임
- 보넴 옥션 한국 문화재 경매에는 약 10여명 안팎의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인, 외국인 각각 반반으로 구성 됨. 한국 미술품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수요와 공급이 절대 희소함

○ 특별강연

국가	강연주제	발표자
한국	A Korean "Painter with Needles": Young Yang Chung and Art of Korean Embroidery	Lee Talbot, curator of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useum and the Textile Museum
일본	Amusements in a Samurai Mansion: Male Youths as Actors, Escorts or Outcasts in Early Edo Art	John T. Carpenter
일본	Kuniyoshi and Kunisada: A closer look	Joan Wright, Museum of Fine Arts Boston
중국	"Why the Seven Sages?"	Willow Weilan Hai
인도	Durga, the All-Powerful in Eastern India	Dr. Claudine Bautze-Picron

라. 시사점

- Asia Week 행사는 전통 미술과 현대미술 전시, 심포지엄, 강연, 워크숍, 옥션 등을 통하여 문화 정체성 및 우수성, 고유의 미를 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 2017년 Asia Week 행사는 여러 면에서 신기록을 보임.

참여컬렉터, 큐레이터, 전문가 750명, 참여 갤러리 50곳, 미술품 판매액은 \$423million으로 2016년 참여 인원 650명, 47개 갤러리, 판매액 \$130million에 비하면 9년 동안 최고치를 갱신함.

- 물론 2016년에는 국토안보수사국의 Christie's auction house, Nancy Wiener Gallery of Manhattan의 불법반출 문화재 압수로 옥션이 침체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최근 5년 평균 판매액이 \$213million을 감안하면 \$423million은 평균 2배 수준으로 미국 내 아시아 미술 시장 확장을 예측할 수 있음
- 한국 미술 시장도 작년에 비해 참여 갤러리도 증가하고 작품 수와 거래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일본에 비하면 시장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미국 내 한국 전통미술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관이 보다 협업하여 한국 전통 소재를 모티브로 한 현대 작가들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
- Asia Week 행사는 옥션과 더불어 강연이나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므로 미술품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미국 내 박물관, 문화원, 갤러리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 문화와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 일본은 2016년 Asia Week에서 인간문화재(Living National Treasures) 16명을 초청, 이들의 작품 판매와 무형문화재 소개에 성공하였음

2. Asia Week의 옥션 현황

Asia Week이 1990년대 소더비의 '3월 아시아 미술품 옥션 행사'에서 시작된 만큼 이 행사의 핵심은 당연히 옥션이다. 세계 각지에서 개인 컬렉터와 박물관들은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들을 팔거나 필요한 작품을 구입하고자 크리스티, 소더비, 보넴, 도일(Doyle), 아이가벨(iGavel) 등 옥션으로 몰려든다. 이들 옥션들은 이 기간 동안 옥션에 나온 모든 미술품들을 전시하는바 최상급 또는 희소한 작품들로 박물관 특별전 수준을 상회한다. 옥션은 컬렉터나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미술사 학자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작품을 실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전문가들로 붐빈다. 즉, 옥션이 단지 한 국가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와 전문적 지식 확산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들 옥션에서 한국미술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은 문화재 활용에 있어 매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아래에서는 2016년, 2017년 Asia Week 기간 중 크리스티, 소더비, 보넴 미국 3대 옥션에서 이루어진 아시아미술 옥션을 통하여 한국미술의 시장적 활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크리스티 옥션현황

(2017년)

국가	옥션내용		
	컬렉션	수량	가격
중국	일본 후지타 박물관(Fujita Museum) 컬렉션	31점	\$262,839,500
	중국초기 컬렉션(The Harris Collection)	88점	\$1,101,250
	중국 그림	123점	\$3,335,375
	Fine Chinese Snuff Bottles -The Ruth and Carl Barron Collection	180점	\$841,688
	도자기 등	289점	\$13,172,875
	소 계	711점	\$281,290,688
중국/일본	The Marie Thersa L. Virata Collection of Asian Art	86점	\$25,352,750
인도, 히말라야, 동남아시아	Indian, Himalayan and Southeast Asian Art	54점	\$26,139,750
합 계		851	\$332,783,188

(2016년)

국가	옥션내용		
	컬렉션	수량	가격
중국	중국학자 가구 및 소장품 The Ian and Susan Wilson Collection of Scholar's Objects	125점	\$2,243,625
	옥, 석조각	90점	\$3,729,812
	중국 그림	76점	\$5,236,875
	Fine Chinese Snuff Bottles	199점	\$989,750
	도자기 등	429점	\$18,497,000
	소 계	919점	\$30,697,062
인도, 히말라야, 동남아시아	Indian, Himalayan and Southeast Asian Art	122점	\$3,517,375
	히말리아 그림 -Van der Wee Collection	29점	\$648,500
	The Larihi Collection: Indian, Himalayan Art, Ancient and Modern	69점	\$2,376,500
합 계		1,139점	\$37,239,437

2. 소더비 옥션(Sotheby's)

(2017년)

국가	옥션내용		
	컬렉션	수량	가격
중국	Ming: The Intervention of Imperial Taste - 황실의 외교와 힘을 보여주는 엄선된 명 황실 도자기 컬렉션	14점	\$11,339,000
	그림 및 서예	153점	\$14,365,750
	Important Chinese Works of Art	250점	\$10,935,375
	소 계	417점	\$36,640,125
인도, 히말라야, 동남아시아	Indian, Himalayan and Southeast Asian -불교, 힌두교 종교, 장식 미술품	126점	\$4,718, 375
남아시아	남아시아 근대·현대 미술	58점	\$6,561,125
아시아	Asia works -중국, 일본, 인도미술품	572점	\$4,494,688
합계		1,173점	\$47,700,656

(2016년)

국가	옥션내용		
	컬렉션	수량	가격
중국	중국가구 The Reverend Richard Fabian Collection of Chinese Classical Furniture -명·청 황실 및 학자 가구	63점	\$5,521,625
	그림 및 서예 -북미와 아시아 개인 컬렉터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소장했던 작품 판매	224점	\$16,118,375
	Chinese Art from Caramoor Center for Music and the Arts /건륭제 시 황실 칠기 등	82점	\$2,360,177
	Important Chinese Works of Art -명·청 황실 도자기 컬렉션	204점	\$14,731,750
	소 계	573점	\$38,731,927
인도, 히말라야, 동남아시아	·Indian, Himalayan and Southeast Asian -불교, 힌두교 종교, 장식 미술품	191점	\$5,613,438
남아시아	남아시아 근대·현대 미술	111점	\$8,185,375
아시아	Asia works -중국 옥, 그림, 서예, 가구, 직물, 도자기, 일본 청동, 히말라야 청동, 조선 백자 및 고려 청자 2점 포함	354점	\$2,526,003
합 계		1,229점	\$55,056,743

3) 보넴(Bonhams)

(2017년)

국가	옥션내용		
	컬렉션	수량	가격
중국	그림, 조각 등	159점	청동 종 \$ 607,500
	Fine Chinese Snuff Bottles	142점	\$1,250~ \$ 45,000
인도, 히말라야, 동남아시아	Indian, Himalayan and Southeast Asian -불교, 힌두교 종교, 장식 미술품	150점	티벳금동주석 합금불상 \$487,500
티벳	Portraits of the Masters:108 Bronze Sculptures of the Tibetan Buddhist Lineage	100점	청동불상 \$ 727,500
중국/인도	The Zuiun Collection	70점	\$2,000~ \$45,000
한국/일본	한국·일본 그림, 도자기, 조각 중 7점이 한국미술 조선시대 청동 불상 \$812 작가미상 조선시대 불화 \$16,250 조선시대 문자도 그림 \$3,125 조선시대 申學權의 金剛內剛揔圖 \$175,000 조선시대 정선, 국화와 바위 \$50,000 조선시대 丁學教 바위와 난 \$1,500 조선시대 불화 \$1,000	318점	
한국	The Korean Aesthetic: The Collection of Robert W. Moore 조선시대 10폭 지도 병풍 \$50,000 고려청자 매병 \$27,500 -A small celadon copper-red glazed cosmetic stone ware Jar \$22,500 -조선시대 A gilt -lacquered stone figure of a Buddha, \$17,500 -분청사기 매병 \$11,250	62점	
합계		1,001점	

(2016년)

국가	옥션내용		
	컬렉션	수량	가격
중국	그림, 도자기, 조각 등	156점	청대 옥 화병 \$1,025,000
	Fine Chinese Snuff Bottles	102	\$1,000~ \$ 40,000
인도, 히말라야, 동남아시아	Indian, Himalayan and Southeast Asian -불교, 힌두교 종교, 장식 미술품	114	17C 티벳 불화 \$389,000
일본	그림, 도자기, 조각 등	209점	채색목불조각 \$75,000
합계		581점	

이상과 같이 미국 3대 주요 옥션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미술품은 중국미술품으로 그림, 도자기, 조각, 청동, 가구, 수석, Snuff Bottle 등 다양한 미디어가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문화재 옥션에는 경제적 투자 또는 반환의 목적으로 4~5백여 명의 중국인이 참가하였다. 일본 옥션 또한 다양한 문화재를 선 보였는바, 중국과는 달리 대다수가 일본인이 아닌 일본 미술 애호의 외국인이었다. 한국미술품 옥션에는 미국인 로버트 무어의 컬렉션이 나왔는데 그들 가족 외 5~6명이 옥션에 참여하여 중국, 일본, 인도옥션에 비해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VI. 미국 내 한국미술사

1. 미국 미술사 형성 및 발전 배경

미국 대학교에서 미술사는 19세기 후반 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동북부 대학 즉,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뉴욕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를 중심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여 미국 중서부 지역 대학으로 발전되어 갔다.

하버드 대학 에커만(James Ackerman) 교수는 “미국의 미술사학(Art History in America)” 논문에서 미국의 미술사학자를 다음과 같이 4세대로 구분하였다. 제 1세대는 19세기 말에서 제 1차 세계대전까지, 2세대는 이후 1930년대까지, 3세대는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그리고 1960년대 이후를 4세대로 보았다.⁷¹⁾ 미술사 강의가 시작된 1세대 시기는 미술작품에 대한 분석이 아닌 더 나은 감상을 위한 도구로 일반교양으로 시작하였으나 1912년 대학미술연합회(College Art Association) 설립과 1913년 Art Bulletin 창간은 북미 대륙의 미술사를 확산,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 1차 세계 대전 후 미국 미술사학자들과 독일, 영국 등 유럽계 미술사학자들과의 교류가 증진되었으며 미국 학생들이 유럽에서 유학하는 등 미국에서 “미술사”가 학문으로 기틀을 잡게 되었다.

2세대들은 신학, 철학, 고고학, 문학, 건축분야와 인접하여 미술사를 연구하였으며 중세와 르네상스 분야가 집중 연구되었다.

이후, 1930년대 나치의 유대인 축출정책을 피하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부터 페노프스키(Erwin Panofsky)와 윗코어(Rudolf Wittkower)와 같은 저명한 미술사학자들이 미국 대학으로 옮겨옴으로 미술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⁷²⁾ 특히 페노프스키는 1933년 나치가 모든 유대인 관리를 기관에서 축출하였을 때 교수직을 잃고 1934년 프린스턴 대학으로 옮겨왔다. 이후 뉴욕대학과 프린스턴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에 유럽미술사를 이식하여 미국 미술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제 3세대들은 르네상스와 현대미술에 집중하였으며 50년대에 대학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으며 제 4세대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서양미술이 중심이기는 하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미술 등으로 학문 영역을 넓혀 나갔다.

아래 도표는 1940년과 1954년 미국 50개 인문대학에서 학부생에게 개방된 미술사 과정 변화를 제시한 것으로 19세기 말에서 1940년 까지 약 50년 동안 유럽미술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 무렵 부터는 고전미술보다는 르네상스와 현대미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특

71) 김영나, “미국의 미술사학과 미술사교육”, 미술사학, 1987.6, p.45

72) Webster Smith, "Art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1950 to Present", *The Centennial Review*, Vol. 43, No. 2(Spring 1999), 316

히 30개 대학에서 64개 동양미술사 과정이 개설되었음을 볼 수 있다

미국 대학 미술사 과정 현황(1940년, 1954년)⁷³⁾

1940	강의 수	1954	강의 수	대학 수(1954)
고전미술	128	르네상스	106	43
중세미술	107	현대미술	104	44
르네상스	104	고전미술	72	35
바로크	56	중세미술	64½	41
현대미술	55	동양미술	64	30
미국미술	40	바로크	57½	36
		미국미술	44½	44
총계	490	총계	512½	

필자인 데이비드(David B. Manzella)는 동양미술사 개설 증가는 동양 문제에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접촉과 관여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즉, 15년 동안 미국 시민들은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근동 및 극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여한 수 천 명의 G.I.가 민간인 또는 대학으로 돌아가 아시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국 시민들의 동양 철학과 동양 미술에 대한 관심은 대학 내 동양미술사 과정 개설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계 각지에서 미국 부호들에 의해 대규모로 수집된 미술품들은 박물관 건립으로 이어졌으며 신사나 숙녀들의 일반 교양 함양으로 개설된 대학 내 미술사는 1930년대 전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으로부터 옮겨 온 유럽학자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보다 훨씬 방대한 미술품들과 도서관 자료는 미술사 발전을 촉진시켜 대학미술연합회(College Art Association)의 2015년 *Graduate Programs in Art History* 자료에 따르면 115개 대학에서 미술사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그리고 70개 대학에서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73) David B. Manzella, "The Teaching of Art in the Colleges of the United States: A Comprehension of Current Trends with Those of 1940", *College Art Journal*, Vol. 15, No. 3(Spring, 1956. p242,244

운영하고 있다.

미술사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박물관 큐레이터, 교육 부서나 리서치 부서 또는 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된다. 즉 미국 대학의 한국미술사는 곧바로 한국문화재 활용과 연구로 이어지므로 미국 대학 내에서의 한국미술사 위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대학 내 동아시아 미술사 석·박사 과정 프로그램 및 교수진 현황(10개 주요대학)과 대학미술연합회가 매년 발표하는 아시아 미술사 박사 논문의 3년간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미술사 석·박사 프로그램

하버드 대학의 동아시아 미술사 프로그램은 아시아 미술사와 건축사 그리고 일본미술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의 교수가 일본미술과 건축, 1명의 교수가 중국미술사 및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린스턴 대학은 2명의 교수에 의해 일본미술과 일본미술사, 3명의 교수에 의해 중국미술, 중국미술사와 중국영화 및 비교문학이 지도되고 있으며 한국 분야로는 한국영화와 문학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예일 대학교 미술사 프로그램에는 한국미술사는 없으며 일본미술사와 중국미술사가 연구되고 있다. 컬롬비아 대학의 동아시아 미술과 고고학 프로그램은 중국미술, 일본미술, 일본미술과 고고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의 교수들은 각각 이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UCLA 미술사 프로그램은 중국미술, 중국고고학 및 미술사, 인도 및 동남아시아 미술과 한국미술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미술사 담당 교수는 융만(Burglind Jungmann)으로 그녀는 독일인으로 하이델베르크와 서울대에서 동아시아 미술사 공부를 시작, 조선시대 그림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9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UCLA로 옮긴 후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으나 2017년 7월 은퇴를 하여 한국미술사계의 큰 손실이 예상된다. 미시건 대학교의 미술사 프로그램은 중국미술, 인도미술, 도자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캔자스 대학은 일본미술 2 강좌, 중국미술과 한국미술이 각각 1 강좌씩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미술 담당 교수는 마야 스틸러(Maya Stiller)로 한국불교미술 전문가이다. 중부지역에서 미술사가

강한 오하이오 주립대학은 아시아 미술, 남아시아 미술, 중국미술(2), 일본미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카고 대학은 중국미술 및 고고학, 중국 미술, 일본미술 및 고고학으로 나누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스탠포드 대학은 2명의 교수에 의해 중국미술이 지도되고 있다. 이상 미국에서 아시아미술사가 강한 10개 대학에서 아시아 미술사 석·박사 프로그램은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6개로 총 3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중국미술 15개 프로그램, 일본미술 11개 프로그램, 한국미술 3개 프로그램(한국미술2,한국영화와 문화 1), 인도와 동남아시아 미술사 3개 프로그램, 아시아 미술사와 도자기 프로그램이 각각 1개씩 개설되어 있다. 미국 대학 내 한국미술사가 극동아시아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박물관에서 한국 소장품 및 갤러리 비중과 거의 일치한다. 즉, 미국 내 한국미술품 부족은 한국미술사 연구 부진과 전문가 양성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다. 2017년 5월 포틀랜드 박물관에서는 송광사로 오불도(五佛圖)를 반환하였다. 송광사로 반환되기 전 열린 오불도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불교미술 전문가 마야 스틸러 교수는 오불도가 제자리를 찾아가 기쁘지만 학생들이 중요 연구 자료를 더 이상 실견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교수로서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동아시아 미술사 석·박사 프로그램 현황>

대학명	프로그램	교수	과 목	교수박사논문
하버드	동아시아 미술 프로그램	Yukio Lippit	미술 및 건축사 일본미술사	일본중세 및 근대초기 그림
		Melissa McCormick	일본미술과 문화	일본미술 및 건축
		Eugene Wang	아시아 미술	중국미술사 및 고고학

대학명	프로그램	교수	과 목	교수박사논문
프린스턴	동아시아 연구 프로그램	Shimizu, Yoshiaki	일본미술	일본 및 중국 그림과 서예
		Jerome Silbergeld	중국미술	중국미술사
		Wang, Cheng-hua	중국미술사	중국그림 및 시각문화
		Watsky, Andrew	일본미술사	일본미술사 -모모야마(Momoyama) 시기
		Chung, Steven	한국영화와 문화	한국 현대문화와 전쟁 후 영화 문화
		Huang, Luanfeng	중국영화와 비교문학	중국 영화와 역사
예일 대학교	미술사	Mimi Yiengpruksawan	일본미술사	일본 미술, 불교미술과 도상
		Richard Barnhart	중국미술사	중국풍경화 및 서예
콜럼비아	동아시아 미술과 고고학	Robert E. Harrist Jr	중국 미술(그림, 서예, 정원 등)	중국미술과 고고학
		Matthew McKelway	일본 미술	일본그림
		Jonathan Reynolds	일본미술과 고고학	일본미술사 및 고고학
UCLA	미술사	Robert L. Brown	인도, 동남아시아 미술	인도미술사
		Hui-shu Lee	중국미술	중국그림 및 근세 시각문화
		Burglind Jungmann	한국미술	조선시대 그림
		Lothar von Falkenhausen	중국 고고학 및 미술사	중국 청동기 고고학

대학명	프로그램	교수	과 목	교수박사논문
미시건	미술, 미술사, 디자인	Anning Jing	중국미술	
		Jae won Lee	도자기	
		Karin Zitzewitz	인도, 파키스탄 현대미술	
캔자스	미술사	Sherry Fowler	일본미술	일본불교미술
		Maki Kaneko	일본미술	일본근현대 미술사
		Maya Stiller	한국미술	한국불교미술
		Jungsil Jenny LEE (방문학자)	한국미술과 시각문화	한국근대문화
		Amy McNair	중국미술	중국미술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미술사	Julia Andrews	중국/일본미술	근현대 중국미술
		Christina Burke Mathison	중국/ 대만미술	중국/대만 그림
		John Huntington	아시아 미술	아시아 불교미술
		Susan Huntington	남아시아 미술	불교미술
		Namiko Kunitomo	일본미술	일본근현대미술
시카고 대학		Chelsea Foxwell	일본미술 및 고고학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미술 교류
		Wei-Cheng Lin	중국미술 및 고고학	불교미술 및 건축, 중국장례풍습
		Wu Hung	중국미술	초기 중국미술

대학명	프로그램	교수	과 목	교수박사논문
스탠포드		Jean Ma	중국미술	중국 영화, 소리, 역사
		Richard Vinograd	중국미술	중국 초상화, 풍경화와 문화 지형학 등

3. 미국대학의 아시아미술 박사논문 현황(2013~2015)

2013년도에는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미시건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등 9개 대학에서 13편의 박사논문이 통과되었다. 13편 중 대만화가의 미술세계를 다룬 1편을 제외하고는 12편이 중국미술에 관한 논문으로 불화, 그림, 서예, 영화, 미술가에서 현대 중국 큐레이터 전략에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100년 전 아시아 미술품 수집 초기, 미국 컬렉터들은 중국 그림을 “미술”로 보지 않았다. 중국그림에는 서구 그림의 중요한 요소인 원근화법과 명암법이 결여 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시간이 감에 따라 동양 미술을 이해하게 되어 중국 그림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 논문들 중에서도 중국 그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미술과 일본미술에 대한 박사 논문은 1편도 찾아볼 수 없다.

<2013년 미국 대학의 아시아 미술 박사논문 현황>

번호	분 야	논 문 제 목	대학교
1	중국 불교미술	“‘Seeing’ the ‘Ordinary’ at Lingyan Temple in Eleventh-Century China”	Michigan
2	중국 불교미술	“Descent of the Deities: The Water Land Retrea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Visual Culture of Song Dynasty (960-1279) Buddhism”	Harvard
3	중국그림	“Improvised a Great Age: The Creating of Qingming Shengshi (A Great Age Under a Benign Regim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4	중국 불교미술	“Younghegong: Imperial Universalism and the Art and Architecture of Beijing’s Lama Temple”	Kansascity

번호	분 야	논 문 제 목	대학교
5	중국 고고학	“Creating Visual Emblems for Eastern Zhou Militarized Frontier Societies (771–221 BCE)”	Pittsburgh
6	중국서예	“The Materiality, Style, and Culture of Calligraphy in the Northern Song Dynasty (960–1127)”	Boston
7	중국그림	“An Intimate View of the Inner Quarters: A Study of Court Women and Architecture in Palace Banquet	Princeton
8	중국 큐레이터 전략	“Navigating Floating Worlds: Curatorial Strategies in Contemporary Chinese Art 1979–2008”	Princeton
9	중국영화	“The Literati Lenses: Wenren Landscape in Chinese Cinema”	(Chicago
10	중국그림	“A Known World: The Pictorial Construction of Place in the Art of Shen Zhou, Wen Zhengming, and Lu Zhi”	IFA/NYU
11	대만그림	“Identity, Modernity, and Hybridity: The Colonial Style of Taiwanese Painter Chen Cheng-po (1895–1947)”	Ohio State
12	중국미술가	“Negotiating the Discourse of the Modern in Art: Pan Yuliang (1895–1977) and the Transnational Modern”	Michigan
13	중국그림	“Transtemporal and Cross-Border Alignment: The Rediscovery of Ming Yimin Ink Painting in Modern China, 1900–1949”	Ohio State

2014년도에는 스텐포드, 프린스턴, 캔자스시티, 샌디에고 UC, 버클리 UC 등 9개 대학교에서 12편의 박사논문이 통과되었다. 12편 중 9편이 중국미술에 관한 논문이며 1편이 동아시아 건축에 관한 논문이다. 반갑게도 캔자스시티 대학교에서 2편의 논문이 한·중 미술 비교 논문으로 조선시대 그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미술사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 중 한 명인 임수아씨는 2015년 7월 본인의 연구기관인 클리블랜드 박물관 일본미술·한국미술 큐레이터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Assistant Curator)로 채용되어 일본미술·한국미술 어소시엇 큐레이터 (Associate Curator) 업무를 보조하였지만 이후 한국소장품 조사, 한국 실 재개관, 책거리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국미술을 일본미술에서 분리, 현재는 한국미술을 전담하고 있다. 그녀의 채용 이후 클리블랜드 박물관 한국 전시관은 한국 문화와 미술을 제대로 표현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갤러리 통과 K-pop 행사 개최 등으로 한국문화 및 미술이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대학 내 한국미술사 발전은 박물관 및 문화기관의 한국문화재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미국 대학 내 한국 미술사가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014년 미국 대학의 아시아 미술 박사논문 현황>

번호	분 야	논 문 제 목	대학교
1	중국그림	“Drawing from Life: Mass Sketching and the Formation of Socialist Realist Guohua in the Early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65)”	Stanford
2	동아시아 건축	“Embracing the Circle: Domical Buildings in East Asian Architecture ca. 200-750”	Princeton
3	한국 및 중국그림	“Transnational Perspectives on Eighteenth-Century Court Documentary Painting in China and Korea”	Kansas
4	중국미술	“Abstract Art in 1980s Shanghai”	UC San Diego
5	한국 및 중국그림	“Traces of a Lost Landscape Tradition of the Early Joseon Dynasty (1392-1550): A Case Study of the Cross-Cultural Relationships in Korean and Chinese Paintings”	Kansas
6	중국미술	“Cartographic Empir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Maps and Mapmaking Knowledge in the Song Dynasty (960-1279)”	McGill
7	중국미술	“This Imperial Body: The Cultural Enterprise of Empress Dowager Cixi(1835-1908)”	UCLA
8	중국그림	Modernism Reoriented in a Chinese Context: Painting of Modernist Artists in Wartime Chongqing, 1937-1945”	IFA/NYU
9	중국미술	“Characters of Design: Writing and Materiality in Early China”	UC Berkeley
10	중국미술	“Ancient Methods and New Knowledge: The Art Market and Traditional-Style Painting Practice in Early Republican Beijing: 1911-1937”	UC San Diego
11	중국그림	“Tradition Revitalized: The Chinese Painting Research Society of Republican Beijing”	M a r y l a n d , College
12	중국미술	, “Technologies of Aesthetics: Art and Alchemy in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Chinese Art”	UC Berkeley

2015년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예일 대학, 시카고 대학, 프린스턴대학, 캔자스시티 대학, 하버드 대학, 보스턴 대학 등 14개 대학교에서 22편의 다소 많은 논문이 통과되었다. 22편 중 1편이 티벳 미술, 3편이 한국 불교미술, 한국 도자와 한국·일본 그림 비교에 관한 한국미술 주제 논문이다. 일본미술 주제 논문은 6편으로 일본 그림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며 나머지 14편은 중국미술 주제 논문으로 중국 전통 그림, 근대와 현대 그림에서 고대 청동 거울까지 폭 넓게 다루고 있다. 2015년 박사 논문도 중국미술 논문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티벳미술, 한국미술, 일본미술도 다루어져 극동아시아 미술 연구의 조화와 균형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미국 대학의 아시아 미술 박사논문 현황>

번호	분 야	논 문 제 목	대학교
1	티벳미술	“Putting Lhasa on the Map: 18-20th Century Depictions of the Capital’s Monuments	Ohio State
2	중국그림	“Painting Authenticity: Intersections in the Lives and Art of Zhang Yu, Huang Gongwang, and Ni Zan	IFA/NYU
3	한국 불교미술	Mireuksa, A Baekje Period Temple of the Future Buddha Maitreya”	Ohio State
4	일본미술	“Seeing the Things You Cannot See: (Dis)-solving the Sublime through the Paintings of Hiroshi Senju”	Graduate Theological Union, R. Nakasone
5	중국그림	“A New Imperial Landscape: Ritual, Representation, and Foreign Relations in the Qianlong Court (1735-1796)”	Yale
6	중국그림	“Qian Du (1763-1844) and the Senses in Early Nineteenth-Century Chinese Literati Painting”	Princeton,
7	중국미술	“Embodied Materials: The Emergence of Figural Imagery in Prehistoric China”	Columbia
8	중국미술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Contemporary Chinese Art in the Global Marketplace”	University of Alberta
9	중국 고고미술	“Mirrors from 500-200 BC Middle Yangzi Region: Design and Manufacture”	Princeton

번호	분 야	논 문 제 목	대 학교
10	중국미술	“Art’s Public Lives: Sculpture in China After 1949”	Michigan
11	중국미술	“Cartographic Empire: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Maps and Map making Knowledge in the Song Dynasty (960–1279)”	McGill
12	일본, 한국미술	“Representing Difference: Early 20th-Century Japanese and Korean Art”	Chicago
13	중국 현대미술	“Re-Imaging China: Ai Weiwei and Contemporary Chinese Art”	Iowa
14	중국 근대미술	“The Writer’s Art: Tao Yuanqing and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Design (1900–1930)”	Harvard
15	일본그림	“Ink Painting in Medieval Kamakura	Columbia
16	한국도자	Cultural Essence and National Ceramics: The Formation of the Korean Folk Art Museum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Boston,
17	중국 및 일본그림	“Entangled Modernities: The Representation of China’s Past in Early Twentieth-Century Chinese and Japanese Painting”	Chicago
18	중국미술	“Imagining the Supernatural Grotesque: Paintings of Zhong Kui and Demons in the Late Southern Song (1127–1279) and Yuan (1271–1368) Dynasties”	Columbia
19	중국미술	, “Woven Paintings, Woven Writing: Intermediality in Kesi Silk Tapestries of the Ming (1368–1644) and Qing (1644–1912) Dynasties”	Columbia
20	중국미술	“Localizing National Art in Maoist China: The Chang’an School of Ink Painting, 1949–1976”	Ohio State
21	일본미술	“Casting a New Design: The American Silver Industry and Japanese Meiji Metalwork, 1876–1893”	Kansas
22	일본미술	“The Tōji Screen and the Historiography of Yamato-e”	Yale

미국 내에서 한국에 관한 정치, 경제, 종교, 언어, 역사 및 문화, 미술에 관한 학문, 즉 한국학은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하여 역사가 짧다. 중국학은 이미 10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일본학도 메이지 유신이

후 시작되었으나 한국학은 한국 전쟁 이후 즉 1950년 60년 이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높아진 경제 위상과 한류 열풍으로 미국 내 한국학은 성장기에 있다. 동부의 하버드 대학교와 컬럼비아대학교, 서부의 스탠포드대학교, UC 버클리대학교, 하와이 대학교, USC, UCLA, UC 샌디에고, 중부의 미시건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가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 또는 한국학을 개설하고 있다. 그 중 USC, UCLA, 미시건대학교 한국학 연구소가 리더 격으로 특히 1995년 1명의 한국학 교수로 설립된 USC 한국학 연구소는 2017년 1월 현재 7명의 교수로 확장되었으며 매년 25명~30명이 학생이 한국학 관련 논문을 준비할 정도로 한국학은 성장하고 있다.⁷⁴⁾ 또한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은 로스앤젤레스의 UCLA 아시아문화학과 또한 한국학자 0명에서 시작하여 한국학자는 6명으로 성장, 55개의 학부와 22개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의 불교학, 역사학, 언어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위에서 살펴보았듯 동아시아 미술사 부문에 있어 한국미술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제 7차 KF 포럼에서 북미 아시아학회 회장 버스웰(Robert E. Buswell)은 “미국 내 한국학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발표에서 한국학의 ‘근대 시기에 대한 연구 집중’ 경향을 우려하며 한국학 전공자들에 대한 세심한 육성이 없다면 전근대 전공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고 다음 세대까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동아시아학과는 중국학으로 시작되었고 몇몇 중국 프로그램은 100년의 역사를 잇고 있으며 일본학은 1990년대 중국학과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중국 경제성장으로 중국이 세계무대에 급부상하면서 중국학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진단대로 미국의 저명한 10개 대학에 개설된 34개 동아시아 미술사 석, 박사 프로그램 중 15개 강좌가 중국 미술, 11개 강좌가 일본미술이며 한국강좌는 3개 강좌에 머무르며 지난 3년간(2013~2015년) 미국에서 통과된 동아시아 미술사 박사 논문 총 47편 중 35편이 중국미술, 6편이 일본미술, 5편이 한국미술이었다. 이에 한국 미술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미술사 학자와 외국 미술사학자와의 폭 넓은 교류가 필요하며 미국의 지식층

74) ‘미국내 한국학’메카를 찾아서, 한국일보, 2017.1.1

과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한국의 학문적 성과를 영어로 출판 보급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 대학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한국미술사 교재가 시급하며 미국 강단에서 한국미술사를 가르칠 새로운 세대의 학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 2장. 문화재 반환 국제규범 및 미국법제

오늘 날 박물관은 어느 나라에든 존재하며 각국은 박물관의 양적 팽창 및 질적 성장을 위해 자본, 인력, 기술 등을 경쟁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박물관은 한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재인 미술품(문화재) 수집, 보존, 전시, 교육을 담당하며 국가 브랜드 형성 및 제고의 중요한 축이다. 16세기와 17세기 초 박물관이 일찍이 설립된 유럽 박물관들은 귀족과 학자들을 위한 컬렉션에서 시작하여 18세기, 19세기에는 전쟁이나 침략으로 상대 국가들의 문화재를 대량 약탈, 수집하였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은 19세기 제국주의 팽창시기에 식민지나 약소국들로부터 문화재를 약탈하거나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이용, 문화유산이 풍부한 나라의 유적지를 직간접적으로 도굴, 비윤리적,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국 박물관을 확장하였다. 미술 제국주의(Art Imperialism)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서부터 나폴레옹의 유럽 원정 시 이탈리아나 이집트 등 고대 미술품 약탈, 독일 나치의 유대인 미술품 약탈, 유럽 열강들의 중국 유적 및 문화재 약탈, 일본 및 프랑스의 한국 문화재 약탈 등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졌으며 오늘 날에도 진행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독립국들은 독립과 동시에 자국문화 정체성, 상징성, 통합성 등을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신생독립국들은 개발도상국이자 문화유산이 풍부한 국가들로 약탈된 문화재 반환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이 문화재 반환 운동으로 세계는 문화재 기원국가들의 '문화 국가주의(Cultural Nationalism)'와 보유국가들의 '문화 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로 양분되어 반환운동은 반환전쟁으로까지 가열되고 있다.

또한 과거 식민지 시대 문화재 약탈과 더불어 근래에는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자 문화재 기원국가로부터 문화재가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되어 시장국가로의 밀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규범, 조약 및 협정, 국내법 등 수많은 법규와 세계박물관협의회(ICOM), 문화재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ICPRCP,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와 같은 기구와 조직들이 탄생하였다. 본고에서는 국제적 문화재 보호와 반환에 관한 국제규범, 미국 법제와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 법적, 정치·사회적, 문화적 환경 내에서 효율적 문화재 반환 정책을 유추하고자 한다.

I.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환경

오늘 날 우리는 세계 여행 시 여행 국가의 대표적 박물관 한두 군데를 방문한다. 박물관을 통해서 그 나라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의 우수 박물관들은 자국의 미술품보다 오히려 세계 각 국으로부터 획득한 문화재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루브르 등 프랑스 박물관들은 나폴레옹 원정 시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등으로부터 획득한 전리품으로 박물관을 채우고 있으며 영국 박물관의 경우 엘긴 마블스로 유명한 그리스 파르테논 대리석상과 고대유물, 이집트의 로제스타 스톤(Rosetta Stone)이 대표적 유물이다. 독일박물관을 보자면 이집트의 네페르티티(Nefertiti) 흉상이 유명하며 미국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필두로 프리어 갤러리, 보스턴 박물관, 시카고 박물관, 클리블랜드 박물관, 샌프란시스코 박물관, 넬슨 앳킨스 박물관 등 많은 박물관 들이 수천 점에서 수만 점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문화재들이 불법적, 비윤리적, 비과학적 방법으로 옮겨졌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중심으로 보유국들에 대한 문화재 반환 요청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의 문화재반환 목소리는 마침내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얻어 1970 UNESCO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979년에는

‘대체불가 문화유산의 원 소유 국민에게 반환을 위한 간청(*A PLEA for the Return of Irreplaceable Cultural Heritage to those who created it*)’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문화재 반환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UNESCO 위원회와 문화재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와 같은 조직들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이들 보유국들의 반환 운동은 곧 보유국가들의 저항과 반대운동에 부딪히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 유럽과 미국 거대 박물관들은 *세계 박물관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Universal Museums)*⁷⁵⁾을 발표하여 이들 박물관 보유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합리화 하였다.

이러한 보유국들의 비협조 속에서 문화재 기원국가들은 그들의 상징이자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며, 때로는 법적 공방으로 또 때로는 자국의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예로 이집트는 제국주의 시대에 약탈되어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박물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반환 받기 위해 이들 박물관들과 소송 중에 있으며 그리스는 영국 박물관으로부터 엘긴마블스를 돌려받고자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 강탈된 유럽인들의 미술품 반환 소송이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로부터 악숨 오블리스크(Axum Oblisk)를 반환받았다. 미국 내에서는 NAGPRA법(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에 의해 미국 원주민 문화재가 원주민들에게 반환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이집트의 독일국립박물관에 네페르티티 흉상(Nefertiti Bust) 반환요청과 그리스의 영국박물관에 엘긴 마블스(Elgin Marbles) 반환요청 사례로 국제적 반환 환경을 알아보려고 한다.

75) 이 선언에 서명한 박물관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보스턴 박물관, 시카고 박물관, 클리블랜드 박물관, 폴 게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솔로몬 구겐하임 박물관, 뉴욕 현대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필라델피아 박물관과 영국 박물관, 독일 베를린 국립박물관, 바이에른 주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스페인 프라도 박물관, Thyssen-Bornemisza 박물관, 네덜란드 Rijks 박물관, 러시아 예르미타시 박물관이다.

1. 이집트의 네페르티티(Nefertiti) 흉상 반환 요청

이집트는 1924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0년 동안 독일에 네페르티티 흉상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네페르티티는 이집트 18대 왕조 파라오 아크나톤(Akhenaten)의 왕비이자, 투탕카멘의 장모이자 계모로 이집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네페르티티 흉상은 기원전 1340년 경 석회 채색의 48cm 실물크기 흉상으로 그 이름, 네페르티티(Beautiful One has come, 미인이 돌아왔다)대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흉상은 현재 이집트가 아닌 독일 노이에스 박물관(Neues Museum Berlin)에 전시되어 있으며 이집트는 박물관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 흉상의 발굴과 전시, 반환요청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집트에서 독일 고고단체, *German Orient Society*는 1911년부터 1914년에 걸쳐 기원전 14세기 이집트 궁정 도시 아마르나(Amarna)를 발굴하였다. 당시 발굴은 파르타지(Partage)⁷⁶⁾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발굴허가권은 독일 상인이자 박물관 후원자인 사이몬(James Simon)이 가지고 있었으며 발굴은 당시 카이로의 이집트 고고학 독일황립연구소 소장이었던 독일 고고학자 루드비히 보르하르트(Ludwig Borchard)가 주도하였다. 흉상은 1912년에 발견되어 발굴 허가권 보유자 사이몬이 가지게 되었으며 1920년 사이몬은 이를 프러시아 제국(Prussian State)에 기증하였다. 그 후 4년 후 1924년, 베를린 내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이집트는 즉시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집트는 1883년 고대유물과 기념물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그 예외 사항으로 파르타지 발굴시 발견된 유물은 이집트 정부와 발굴참여기관이 동등한 가치로 나누며 이후 이집트 정부는 발굴자에게 귀속된 유물을 재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집트의 반환 요청 근거는 그 당시 발굴이 이집트 법에 의해 적법하게 시행되었으나 유물 분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그 가치가 동등

76) 파르타지(Partage)는 분배, 할당(Division, Share)의 뜻으로 유물원천국과 고고기술과 자본을 가진 외국 고고학단체가 협력하여 발굴 후 발견유물의 가치를 이등분하여 나누어 가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된 국제적 발굴제도로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많은 고고학자가 참가하였다.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즉, 발굴을 이끈 보르하르트가 여왕 흉상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석고를 덧 씌어 독일로 반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발굴 후 10년 뒤 보르하르트의 발굴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궁정조각가 투르모스(Thutmose)의 공방에서 실물 사이즈의 채색 여왕 흉상 발견당시의 흥분과 장시간 진행되었던 조심스러운 발굴과정과 기록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 기록으로도 그들이 네페르티티의 가치를 알면서도 이집트 측에 알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집트는 여러 문헌적 증거로 독일에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독일은 운송 과정 중 손상과 여러 이유를 대며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집트는 독일이 이 흉상을 불법적으로 획득,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네페르티티에 대한 접근, 특히 이집트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며 독일의 여전한 제국주의적 행태를 비난하였다.

1924년 네페르티티 여왕 흉상 반환 요청이 시작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반환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에서 후술할 그리스의 엘긴 마블스 반환 요청도 1832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재 환수에 대한 정책과 시각이다. 우리는 환수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그리고 상대방 국가의 법적,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환수가 몇 점 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국외소재 문화재가 마치 모두 환수의 대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현재 국외소재 문화재는 약 17 만점으로 파악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도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 내 공공박물관, 대학박물관 그리고 개인 소장가 컬렉션이 제법 있었다. 하지만 이들 국외소재 문화재는 수집 과정과 컬렉션 퀄리티가 최상급에서 박물관 전시용으로 부적합한 퀄리티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즉, 문화재 환수는 당장 1, 2년 만에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국외소재 문화재 모두가 환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그 문화재의 가치가 상당할 때는 소장 박물관으로 부터의 저항은 강하다.

효율적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먼저 환수 대상 문화재를 정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논리적,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일본문화재나 중국문화재에 대한 수집사나 개인 컬렉터에 대한 기록은 영수증, 일기에서부터 전문 문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면 한국문화재에 대한 수집사나 환수 근거 자료는 아주 미미하다. 국외소재문화재, 유물 자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수집자나 수집과정, 수집사에 대한 세부적 자료 수집과 기록, 출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그리스의 엘긴 대리석상(Elgin Marbles) 반환요청

엘긴 마블스 반환은 당사국 그리스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로 반환 찬반 관련 기관들의 입장과 논리적 근거는 물론 여론 또한 분분하다. 엘긴 마블스가 영국으로 옮겨진 과정부터 반환 운동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엘긴 대리석상으로 알려진 파르테논 석상이 그리스에서 영국으로 옮겨진 당시 그리스는 튀르크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엘긴 백작(Thomas Bruce, 7th Earl of Elgin)은 1799년부터 1803년간 오스만 투르크 제국(Ottoman Empire)에 영국 대사로 재임하고 있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일제치하의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문화 유적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으며 신전은 거의 방치되어 있었다. 평소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엘긴 백작은 파르테논 신전과 조각상의 아름다움에 반해 이들을 스케치하거나 주형 제작 목적으로 파르테논 신전 접근권을 취득하여 미술가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작업을 추진하면서 마침내 신전 일부를 영국으로 옮겨가기로 작정, 조각품들을 신전에서 뜯어내었다. 그가 옮긴 것은 17개의 환조와 15개의 메토프(사각형의 부조 장식), 75m 길이의 프리즈(띠 부조)로 신전의 중요한 부분들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74,270파운드를 사용하여 파산 지경에 이르러 영국 박물관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당시 구매를 놓고 의회와 국민들 사이에서 팽팽한 찬반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대리석상들의 역사적, 문화적 상징이나 중요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외형의 아름다움에만 집착한 예술가 그룹은 파르테논 대리석상을 고대미술의 가장 아

름다운 작품으로 간주, 구매할 것을 적극 피력하였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마블 획득 방식의 비정직과 비도덕성이 영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였다. 하지만 투표 결과 찬성 82표, 반대 30표로 엘긴 백작이 제시한 값의 약 50%인 3만 5천 파운드에 구매되었으며 이 후 그리스 파르테논 대리석상은 영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1832년, 그리스는 터키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이 되었다. 독립과 동시에 그들은 아크로폴리스 재건에 초점을 맞추어 파르테논은 그리스의 국가적 상징이 되었고 곧 마블 반환 요청을 하였다. 이는 즉시 그리스와 영국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특히 영국은 반환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양분되었다. 영국의 많은 그룹들이 반환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영국의 국민 시인 바이런은 엘긴 마블에 대한 시(詩)를 발표하여 엘긴의 비도덕적, 착취적 행동을 비난하며 그리스의 반환 열망을 대변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그리스는 영국과 함께 나치와 맞서 싸웠다. 영국은 그리스 참전을 인류 문명 수호의 의지로 간주, 전쟁이 끝나면 기증 형식으로 돌려주기로 내부적 합의를 보았으나 그 약속은 박물관 등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영국 박물관장 윌슨(David Wilson)은 엘긴 대리석상 반환은 세계인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제 문화 기관으로서의 영국 박물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반환에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하지만 박물관 입장에 반대하는 파르테논 대리석상 반환 영국 위원회(British Committee for the Restitution of the Parthenon Marbles)는 파르테논 대리석상은 그들 영혼의 집, 그리스에 재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였다.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 메르쿠리(Melina Mercouri)를 대표로 한 그리스정부는 최초로 반환 요청을 공식 제기하였다. 그녀는 반환 공식 요청에서 아래와 같이 호소하며 파르테논 대리석상은 단순히 미적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 역사와 그리스 국민들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스 마블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신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자랑스러워할 것

이며 우리가 잘 관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상징이고 피이자 영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들은 우리에게 고대 그리스인들의 훌륭한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기념비적인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은 호소문과 상관없이 1984년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박물관 구입은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시효가 지났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 요인과 지진 오염과 같은 자연적, 환경적 요인으로 영국 박물관 소장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그리스 측의 반환 요청 근거는 엘긴의 대리석상 이동은 불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엘진이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사용하였으며 한 국가의 국가 재산을 한 개인 관료가 양도할 수 없다는 것, 현재 남아 있는 허가문서는 이탈리아 본으로 원본이 없다는 것, 이것은 문서의 진위성에 의문이 있으며, 엘진이 단지 예술적 활동 범위내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조각을 신전에서 파괴 분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영국으로 옮겼다는 것, 영국 의회가 구매 결정을 놓고 충분히 문서 진위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⁷⁷⁾

그리스는 2004년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반환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2002년 유럽과 미국의 30여개 박물관들이 발표한 ‘세계 박물관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importance and value of Universal museums*)’의 여파로 보여진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적 박물관은 고고학적, 미술적, 민족지학적 물품들의 불법적 거래는 근절되어야 한다는데 신념을 공유한다. 그러나 오래전에 획득된 미술품들은 그 당시 가치와 인식, 기준과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수십 년, 수 세기 전에 유럽과 미국에 소장, 전시된 미술품들은 지금의 기준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랜 시간을 통해 구매, 기증, 파르타지(*Partage*) 등의 방법으로 획득된 미술품들은 이를 보존, 보호하는 기관의 한 부분이며 문화유산의 일부분이다. 국제적 박물관들은 자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 대중의 미술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 예로 그리스 미술은 유럽과 미국 전체에 확산되었으며 이들 박물관에서의 그리스 미술품 전시는 인류사에 있어 그리스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77) Jeanette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p85, 2007

미술품 반환은 오랫동안 박물관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반환에 대한 각 케이스가 독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박물관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닌 전 세계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선언에 서명한 박물관들은 문화 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의 대표적 기관들이다. 엘긴 마블스 반환 운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정부는 엘긴 마블스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세세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대리석상 반환에 대해 영국 국민으로부터의 지지가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고학 그룹과 문화사회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엘긴마블스 반환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즉, 문화재 환수는 윤리적 호소에 앞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으로 논리적 자료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종교 및 문화교류를 통하여 상대 국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반환 당위성을 확산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집트의 네페르티티 여왕 흉상과 그리스의 엘긴 마블스 반환 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이들 두 국가가 보다 확실하고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환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국제 박물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이 2건의 미술품 반환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반환 요청은 줄을 이을 것이며 언젠가 그들 박물관은 대표 미술품들을 잃고 국제적 박물관으로서의 명성 또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II. 문화재 보호 국제적 노력

1. 문화재 불법거래 현황

문화재는 그 자체의 역사적, 경제적, 심미적 가치로 시대를 막론하고 도난과 약탈의 대상이 되어왔다. 식민지의 무수한 유적지가 제국열강에 의해 도굴, 약탈되었고 수많은 고대유물들이 유럽, 북미, 아시아 미술시장이나 박물관으로 불법으로 유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대에 들어서는 문화재 도난, 불법 도굴, 불법반출 및 밀매가 극성을 이루어 문화재 반환의 또 다른 이슈가 되었다.

196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국가의 문화유적지, 종교 기관과 박물관에서 도굴이나 도난 된 문화재나 미술품들이 유럽이나 미국 미술시장으로 대거 흘러들어 왔다.

1969년 코킹(Clemency Coggings) 박사는 “선사 콜럼비아 고대유물의 불법 거래(*Illicit Traffic of Pre-Columbian Antiquities*)”에서 “최근 10년 동안 국제미술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테말라와 멕시코에서 기념물들이 절단, 파괴되어, 불법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16세기 이후 무자비하게 약탈되고 있다.” 고 개탄하였다. 그녀의 출판은 최근 미술 시장에 있어 불법거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이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⁷⁸⁾ 왜냐하면 이들 기념물들은 절단 없이는 이동이 불가하여 톱이나 해머,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잘리거나 부서진 채 미술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원천국가 문화유산의 물리적 훼손과 더불어 문화재의 통합적 미와 역사적 지식이나 정보를 복구 불가능 상태로 만드는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이러한 고고유적지와 공공기관, 개인 컬렉션으로부터의 문화재(미술품) 도난은 전 세계의 문제로 1972년과 73년 인터폴은 문화재 범죄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23개국을 발표하였는데 유럽 13개국, 아프리카 2개국, 북미 1개국, 남미 5개국, 아시아 5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고고학적 문화유산이 풍부하거나 이들 문화재가 국가소유라는 것이다. 또 다른 보고로는 코스타 리카(Costa Rica)는 유적지 95%가 도굴꾼에 의해 약탈되었으며 1960년대 멕시코나 과테말라의 마야미술이 도굴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문명화 기록들이 훼손, 사라진 채 미국 박물관으로 흘러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에서는 1977년과 1979년 사이 3,000건의 고대유물 절도가 보고되었으며 이중 단지 10건이 해결되었으며 유네스코는 1979년과 89년 동안 50,000여건의 미술품이(문화재) 인도 밖으로 밀수되었다고 밝혔다.⁷⁹⁾

이러한 문화재 불법 도굴, 도난 및 불법 유출과 더불어 전쟁과 같은 무력충돌, 테러집단의 문화재 파괴 등은 국가적, 국제적 문화재 보존 및 보호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탈레반(Taliban)과 같은 테러 조직에

78) Paul M. Bator, "An Essay on the International Trade in Art", *Stanford Law Review*, Vol. 34, No. 2(Jan., 1982), p277, 278

79) Jeanette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2007, p246-247

의한 문화 테러리즘(Cultural Terrorism)은 인류 문화유산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한 예로⁸⁰⁾ 2001년 2월 아프가니스탄은 “우상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 모든 비 이슬람 성전과 조각상들을 파괴할 것을 명하였다. 이들은 알라만이 유일한 신(神)이라며 그 외는 우상으로 이들은 모두 파괴되어야만 하고 이들에 대한 숭배는 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유네스코는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즉각 파키스탄, 이집트, 이라크 등 무슬림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고자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였다. 또한 무슬림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지도자에게 코란은 동상 파괴를 권하지 않았다고 만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정치적, 종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바미안(Bamiyan) 석불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조각들에 폭격을 가하여 파괴하였다. 파괴된 바미안 석불은 38m와 55m의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석불로 아프가니스탄 정체성의 주요한 한 부분이었다. 이들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중요한 고고유적과 역사의 한 부분을 잃었으며 세계인들은 인류문명의 한 부분을 영원히 잃었다. 바미안 석불은 우리나라의 석굴암 같은 문화재로 이 파괴가 얼마나 끔찍한지 상상할 수 있다. 탈레반들은 파괴 이후 조각품들을 국제미술시장에 팔고 있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이 1954년 헤이그 조약이나 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비 보호대상으로 미술시장에서 제재 없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레반의 아프간 유적 파괴 후 유네스코는 *2003 UNESCO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선언으로 무력충돌 시 그리고 평화 시의 문화재 파괴 방지에 대한 대책 강화와 각국의 세계문화유산 보존, 보호에 대한 책임과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는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이집트 등으로 부터의 문화재 약탈,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국가로 부터의 약탈, 히틀러의 유대인 미술 및 도서 약탈에서부터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문화재 도굴 및 불법매매, 아프가니스탄과 같

80) Jeanette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2007, p352-353

은 국가적 문화재 파괴행위와 남대문 소실과 같은 개인에 의한 문화재 파괴행위에 까지 문화재는 수난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와 각국들은 자국과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기 위하여 법령과 제도,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문화재 국제적 보호 및 반환에 관한 대표적 국제협약, 1954년 헤이그 조약, 1970년 유네스코 협약,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과 최근 2011년 유네스코가 개최한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이후 40년 평가 및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재보호 국제규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여기에서는 2차 세계 대전 후 체결된 1954년 전시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1954년 Hague Convention*)과 1970년 문화재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1970년 Unesco Convention*)과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에 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1. 1954년 헤이그협약: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제 2차 세계대전 시 문화유산파괴는 유네스코로 하여금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 실패를 보완하며 전시 보호법 강화를 촉구하였다. 이들 두 협약은 부분적으로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이들 단편적 조항은 제 1차 대전과 제 2차 대전의 문화재 파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7년의 준비 작업을 거쳐 1954년 채택된 유네스코 헤이그 협약은 최초로 문화재보호에 중점을 둔 전문적 국제 협약으로 문화재보호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1977년 제 1 의정서와 1999년 제 2 의정서를 거치면서

보다 발전되었다.

이 협약은 전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전시에 한정되며 문화재를 기원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중요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즉, 문화 국제주의적(Cultural Internationalism) 협약으로 국제전이나 내란을 불문하고 무력 충돌 시 문화재 파괴를 금지하며, 문화재의 소유에 있어서도 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⁸¹⁾

*문화 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와 문화 국가주의(Cultural Nationalism)는 문화재 소유권 논쟁과 관련 예술법학자 존 메리맨(John Merryman)에 의해 창의를 문화국가주의는 문화재는 만들어진 장소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며 한 국가의 문화재는 그 문화재를 창조한 국가에 귀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 이집트, 중남미국가 등 문화재 반환을 주장하는 국가들의 입장이다. 반면 문화국제주의는 문화재가 특정 문화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으로 원산지 국가가 아니더라도 문화재를 유지하고 보존할 더 나은 환경의 국가가 문화재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국제주의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과거 제국주의시기에 문화재를 획득한 국가들의 입장으로 그들 국가의 대형 박물관이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감상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재 보존 기술과 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협약의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서문에서 “모든 민족이 세계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어떤 민족에 속한 문화재인지를 불문하고 문화재의 손상이 전 인류의 문화유산의 손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신하며.....”라고 각 국의 문화유산이 인류 전체 문화유산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협약에 비해 문화재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제 1조에서 보호대상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 1조) 문화재 정의

이 협약상의 “문화재”는 그 출처 및 소유권에 관계없이 다음을 포함한다.

(a)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성격을 불문한 건축이나 예술, 역사적 기념물; 고고학 유적지; 역사적 혹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건물의 집단 전체 예술작품;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중요성을 가지는 원고나 책을 비롯한 물건 과학적 수집물과 상기 규정된 문화재에 관한 서적이나 기록문서, 복제물 등의 중요한 수집물 등과 같은 모든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큰 중요성을 가지는 동산이나 부동산

81) 2013 유네스코 정책연구 보고서, p47

(b) 박물관과 대형 도서관, 기록물 보관소 등과 같이 가목에서 정의된 동산 문화재의 보존과 진열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나 무력충돌 시 가목에서 정의된 동산 문화재를 대피시키기 위한 보호시설 (c) “기념물 다량 보유지역”이라 일컫는, (a)목과 (b)목에서 규정하는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는 지역

제 2조에서 제 4조는 국제적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각 국들로 하여금 평시의 문화재 보호와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존중의 조치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평상시 체약국들은 고고학적 발굴 및 그 대상물의 대피 방안; 문화재 복구 작업; 문화재 목록의 작성과 그 식별 및 묘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연구; 동산문화재의 보관; 절도, 약탈,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포장, 피난, 수송 등 무력충돌 시 취하여야 할 특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무력충돌 시 문화재존중을 위하여 체약국들은 자국 영토 및 타국 영토 내에 있는 문화재를 존중하여야 하며, 문화재와 그 인접시설 및 그 보호 장비들을 파괴 또는 훼손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문화재에 대하여 여하한 적대행위도 삼가야 한다.

체약국들은 모든 형태의 문화재의 절도, 약탈, 절취, 파괴 행위를 금지,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타 체약국의 영토 내 동산 문화재를 징발할 수 없다. 체약국은 문화재의 어떠한 보복 행위도 금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들 의무는 긴급한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둬으로써 “군사적 필요성”을 교전당사국들의 자의적 해석에 맡김으로 남용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제2의 정서는 제6조에서 군사적 필요성의 원용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특별보호를 규정하여 무력충돌 시 동산문화재의 대피 시설, 중대한 가치를 지닌 기념물 집중구역, 기타 극히 중요한 부동산문화재에 대해 특별 보호를 적용 이들은 어떠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적대행위도 금지된다.

2017년 8월 현재 가입국은 124개국으로 중국은 2000년 승인(Accession), 일본은 2007년, 미국은 2009년 비준(Ratification)하였으며 한국과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그동안 헤이그 조약은 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같은 큰 전쟁 후의 조약으로 이 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동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문화 테러리즘, 시

리아전 등을 겪으면서 이 조약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2-2. 1970 유네스코 협약(1970 UNESCO CONVENTION)

1960년대부터 신생독립국들은 그들 문화유산의 한 부분이었던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1954년 헤이그 조약은 이러한 국가 간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마침내 유네스코는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4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방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Export, Im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를 채택하고 1970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Unesco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즉, 1954년 헤이그 협약이 전쟁이나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범인 반면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평상시 자행되는 고고유적지 약탈과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호 최초 국제법이다. 또한 1954 헤이그 조약이 문화재의 “문화 국제주의” 적 보호라면 1970 유네스코 협약은 기본적으로 문화 국가주의적 입장에 치중하고 있는바, 이는 1960년대 문화재 원천국가들의 자국 문화재 보호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 협약의 전문을 살펴보면 이 협약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법을 알 수 있다.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며, 그 참된 가치는 그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하여서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함(문화 국가주의적 시각)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자국에 부과된 책임임을 고려함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문화 유산과 다른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도덕적 의무감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여 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함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들은 그 수집품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수집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함을 고려함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국가 간의 그러한 이해에 장애가 되며, 관계국가에 이러한 목적으로 국제협약을 권고함으로써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사명의 일부분임을 고려함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 간에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직화됨으로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함

위에서 보듯,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원천국가로 하여금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 방지를 위하여 모든 문화재의 기록화, 목록작성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며 시장국가로 하여금 합법적 수집과 기원국의 문화재 반환 요청에 적극 협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문화재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인류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1조 문화재(Cultural Property) 정의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1954년 헤이그협약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다.

UNESCO협약 제1조 : 본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a.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b. 과학, 기술 및 군사의 역사와 사회사를 포함하여 역사와 관련되고 민족적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및 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c. (정규적 또는 비밀리의) 고고학적 발굴 또는 고고학적 발견의 산물 d.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 유적의 일부분 e. 비문, 화폐, 판각된 인장같은 것으로 백년 이상의 골동품 f. 인종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g. 미술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 i. 어떤 보조물의 사용 또한 어떤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및 도화(손으로 장식한 공업용 의장과 공산품은 제외) ii.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상 및 조각물의 원작 iii.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작 iv.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아지의 원작 h.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문학적 등으로) 특별히 중요한 진귀한 고판본, 필사본과 고서적, 고문서 및 고출판물 i.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 우표, 수입인지 또는 유사 인지물 j.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을 포함한 고문서 k. 백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하지만 이는 문화재 범주만을 정하고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것

에 한하여 문화재를 인정함으로써 각 국의 재량에 맡겨 문화재에 대한 국가 간 이전의 소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실상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화재는 불법 발굴 및 반출로 고고학적, 역사적 정보나 지식이 소실되는 고고학적 문화재와 빈번하게 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물관이나 종교기관,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들이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3조(불법성), 제5조(국가기관 설립 및 문화재 목록작성), 제 6조(반출증명서 제도), 제7조(불법반입 금지), 제8조(제제), 제9조(국제적 공조)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협약의 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천명한 규정한 위반하여 문화재를 반입, 반출 또는 소유권을 양도함은 불법이다.
(제5조)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책 마련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u>국가법안 및 규칙 안 작성</u>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등의 설립과 <u>문화재 목록 작성 및 유지</u>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심 고취, 증진의 교육적 조치
(제6조) 문화재 반출 증명서 제도 도입
(제7조) 불법 반·출입 문화재에 대한 이해당사국의 조치
(제8조) 위반자에 대한 형벌 및 행정적 제재
(제9조) 불법반입과 국제교역 통제, 구체적 조치

위에서 보듯 1970년 협약은 수출증명서 제도 도입, 문화재 목록작성, 박물관, 기록 보관소 설립과 교육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반환에 관한 국가 간 절차 등을 제시하여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방지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였다. 특히 수출증명서 제도는 주요한 장치로 불법 반·출입 억제 효과가 있었다.

반면, Paul M. Bator는 1970년 UNESCO협약의 내용 및 효과에 아주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바, 그에 따르면 이 조항들은 자기 모순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하였다. 이 조약의 결함을 살펴보면 첫째, 자기집행력(Self- executing)결여로 체약국들로 하여금 문화재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하여 문화재 보호 및 감독 기관 설립, 문화재 목록작성, 국내입법화 등의 행정적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 이행 또는 위반한 국가나 단체, 개인에 대한 강제 또는 제재의 수단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체약국의 국내법상 입법조치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행 효력이 없어 협약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시효성의 문제로

이 협약의 성질은 과거 식민지 시대 약탈된 문화재 반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1970년 현재 당시 문화재 불법 도굴 및 불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협약 발효 이후의 반출 문화재에만 적용되어 이미 식민지시기에 중요 문화재가 대량 유출된 기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 셋째, 이 협약은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상대국가로부터 반환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나 미술품이 국가에 의해 중요한 고고학적, 선사적,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 제 7조 (나) (1)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 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목록에 소속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문제는 국가 내 모든 지장 문화재를 파악할 수 없을 뿐 더러 발굴되기 전의 유물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으며 법적 기관에 의해 발굴되기 전 도굴되어 국제미술시장으로 유입된 문화재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중국, 이라크, 멕시코, 페루, 캄보디아와 같은 고고학 유적지가 광대하며 아직 발굴중이거나 미 발굴 유적지가 상당한 국가에서는 이를 모두 목록작성 하기에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넷째, 유네스코 협약은 공법적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선의취득과 같은 사법적 규율을 명확히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⁸²⁾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1995 유니드로와(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 1995 UNIDROIT) 제정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현재 유네스코 가입 국가는 132개국으로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이 1983년 가입하였으며, 중국은 1989년, 일본은 2002년에 가입하였다.

2-3. 1995 유니드로와(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1995년 UNIDROIT 협약이 이어 추가적으로 제정되었다. 1970년 협약이 문화재 불법거래 및 환수에 관한 국제적 여론과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사법(Private law)관점의 실행에서는 큰 난관에 봉착하였다.

82) 2013 유네스코 정책연구보고서, P51.

그 중 하나로 선의의 구매자 보호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도난품 취득자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대륙법계는 선의 취득자 보호에 적극적이다. 각국별로 보상에 대한 입장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1970 유네스코 협약은 도난 또는 불법 수출 문화재 환수 (Restitution) 또는 반환(Return)시 선의의 점유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유네스코는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학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에게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 매매 케이스를 토대로 사법적 규정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 중 문화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하며 선의의 점유자 권리를 지지하는 그룹과 자국의 문화재 보호와 도난, 불법 수출문화재 환수 원칙 확대를 지지하는 그룹의 논쟁은 이어졌다. 이 후 6년간 연구와 검토, 협상 후 다소 파격적인 “문화재의 무조건 반환원칙과 적절한 보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nd Other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on Illicit Trade*가 1995년 6월 24일 로마에서 채택 되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불법문화재의 반출·입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주된 규정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1995 유니드로와 협약은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소유자’나 ‘국가’가 직접 문화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협약은 서로 보충적인 (complementary) 관계에 있다.⁸³⁾

본 협약은 전문과 5개 장(Chapter), 21개 조항(Article)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문제는 도난문화재의 원상회복 및 선의의 점유자 보상 문제였다. 전문에서는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화재 환수 및 반환 촉진을 통하여 문화재 불법거래를 줄이며 인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확인한다. 이는 또한 1970년 UNESCO협약과 마찬가지로 협약의 소급적용배제 원칙을 표명하면서도 이 원칙이 협약 발효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도난과 불법반출 문화재 사례를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

이 협약의 특징은 첫째, 도난 또는 불법반출문화재의 선의취득을 인

83) Lyndel V. Prott, Commentary on The UNIDROIT Convention (Leicester: Institute of Art and Law, 1997), p. 15.

정하지 않으며, 그러한 문화재는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 둘째, 선의의 취득자들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세째,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이 국가지정 문화재만을 반환 대상으로 했다면 유니드로와 협약에서는 미등록문화재나 개인소장문화재에 대해서도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도난품과 문화재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멸시효를 정하였다.

협약의 제 3조와 4조는 도난 문화재 환수(Restitution)와 선의취득의 보상, 제5조와 6조는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Return)과 선의취득의 보상으로 이 협약의 핵심조항이다. 도난 문화재나 불법문화재 소유자는 선의의 취득과는 상관없이 원소유자에게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이 협약이 이 규정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화재 약탈과 도난, 파괴를 막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후 문화재 구매자는 구입 시 판매자로부터 정확한 서류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미술시장과 박물관도 프로버넌스(Provenence, history of objecr)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제 3조) 도난문화재 환수

제3조 (1) 도난된 문화재의 점유자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환 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어떠한 문화재가 발굴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에 의할 경우 불법적으로 발굴되었거나 합법적으로 발굴된 물건이 불법적으로 소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난문화재로 간주된다. (3) 환수에 관한 어떠한 청구이든 청구인이 당해 문화재의 소재 및 점유자의 신원을 안 때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난 시로부터 50년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4) 그러나, 확인된 기념물 내지 고고학적 유적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또는 공공 수집품에 속하는 문화재의 회복에 관한 청구는 당해 청구인이 문화재의 소재와 점유자의 신원을 안 때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 이외의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75년 또는 자국법에 규정된 보다 장기의 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언을 행한 체약국의 기념물, 고고학적 유적지 또는 공공 수집품에서 이탈된 문화재의 회복을 위해 다른 체약국내에서 제기된 청구도 그러한 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6) 전항에서 언급된 선언은 서명, 비준, 수락, 승낙 내지 가입 시에 행하여져야 한다. (7) 이 협약의 목적상, “공공 수집품”은 다음의 주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목록화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별된 일단의 문화재로 구성된다: (a) 체약국; (b) 체약국의 종교적 또는 지역적 당국; (c) 체약국의 종교기관; 또는 (d) 체약국 내에서 본질적으로 문화적, 교육적 내지 과학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당해 국가에서 공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관. (8) 또한, 체약국 내의 종족 내지 원주민 공동체에 속하며 이들이 사용하고, 당해 공동체의 전통적 내지 의식적 이용의 일부인 성

물(聖物) 내지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문화재의 회복을 위한 청구는 공공 수집품에 적용가능한 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제 4조) 선의취득자에 대한 보상

제4조 (1) 도난문화재의 반환을 요구받는 점유자는 당해 문화재가 도난 되었음을 알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경우, 그리고 당해 문화재 취득 시에 상당한 주의를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회복 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전항에서 언급된 점유자의 보상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당해 문화재를 당해 점유자 내지 이전의 양도인에게 양도한 자가 당해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 당해 청구가 제기된 국가의 법에 합치하는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3) 청구인에 의한 점유자에 대한 보상의 지급이 요구될 경우 이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기타의 자로부터 구상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행사하였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격, 지불된 가격, 당해 점유자가 합리적으로 접근가능한 도난문화재 등록부 및 합리적으로 획득하였을 수 있는 기타의 관련정보 및 문서를 참조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동 점유자가 접근가능한 기관들에 조회하였거나 합리적인 자라면 당해 상황에서 취 하였을 수 있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당해 취득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당해 점유자는 상속 또는 기타 무상의 방법으로 당해 문화재를 양도한 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

제5조 (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전시, 연구 내지 복구의 목적상,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반출을 규제하는 국내법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의해 요청국의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반출되었으나 그 허가의 조건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문화재는 불법반출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요청을 받은 국가의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이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는 요청국이 당해 문화재의 자국 영역에서의 제거가 다음 중 하나 이 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함을 확립하거나: (a) 당해 문화재 내지 그 맥락의 물리적 보존; (b) 복합적 문화재의 완전성; (c) 과학적 내지 역사적 성격을 지닌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의 보존; (d) 부족 내지 토착민 공동체에 의한 당해 문화재의 전통적 또는 의식(儀式)적 사용, 또는 당해 문화재가 요청국에 상당한 문화적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확립한 때이다. (4) 이 조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요청이든 요청을 받은 국가의 법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 내지 3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적 내지 법률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거나 이를 동 반하여야 한다. (5) 어떠한 반환요청이든 요청국이 당해 문화재의 소재 및 점유자의 신원을 안 때로 부터 3년의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이든 반출일로부터 또는 당해 문화재 가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허가에 따라 반환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50년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제6조) 선의취득자에 대한 보상

제6조 (1) 문화재가 불법반출된 이후에 이를 취득한 점유자는 그 취득시에 당해 문화재가 불법반출되었음을 알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경우, 반환시에 요청국으로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2) 점유자가 당해 문화재가 불법반출되었는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요청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반출증명서의 부재를 포함하여 당해 취득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보상 대신, 그리고 요청국과의 합의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하는 점유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a) 당해 문화재의 소유권 보유; 또는 (b) 요청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자신이 선택한 자에 게 소유권을 유·무상으로 이전할 것. (4) 이 조에 따라 당해 문화재를 반환하는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당해국이 기타의 자로부터 비용을 구상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당해 점유자는 상속 또는 기타 무상의 방법으로 당해 문화재를 양도한 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

2017. 6월 말 현재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 당사국은 41개국으로 문화재 원천국인 중남미 국가가 18개국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기원국 5개국, 러시아, 사이프러스 등 역시 문화유산이 풍부한 유럽 국가 15개국이 가입을 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문화재 시장국가들은 당사국이 아니다.

대륙별	가입국가(41개국)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페루,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11개국)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가봉,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튀니지(5)
아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이란, 라오스(5)
유럽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포르투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크로아티아, 아제르바이잔 덴마크, 핀란드(19)
오세아니아	뉴질랜드(1)

* [www. unidroit.org/status-cp](http://www.unidroit.org/status-cp) (2017. 6.7)

3. 1970년 협약 이후 40년 평가 및 미래

2011년 파리에서 3월 15~16일 양일간 1970년 유네스코 협약 40주년 기념 특별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는 문화유산의 불법거래,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고학적, 고생물학적 유산의 위협과 관련, 유네스코 이행과 그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다음에서는 이 회의보고서를 토대로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체결 후 40년 동안 협약이행상의 어려움과 문제점, 미래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회의에는 약 400명에서 500명의 회원국 대표들과 각국으로부터 법률, 고고학, 역사전문가, 학자 및 학생, 언론가 및 일반인이 참석하였다.

먼저 회의에서 발표된 각국의 문화재 불법거래 및 파괴현황은 아래와 같다.

o 문화재 불법거래 현황

- 매년 고대유물 불법거래는 6억 달러를 상회함(2002년)
- 현재 미술시장에서 에트루리아(Etruscan)와 로마 고대유물의 80%가 불법 거래임
- 불법 도굴로부터 최종 매매 동안 그 값은 100배로 증가되고 최종 가격 98%가 미술중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됨.
- 지난 40년 동안 이탈리아 경찰은 80만점의 도난, 불법문화재를 환수하였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문화재는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함

o 고대유물 파괴 현황

- 아프리카 상당수 국가가 문화재의 95%를 잃어버렸음
- 160여만 점의 중국 문화재가 47개국 200개 박물관에 산재한 것으로 그리고 수백만점이 개인 소장자 수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중국은 40만여 개의 고고유적지가 있으나 1980년대 이후 박물관 도난은 3분의 1로 증가하였음
- 터키는 1993년에서 1995년 동안 적어도 17,500건의 미술품 약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 말리는 이집트 다음으로 많은 고고유적지를 가진 나라로 845개 유적지 (125,000m²)중 46%가 도굴되었고 17%가 심각한 손상을 입음

o 문화재 반환 현황

- 미국 일부 박물관이 소장한 불법 도굴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들이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환수됨. 반환된 이탈리아 문화재 120점 중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21점, 게티 박물관(말리부) 60점, 보스턴 박물관 13점, 클리블랜드 박물관 14점, 프린스턴 박물관 8점이 각각 반환됨
- 1993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1.5백만 달러에 구입한 "Treasure of Croesus" 363점이 6년간의 소송 후 터키로 환수됨
- 게티 박물관도 마케도니아의 장례식 금제 화환 등 상당수 미술품을 반환함.
- 이집트는 2002년 이후 5,000점의 불법반출 문화재를 회수함

다음은 기원국과 시장국의 고위전문가, 국제기구, 박물관, 미술시장 전문가들의 공개토론으로 토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 토론 내용: 현재 처한 문화재 불법거래의 심각성,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보유한 국가들의 취약성과 이들 문화유적지의 훼손, 박물관의 미술품 수집 행태, 미술시장의 프로버넌스(Provenance, history of object) 조사 및 관리 강화 등 태도변화

o 요청사항

- 인터폴(INTERPOL): 문화재 불법거래는 매우 특별한 범죄로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UNESCO나 WCO(세계관세기구)와 INTERPOL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 문화유산 보호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며 정부 간 기구는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ICCROM(국제문화재보존 및 복원센터): 훈련의 필요성, 일반대중의 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의 중요성

- 이집트: 이집트 문화유적 약탈 및 훼손 소개. 문화재 불법거래는 한 국가의 당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상당하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협력 필수적임
- 멕시코: 고고학적 불법도굴 문화재 반환에 관한 문제점 제기. 1970년 협약은 등록 문화재만 대상으로 하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재 회복에는 부적절하며 어려움이 많음
- 프랑스: 프랑스 박물관은 1970년 협약을 존중함
- 소더비: 과거 몇 년 동안 미술시장의 문화재(미술품) 소유권과 기원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볼 수 있음. 그러나 옥션 참가자들이 세계 모든 개별 박물관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다음은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s) 회의내용으로 국제규범과 문화재 반환 문제가 토의되었다.

1.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

- UNESCO 1970 유네스코 협약의 영향과 1995 유니드로와 협약의 중요성
- 국제 사법적 협력의 중요성
- 각 국 문화재 불법반출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불법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약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협약들 특히 1970년 협약의 보다 많은 국가 비준과 각국들의 상이한 법들과 조화되어 협약의 완전 이행이 필요함
- 국제규범 틀에 부합되는 양자 협정 체결 확대를 촉구함

2. 고고학적 문화재 불법거래의 보편적 문제와 프로버넌스가 확실하지 않은 문화재의 송환 문제

- : 그리스, 페루, 말리 등 기원국가와 시장국가 미국, 세계박물관협회(ICOM)와 세계관세기구(WCO,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문화재목록(Inventories)관련 제기된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음
- 기원국가와 시장국가의 교육 및 훈련 향상, 역량 강화, 인식 제고,

입법화, 양자협정 체결 필요성 제기

다음으로 1970년 협약의 미래에 대해 체약국 토론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1970 유네스코 협약 의의

- 문화재는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국제 규범
- 선의의 구매자, 출처조사와 같은 개념을 다룸으로써 문화유산 보호와 국제규범 내 실제적 반환을 이룸
- 지속되어야 할 주요역할: 입법화, 문화재 목록작성, 데이터베이스, 문화재 등록, 양자협정, 인식 증진, 윤리강령, 수출증명서 제도, 수출입통제, 경찰과 관세직원 훈련 등
- 문화재 인터넷 유통, 무력 충돌, 시장가격 상승 등 문화재 불법거래는 갈수록 복잡해짐
- 모든 문화재 특히, 고고학적 유물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야 함
- 과테말라: 오늘 날 불법 문화재 거래의 다양한 측면, 즉 윤리적, 정치적, 법적 제고가 필요하며 또한 경제적 제고가 중요함. 유네스코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한다고 주장함
- 최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 투명성 향상
- 워크숍, 역량강화 필요성
- 미술시장과의 협력 중요성
- 문화재 불법수출의 범죄 규정, 범죄 기관과 관련된 조항 강화
- 벨기에, 프랑스는 불법문화재의 기원국가 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간 촉진위원회에 부정적임.
- 일부 협약국 대표들은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전반적 문제점을 토론 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 회의를 조직할 것을 요청함
- 중남미 국가(멕시코, 페루, 과테말라, 쿠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중국, 터키, 짐바브웨 등 기원국가들은 문화재 불법거래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좌절감을 토로함. 특히 도굴꾼들의 불법 도굴,

또는 약탈자의 발견, 밀매로 목록화가 되지 않은 고고학적 유물에 대한 환수 어려움을 지적함

o 1970년 협약의 한계

- 반환요청의 시효성, 대상 문화재의 법적 연관성 증명, 국가소유 증명 부담감
-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현재 국제규범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아르헨티나와 루마니아는 1970년 협약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을 포함시켜 협약 규정을 확대 발전시킬 것을 촉구함
- 반면 시장국인 프랑스와 미국은 이는 규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비준과 보다 적용 방법의 문제라고 봄.
- 중국, 한국, 독일, 이탈리아, 페루 등은 양자협정의 효과에 중요성을 둠
- 미국, 캐나다는 1970년 협약에 의한 양자협정 체결로 수백 점의 고고학적 문화재를 반환하였음
- 보다 강화된 1995 UNIDROIT협약은 3조 2항(불법 발굴 또는 불법 보유된 문화재는 도난 문화재로 봄)에 의거 고고학적 문화재 반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음

<1970년 협약 이후 40년 평가 및 미래> 회의 내용을 통하여 1970년 협약이 당초 가졌던 한계와 문제점이 40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당초 문화유산 원천이 풍부한 기원국의 문화유산 파괴와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을 방지하고자 국제적 동의로 시작하였지만 시장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보호 대상은 축소되고 시효가 설정됨으로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에서 살펴보았듯 문화재 원천국가에서는 여전히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있으며 문화재는 도굴·도난 되어 정보화, 기록화 되지 못한 채 시장국가들로 흘러들어가 박물관에 버젓이 전시되고 있다.

문화 유적지 파괴와 문화재 도난 및 불법반출로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손실이 증가되고 있는 기원국가들은 국제규범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시장국가들은 조약 개정 또는 신규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 문화재 도난 및 반출은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갈수록 심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단지 한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이들 문화재에 대한 기록 소실과 파괴로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 손실을 의미한다. 이에 시장국가들은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 추구에서 벗어나 기원국가들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과 의견을 존중, 1970년 협약의 문제조항 개정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문화재 불법반출을 위한 유네스코 협력기관 및 기구로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 ICCROM(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국제문화재 복원 및 보존연구센터)은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전문 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129개국임

*Interpol(세계경찰기구)

국제범죄 예방 및 소탕을 위한 국가 간 경찰 공조 및 관련기관 지원

*WCO(세계관세 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관세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로 국제 표준개발, 관세절차 간소화 및 조화, 무역 공급망 안전성 확보, 국제무역 촉진, 세관시행 및 준수 활동 강화, 위조 방지 및 민간 파트너십, 청렴성 증진, 지속가능한 관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함

* Unidroit(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국제사법기구)

유니드로와는 독립적 정부간기구로 국가 간 그리고 국가그룹 간 사법, 특히 상법의 현대화, 조화, 조율의 방법과 필요를 연구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장치, 원칙, 규칙을 제정함

2.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국제박물관협회)는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가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임. 1946년 이후 ICOM은 문화유산 보호, 보존, 공유를 사명으로 하는 박물관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음

3. 조사연구기관

*Cultural Heritage Law Program

*Institute of Art and Law

*Working Group on Cultural Heritage

Ⅲ. 미국의 문화재 반환법제 및 사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국가 중 하나로 미술품 수출국이자 동시에 수입국이기도 하다.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미술 수집이 시작되면서 이 수집 과정 중 개인 컬렉터, 딜러, 박물관과 같은 공공기관은 문화재 기원국가들의 법이나 도덕에 반하는 방법으로 획득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남미 아메리카, 그리스, 이집트,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로부터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들이 미국으로 대거 반입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체결국으로 원천국가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했다. 이 장에서는 문화재 반환을 위한 미국의 법제도와 실제적 법 집행 사례를 살펴보겠다.

1. 미국의 문화재 반환 법령 현황

미국의 미술품 및 문화재 보호 관리 법령 체계는 주법(State Law)과 연방법(Federal Law)으로 나누어지며 연방법은 법령, 조약과 행정협정, 행정조치,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진다.

1) 주법

주법 상에는 “문화재”의 개념은 혼하지 않으며 “미술(Fine Art)”에 집중하고 있으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 소수의 주에서만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으로는 1966년에 제정된 뉴욕 미술 및 문화재법(N.Y. Arts & Cultural Affairs Law Art)과 캘리포니아 법(California Civil code §§738)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법은 예술가와 딜러

의 관계, 예술가의 저작 인격권, 소비자 보호 관계와 경매 규제 등을 다루고 있다.

2) 연방법

미국의 문화재 보호 연방법은 문화재 수입국으로서 외국의 문화재 수출 규제 관련법과 자국내 문화 유적 및 유물보호법으로 나누어진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문화재 및 미술품의 자유 무역을 지지하며 미술품 수출을 통제하지 않으며 미술품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친 미술시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1970년 유네스코 당사국으로 다른 당사국들의 문화재 수출통제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법령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가. 법령

1971년, 미국은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멕시코와 최초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72년 콜럼버스 선사 기념물 또는 고고조각 또는 벽화 수입 규제(Regulation of Importation of Pre-Columbian Monumental or Architectural Sculptural or Murals Act)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령은 기원국의 수출증명서 없이 반입되는 문화재 수입을 금지하였다.

나. 조약과 행정협정

미국은 1972년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했으나 국내법인 연방 문화재 협약 이행법(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제정은 10년이 지난 1983년에 이루어졌다. 유네스코 협약을 실행시키는 이 법이 채택되기 까지 미국 내 많은 이견이 있었는바, 미국 국내법 제정이 기원국가로 부터의 문화재 수입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미술시장과 박물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해결책으로 이 법은 기원국가 박물관, 문화기관, 유적지로부터 목록화가 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협약국가들이 약탈된 특별 문화재에 대해서 긴급수입제한 요청할 때 미국 대통령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규정하였다. 이 후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국가들은 이 연방 문

화재 협약 이행법(CPIA)을 근거로 미국과 양자 조약과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조약과 행정협정은 이들 국가의 문화재 불법 유출을 막고 더불어 도난,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CPIA는 연방도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 NSPA) 더불어 미국 문화재 반환의 양대 법으로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다. 행정조치

미국문화재 반환의 가장 중요한 기구로 이민관세청(Immigration Customs Service, ICE)은 불법반출 또는 도난 문화재를 압류, 몰수, 반환할 수 있다. 맥클레인 사건(U.S. v. McClain) 이 후 이들의 권한과 활동은 확장되었으며 특히 뉴욕 Asia Week 행사와 같이 문화재가 대거 몰리는 기간 중 이들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실제로 2016년 Asia Week에서 크리스티 옥션과 개인갤러리에서 불법반출 문화재를 압수 원천국가로 반환하였다. 인터뷰에서 그들은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잠재적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술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밝혔다.

라. 형사소송

연방도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 ISPA)은 미국 검찰이 반환 요청국가를 대신하여 문화재를 도난 또는 불법반출한 자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실제적 형을 가하며 대상 문화재를 반환하는 법이다. 이 법이 집행된 사례 중 United States v. Hollinshead(1974), United States v. McClain(1979)는 대표적 사례로 아래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마.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문화재 도난이나 불법 반출된 국가가 그 문화재를 불법하게 소유한 자에 대해서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 Turkey v. OKS Partners, Peru v. Johnson 사건판결, Cyprus v. Golsberg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연방 문화재 협약 이행법(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과 연방도품법(National Stolen Property Act)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2. 연방 문화재협약 이행법(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

미국은 고고학적 그리고 문화적 재화의 주요한 시장으로 도난 또는 불법 유입 문화재의 발견은 기원국과의 심각한 긴장관계를 조성하였다. 미국은 1972년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하면서 1개의 유보(Reservation)와 6개의 양해(Agreement)를 부과하였는바, 양해는 유네스코 협약의 자기집행력 결여로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이행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행법 제정에는 10년이 걸린바 관련 기관 및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특히 아트 딜러 등 미술 거래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이 한 원인으로 이들은 미국이 편향적인 수입규제를 실시할 경우 유사한 규제가 없는 시장 국가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더욱 성행할 거라고 주장하였다.

1982년 의회는 연방 문화재협약 이행법(The Convention on Cultural Property Implementation Act)을 통과시켜 1983년 1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법률로 승인하였다. 이 법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유네스코협약 7조 (나)(1)과 9조를 이행하게 하였다.

* 제 7조 (나) (1)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서 발효된 이후 본 협약의 타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종교적 또는 세속적 공공기념관 또는 유사기관에서 도난된 문화재가 그 기관의 물품 목록에 소속됨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 그 반입을 금지한다.

* 제 9조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문화적 유산이 고고학적 또는 인종학적 물품의 약탈로 인하여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이에 영향을 입을 타 당사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의 당사국은 관계된 특정물품의 반출이나 반입 및 국제교역의 통제를 포함하는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합의된 국제적 노력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각 관계당사국은 요청국의 문화적인 유산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도의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CPIA 제정으로 1970년 유네스코협약 당사국은 미국에 자국의 고고학적 또는 인종학적 문화재에 대하여 반입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당사국들은 미국에 반환 요청을 하기 전 자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CPIA는 (i) 약탈로 인하여 반환 요청국의 문화재가 위협에 직면하였다는 사실 (ii) 반환 요청국이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 (iii) 반입제한이 필요하고 반입제한이 그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 (iv) 그 반입제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입증 없이는 CPIA에 따르더라도 당사국의 박물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목록으로 기록하지 아니하는 한, 문화재의 반입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CPIA 집행관련 기관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미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의 역할

국무부는 고고학적 또는 민족적 예술작품의 약탈로 국가적 문화유산이 위협에 처한 타 국가들이 제안한 수입제한 요청을 받아들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문화재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고 국무부에 일정한 조치를 제안하게 됨. 대통령의 권한 아래서 국무부는 그 요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고 요청국가와 문화재 협정을 맺음

문화재 자문위원회의(Cultur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 역할

- 타국 정부의 문화유산 보호 지원 요청 검토, 현행 이행 동의 확장 요구 고려, 현행 동의사항 이행에 관한 대통령 자문
- 국무부(교육 및 문화 담당 국무차관보)에 조사결과 및 권장 사항 제출
- 문화유산센터(Cultural Heritage Center)는 동 위원회에 기술적, 행정적 지원
- 문화재자문위원회 구성 : 대통령이 지명하며 11명으로 구성됨
 - 박물관 대표자(2명), 고고학, 인류학, 민족학 분야 전문가(3),

문화재 국제매매 전문가(3), 일반대중대표(3)

수입제한 집행기구(Enforcement of the Import Restrictions)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문화재보호 정보 기구(Cultural Property Protection Resources)

- 국토안보부/이민관세청(DHS/ICE)
 - 문화재 반환에 관한 정보 제공
- FBI(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문화재 절도범 및 도난문화재 환송
 - 세계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터폴(International police organization)
 - 국제범죄 예방 및 소탕을 위한 국가간 경찰 공조 및 관련기관 지원

CPIA로 MOU를 체결한 국가는 다음 15개국이며 MOU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체결국(15개국)
 - 벨리즈, 볼리비아, 불가리아, 캄보디아, 중국,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엘사바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탈리아, 말리, 니과라가, 페루
- 주요내용
 - 요청국들의 위협에 처한 특정 범주 문화재 수입 금지에 대한 동의
 - 요청국들의 문화재 보존 및 보호에 대한 일련의 구체적 자구책 설정, 학문 및 과학 연구 장려, 미국 대중에게 폭 넓은 문화유산 접근 제공

3. 미국 연방도품법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연방도품법(NSPA)은 1934년 주 지방 집행공무원의 관할을 회피할 시도로 범인이 주 경계선을 넘어 도품을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CPIA가 민사적 구제법이라면 반면 NSPA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기원국가로부터 문화재 도난 또는 불법수출한 자를 직접 고발하여 형벌을 가하는 형사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of 1934 (NSPA) (18 U.S.C. §§ 2314 et seq.) prohibits the transportation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f any goods with a value of \$5,000 or more with the knowledge that they were illegally obtained, and prohibits the "fencing" of such goods. The NSPA allows foreign countries' cultural patrimony legislation to be effectively enforced within U.S. territory by U.S. courts. These patrimony laws generally consider theft to include the unauthorized excavation or removal of artifacts from their archaeological context in the country of origin. Such laws must confer ownership of these antiquities to the country of origin's government.

Section 2314 of the NSPA criminalizes the transportation of illegally obtained goods valued at \$5,000 or more across border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by persons knowing the goods to be stolen, converted, or taken by fraud, with a sanction of either a fine or imprisonment of up to ten years, or both.

Section 2315 of the NSPA criminalizes the sale or receipt (for possession, concealment, storage, or disposal) of illegally obtained goods valued at \$5,000 or more which have crossed a State or U.S. boundary after being stolen, unlawfully converted, or taken by an individual that has the knowledge that such goods were illegally obtained. This section also prohibits the pledging or accepting as security for a loan any goods, wares, merchandise, or securities of the value of \$500 or more, which have crossed a state or United States boundary after being stolen, unlawfully converted, or taken, **knowing the same** to have been stolen, unlawfully converted, or taken. The sanction includes a fine or imprisonment of up to ten years, or both.

이에 따르면 연방도품법 범죄 성립요건은 첫째, 물품 가액이 5,000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주간 또는 국제적 상거래에 의해 운송되었어야 하며 셋째, 피고가 그 물품이 도난 또는 사기 등 불법 취득임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도난(Stolen)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소유자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문화재가 국유재산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이를 일반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하며 문화재반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NSPA는 반환 요청국가로 하여금 그 문화재가 자국으로부터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문화재가 법적 기록 없이 도굴 또는 불법 거래되었음을 감안할 때 NSPA의 이 조항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판례 및 사례>

- **United States v. Hollinshead, (1974).**

홀린헤드 사건은 NSPA하의 첫 판결로 달러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과테말라 정글에서 희귀한 Pre-Columbian 마야인의 중심주(Stele)를 미국으로 불법 반입한 사건을 다룬 판결로 피고인들은 도품 운송공모 및 교사로 기소되었다.

과테말라 법은 이미 모든 문화재를 국유화했으므로 과테말라 정부의 허가 없이 반출은 위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반출이 위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들을 유죄평결하고 문화재를 과테말라로 반환하였다. 이 사건은 과테말라의 법제가 문화재 국유를 충분히 증거 하였으므로 미국 법원으로 하여금 기원국가 매장문화재보호법 검토 및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 **United States v. McClain, (1977)**

- 맥클레인 사건은 피고인들이 멕시코에서 Pre-Columbian 유물을 미국으로 불법반입, 매매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피고들이 도난품임을 알고 있었고 무허가 반출행위가 멕시코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야했다. 문화재 위조 기록이 그들의 위법을

증명하였고 NSPA는 멕시코의 문화재가 물리적으로 멕시코 정부에 의해 소유되지는 않았지만 1926년 멕시코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국유를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고고학적·예술적·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멕시코 연방법(Mexico's Federal Law on Archaeological, Artistic and Historic Monuments)』은 동산 및 부동산에 해당하는 고고학적 기념물이 양도불가능하고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국가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⁸⁴⁾ 법원은 피고의 매장문화재보호법의 모호성과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동의하지만 피고들이 그 작품들이 도난품임과 반출이 위법임을 알고 문화재 출처 은폐, 조작을 증거로 도난품 운송 위반으로 유죄 선고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발굴문화재법을 물리적 소유와 동일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대량규모로 존재하는 불법약탈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⁸⁵⁾ 반면 McClain 법리는 미국 법원이 외국법을 부당하게 집행하도록 강요하고, 중요한 판례법과 헌법률을 회피하며 문화재의 자유거래에 관한 미국 정책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⁸⁶⁾

• United States v. Schultz, (2002~2004)

- 연방법원은 전미 중개인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Dealers in Ancient, Oriental and Primitive Art) 전 회장이자 뉴욕 미술중개상인 숄츠(Frederick Schultz)를 이집트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문화재 밀수 및 매매 혐의로 기소하였다. 숄츠와 공모자들은 이집트 고대유물을 미국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허위 라벨을 부착, 운송하고 유물을 위작하였다. 이에 연방법원은 이집트 매장문화재보호법이 1983년 이후 문화재 국유화가 충분히 명료함을 인정, NSPA에 의거 그들이 이집트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하였으며 유물이 도난품임을 확정하였다. 숄츠는 외국의 발굴문화재보호법을 위반으로 미국에서 유죄평결은 부당하다며 곧 항소하였고 딜러 단체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미국 미술시장을 질식시킨다며 숄츠를 적극 지지하였다. 반면 고고학계는 법원의 유죄 판결에 환영하는 대조

84) 문화재 반환 분쟁 해결 국제사례 연구, p12

85) Gerstenblith, supra note 12, at 228-34. 문화재 반환 분쟁 해결 국제사례 연구, p11에서 재인용

86) Charles De Visscher, International Protection of Works of Art and Historic Monuments, in U.S. Dep't of St., Documents & State Papers 821, 823 (June 1949), reprinted in John H. Merryman & Albert E. Elsen, Law, Ethics, and the Visual Arts 214 (4th ed. 2002). 문화재 반환 분쟁 해결 국제사례 연구, p11에서 재인용

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고학계는 이들의 무분별한 도굴 행위가 고고학적, 문화인류학적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소실되는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술츠 유죄 판결은 미국이 기원국의 매장문화재보호법 인정, “도난”, “피고의 주지(Knowing)” 증명의 어려움이 있는 기원국의 이익을 대변한 사건으로 술처가 미술계의 명망 있는 권위자로 불법 문화재 반출을 주도했다는 것에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NSPA의 법 내용과 사건판결 내용을 종합할 때 기원국의 도난 및 불법거래 유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첫째, 기소 대상 문화재는 기원국 내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매장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둘째, 피고가 도난 및 불법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셋째, 불법반입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반출제한 규정과 동시에 문화재 국유화가 명시되어야 도난의 개념에 해당한다. 넷째, 기원국의 매장문화재보호법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해야하며 충분한 공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미국의 불법 문화재 반환 사례

1970년 이후 대부분의 문화 원천국가들은 문화재의 국유화와 수출증명서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매장문화재발굴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립, 발전시켰다. 반면 1970년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국가 박물관이나 개인 컬렉터들은 미술품(문화재) 구매 시 미술품의 출처조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 내 주요 박물관들은 원소유자나 원천국가로부터 문화재 반환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 예로, 1990년대 말, 스위스와 이탈리아 경찰은 이탈리아 미술상 메디치(Giacomo Medici)의 제네바 창고를 기습하여 고대유물 불법 매매에 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많은 미국 박물관이 그로부터 문화재를 구입하였으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보스턴 박물관, 게티 박물관, 프린스턴 박물관들이 총 69점의 문화재를 이탈리아로 반환하여야 하였다.⁸⁷⁾

이 사건 후 2008년 미국박물관장 협회(Association of Art Museum Directors)는 미술품 구입 윤리강령을 채택,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약 200개 박물관이 이에 동의하였다. 즉, 박물관은 향후 고고학 유물과 고대유물을 구입할 시 그 문화재들이 1970년 이전에 원천국가 밖에서 소재하였으며 적법하게 수출되었음이 증명되지 않고서는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미국 내 거의 모든 박물관은 자체적으로 프로버넌스(Provenance, history of art) 정책을 수립하며 프로버넌스 담당 전문 직원을 확보하는 등 적법성, 투명성을 기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박물관은 미술품(문화재) 환수나 반환에 처하고 있다. 이들 박물관들은 자체 프로버넌스 조사 시 불법성을 발견하여 이민관세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신고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소유자나 원천국가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미국이민관세청이 박물관, 사법부, 원천국가 기관, 인터폴 등과 협력하여 반환한 3년간(2015~2017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⁸⁸⁾

1) 2017년 반환사례

○ 한국으로 반환: 조선시대 어보 2점

- 2017.6.40. ICE는 \$1,500,000에 달하는 조선시대 문정어보와 현종어보 2점의 문화재를 한국에 반환함. 문정어보는 한국전쟁(1950~1953)때, 현종어보는 일본강점기(1910~1945)에 도난당한 것으로 여겨짐. 문정어보는 로스앤젤레스 박물관이 2000년 구입 소장하고 있었으며 프로버넌스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문화재청은 2013년 ICE에 조사를 의뢰함. 이 조사과정에서 개인컬렉션에서 현정어보도 발견, 문화재 2점을 한국정부에 반환 함.

○ 이탈리아로 반환: 14~15세기 도서류 3점과 고대 로마 동전 200점

- 2017. 4. 19. ICE와 보스턴 공공 도서관은 14세기 원고와 책 2점, 15세기 삽화 1점과 200점의 고대 로마 동전을 이탈리아로 반환함. 보스턴 도서관은 이들 문화재를 1900년 후반, 유명 딜러로부터 구입함.

87) James Cuno, "The Case Against Repatriating Museum Artifacts", November/December 2014 Issue

88) <https://www.ice.gov/news/overview>

14세기, 15세기 원고와 삽화는 이탈리아 역사의 주요 한 부분으로 예술가 길드의 종교적 관계와 협력 등을 규정한 책으로 당시 베네치아 길드의 발전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1980년 대주교의 서명이 있는 또 다른 책은 보스턴 도서관이 1980년 캘리포니아 딜러로부터 적법하게 구입, 소장 중 프로버넌스 문제를 발견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에 신고, 조사 중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미국에 불법 수입된 고대 로마 동전도 발견, 세 점의 도서류와 함께 이탈리아로 반환 함.

○ 페루로 반환: 중요 문화재 404점 반환

- 2017.1.12. ICE는 8세기 도자기 296점과 51점의 직물과 빗, 구슬 목걸이 등 고대 문화재와 18세기 중요 도서 1점 등 총 404점의 문화재를 페루에 반환 함.

2) 2016년 반환 사례

○ 이탈리아와 반환: 14세기 악보와 19세기 그림 1점

- 2016.12.9. ICE는 14세기 악보 1점과 19세기 그림 1점을 이탈리아로 반환 함. Cordex로 알려진 이 악보집은 14세기 중엽 제작 된 성가집으로 Saint Lucy의 이니셜 L을 표시한 주요 페이지가 사라졌으며 이 후 프로버넌스가 조작, 1952년 클리블랜드 박물관이 구입, 소장하고 있었음. 후에 한 미술사학자가 온라인 카달로그에서 발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클리블랜드 박물관은 이 1페이지 악보가 성가집 전체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 반환 결정함. 코렐리 그림(Corelli Painting)은 2001년 나폴리 개인 가정에서 도난 된 지 14년 후, 2014년 펜실버니아 옥션에서 캘리포니아 미술상이 구매함. 이 후 정보를 포착한 이탈리아 경찰이 HSI에 협조를 요청, 수사가 진행됨

○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반환: 선사 콜롬비아 문화재 23점

- 2016.12.7. ICE는 1200~1450년대 그릇, 도끼, 끌 등 선사 콜롬비아

유물 23점을 반환함. 이로써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은 그들 조상들의 생활상을 관찰, 연구할 수 있게 됨

○ 이집트로 반환: 미이라 등 이집트 고대유물 5점 반환

- 2016.12.1. ICE는 불법 반출된 기원전 8세기 미라, 모형 장례식 보트, 조각상, 석관 등 이집트 고대유물 5점을 이집트에 반환 함. 이들은 2009년과 2010년 브룩클린 창고와 뉴욕(New York) 선적에서 HSI에 의해 압수된 유물들임

○ 인디아로 반환: 고대 주요유물 200여점

- 2016.6.6. 인도의 가장 중요한 종교 유적지에서 도난된 2000년 전 조각상, 청동기, 토기 등 200여점이 인도로 반환됨. 이 조각상은 Saint Manikkavichavakar로 시반 사원(Sivan Temple)에서 도난 되었음. 이 조각상은 1.5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는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임. 대다수 유물들은 2007년 인도 미술상 Subhash Kapoor의 선적 조사 중 압수된 것으로 그는 수천만 달러의 고대유물을 약탈한 것으로 조사받고 있음. 이들 유물은 호놀룰루 박물관과 피바디 엑세스 박물관에서도 일부 발견되어 HSI와 협력함. 현재까지 Kapoor로부터 압수한 미술품 가치는 100백만 달러에 이름.

○ 이탈리아로 반환: 1493년 콜럼부스 편지

- 2016.5.18. 1493년 콜럼부스는 미 대륙 발견에 대하여 페르디난드 왕(King Ferdinand)왕과 이사벨라 여왕(Queen Isabella)에게 편지를 썼으며 이후 인쇄됨. 이번에 반환된 편지는 Stephan Planck에 의해 인쇄된 것으로 Planck II Columbus Letter로 알려짐. 2012년 HSI는 리카디아나 도서관(Riccardiana Library)이 소장한 Planck II Columbus Letter이 위조품으로 교체되었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였음. 이 후 스미소니언 전문가와 공조 후 이 편지 인쇄본이 플로렌스 리카디아나 도서관에서 분실된 이 후 2004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기증되었음을 밝혀내고 반환하게 됨.

- 몽골리아로 반환: 공룡 뼈와 알 화석 등 7점
 - 2016.4.5. 몽골은 세계적으로 공룡 화석을 많이 보유한 국가로 공룡 화석의 사유와 수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번에 반환된 공룡 뼈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Bactrosaurus, Protoceratops와 Psittcosaurus, Protoceratops 알 화석과 Alioramus와 Psittcosaurus의 두개골 등 7점임. 몽골은 미국과 양자협정 체결 국가로 지난 3년 동안 23점의 공룡 화석이 반환됨.
- 인도로 반환: 2점의 조각
 - 2016.3.11. ICE는 Asia Week 행사 시작 4일 전 크리스티 옥션에서 2점의 인도 사암 조각 패널(A Buff Sandstone Stele of Rishabhanata, A Buff Sandstone Panel Depicting Revanta and His Entourage)을 압수함. Asia Week 행사는 매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미술 관련 가장 큰 행사로 수십만 점의 미술품이 거래됨. 이번에 압수된 8세기~10세기 패널들은 원 조각품에서 잘려져 수많은 선적에 숨겨져 들어왔음. 이들 경제적 가치는 각각 150,000달러와 300,000달러로 ICE의 사전 조사로 선의의 구매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 파키스탄으로 반환: 2세기 harles Darwin) 책
 - 2016.3.11. ICE는 Asia Week 행사 중 East Coast 옥션으로 갈 2세기 간다라 불교미술 두상을 압수함. 이 조각은 많은 양의 도금으로 수만 달러의 가치를 가짐. 일반적으로 약탈자들은 밀수와 매매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조각상의 머리 부분을 절단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이는 물리적 훼손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전체적 가치와 역사적 지식을 사라지게 하는 야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러시아로 반환: 스탈린 편지와 피터 대제 칙령
 - 2016.3.3. ICE는 18세기~19세기 28점의 문서를 러시아에 반환함. 이 문서들은 러시아 국립 아카이브(Russian State Archives)에서 도난된 후 여러 옥션, 갤러리와 개인들의 판매 리스트에서 발견됨. 2006

년과 2012년 사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ICE에 의해 압수되어 이번에 반환하게 됨. 이들 반환 목록은 다음을 포함하는 바, 러시아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임

*A signed order from Josef Stalin issued on March 14, 1944

*A decree signed by Peter the Great

*Numerous decrees signed by empresses and emperors dating from 1736-1893

*17 drawings by Russian architect Yakov Cherikov

○ 중국으로 반환: 12억 년 고대화석과 고대유물 반환

- 2015.12.10. 12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랍토르 화석(Microraptor fossil)이 중국으로 반환 됨. 이 화석은 '모조화석'으로 허위 신고 되어 미국으로 반입되었음. HSI는 플로리다 고생물 무역상을 조사 후 진품임을 발견, 중국으로 반환함. 또 다른 딜러는 반입 금지된 중국 특정 시기의 문화재 프로버넌스를 조작, 반입하다 CBP에 적발되어 압수, 반환되었음

중국과 미국은 2009년 양자협정 체결 이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방지를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캐나다로 반환: 다윈(Charles Darwin) 책

- 2015.10.8. 다윈의 자연선택 과정에 관한 책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는 캐나다 Mount Saint Vincent University Library에서 도난 됨. 2012년 고대유물 밀수업자 John Mark Tillman은 이 책 초판과 다윈의 다른 책 *"Darwinism: An Exposition of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과 *"The Effects of Cross and Self Fertilization in the Vegetable Kingdom"*을 도서관에서 절도함. 이후 *"On the Origin of Species"*를 캐나다 컬렉터에게 팔았으며 이 책은 2012년 뉴욕 소더비 옥션에서 42,500달러에 팔림. 2013년 RCMP는 티먼을 체포하였으며 2014년 소더비로부터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를 회수하여 캐나다로 반환 함.

○ 프랑스로 반환: 15백만 달러 피카소 그림

- 2015.8.13. 2001년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서 피카소 그림 *"La Coiffeuse"*가 도난 됨. 이 그림은 1911년 입체파의 전형적 작품으로 1998년 뮌헨에서 마지막으로 전시된 후 2001년 파리 현대국립박물관에서 도난 됨. 곧 인터폴 도난미술품 데이터베이스(Interpol Stolen Works of Art database)에 공고되었으며 2014년 HSI와 CBP가 뉴욕(New York)에서 선적 컨테이너 조사 중 발견하였음. 당시 선적 표에는 30유로 가치의 공예품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원국가 출처 등 정보가 허위 기재되었음. 압수 후 프랑스 박물관 전문가들에 의해 피카소의 진품으로 밝혀져 프랑스로 반환하게 됨.

○ 브라질로 반환: 그림 1점, 조각 1점

- 2015.6.18. ICE는 Jean-Michel Basquiat의 그림 *"Hannibal"* 와 Roman Togatus 조각 1점을 브라질로 반환함. 이들 미술품들은 국가재정시스템 위반과 자금세탁으로 21년 실형을 받은 브라질 은행가 Edemar Cid Ferreira가 소장한 많은 미술품들 중 하나였음. 그의 소장품 가치는 20~30백만 달러로 브라질 정부에 의해 몰수 절차를 밟음. 이 두 작품과 다른 미술품 몇 점이 실종되어 브라질 정부와 인터폴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 2007년 HSI에 의해 뉴욕 한 수창고에서 발견 됨. 이들은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선적되었는데 8백만 달러에 달하는 *"Hannibal"*와 조각품을 각각 100달러로 기재 하는 등 미국 세관법 위반으로 몰수, 반환됨.

○ 이집트로 반환: 고대미술품 수십 점

- 2015.4.22. ICE는 그레코 로만(Greco-Roman) 양식의 석관 포함 고대 미술품 수십 점을 이집트로 반환함. 이번 반환은 전 세계로부터 7,000여점의 미술품을 불법 밀수한 국제범죄조직 소탕을 위한 ICE의 5개년 수사 프로그램 "Operation Mummy's Curse" 에 의해 이루어 짐. 2009년 뉴욕 HSI는 브룩클린 창고에서 석관을 찾아내었으며

2010년 CBP는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밀수된 장례용 보트 모형과 조각상, 65점의 고대 동전 등 고대미술품을 압수함. 이들 반환으로 이집트인들은 또 하나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게 됨.

○ 인도로 반환: 고대유물 7점

- 2015.4.1. ICE와 호놀룰루 박물관은 2000년 된 테라코타 방울, 조각, 건축물 파편, 기와 등 고대유물 7점을 인도로 반환함.

2014년 ICE는 인도의 한 사원에서 약탈된 테라코타 방울이 호놀룰루 박물관에서 소장중임을 발견 이 사실을 박물관 측에 알림. 박물관은 이 유물의 허위 프로버넌스를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였으며 ICE에 적극 협력함. 프로버넌스를 확대 조사 하던 중, 추가로 6점의 소장품이 인도 사원이나 고대불교 유적지에서 약탈된 유물임을 발견, 반환하게 됨

○ 이라크로 반환: 고대유물 및 사담후세인 시기 미술품 65점

- 2015.3.16. ICE는 앗시리아 왕 사곤 2세(Sargon II) 두상 조각과 수메리아 청동 도끼 등 65점을 이라크에 반환함. 이들 유물들은 뉴욕, 오스틴, 뉴헤븐, 볼티모어에서 HSI에 의해 압수된 밀수품들임. 2008년 뉴욕 HSI는 두바이에서 고대유물 딜러가 이라크로부터 약탈된 고대유물을 각지로 팔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뉴욕에 선적된 사곤 2세 흉상을 압수함. 리비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등으로부터 불법 반입된 고대유물들은 뉴욕 주요 박물관, 갤러리, 옥션과 연계되어 있었음. 2012년, 뉴헤븐 HSI는 사담후세인 전용 공항과 궁전에서 절취된 고가의 물품, 특히 금제품들이 밀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압수함.

오스틴 HSI는 온라인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출토된 검, 칼, 도끼를 판매한다는 포스트를 보고 조사에 착수, 2012년 판매자가 수입서류 없이 수메리아(현재 이라크)지역 출토 청동 도끼를 판매한 것을 발견, 압수함.

2014년 볼티모어 HSI는 2004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한 미국 시민이 이라크 정부 건물에서 창틀을 뜯어내어 집으로 가져왔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그 시민과 접촉함. 이 시민은 이라크 물품 수입을 위하여 미국이나 이라크 당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함

○ 이탈리아로 반환: 문화재 19점

- 2015.2. ICE는 17세기 캐논, 5세기 그리스 도자기와 기원전 460년~300년 문화재들을 이탈리아로 반환함. 이들은 2011년 이후 뉴욕, 보스톤, 버팔로, 볼티모어, 마이애미,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HSI에 의해 압수된 밀수품들임.

뉴욕 HSI는 고대유물 밀수업자로부터 이탈리아에서 불법 도굴, 밀수된 고대로마 대리석관 두경과 크리스티 옥션에서 도난 문화재 3점을 압수함. CBP는 비잔틴 금제 펜던트, 조각품과 토기 파편을 개인딜러로부터 압수함. 2009년 뉴욕 HSI는 뉴욕의 고대유물 컬렉터가 이탈리아 고분에서 약탈된 문화재를 거래한다는 정보를 입수, 이를 몰수함. 2009년 HSI Fort Lauderdale는 이탈리아 경찰로부터 그리핀 갤러리(Griffin Gallery) 웹사이트에 게시된 2점의 문화재(Votive head와 Oinochoe, 와인단지)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음. Votive Head는 1982년 이탈리아 개인 컬렉션에서 도난된 것으로 갤러리는 이를 알고 HSI에 반환함. 볼티모어 HSI는 로마 HSI로부터 로마 도서관(Historical National Library of Agriculture)에서 도난된 이탈리아 고대 책 "*Historia natural di Ferrante Imperato Napolitano*"가 2011년 이탈리아 옥션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에 의해 구입되었다는 정보를 입수, 대학과 접촉 후 반환함.

2012년 샌디에고 HSI는 뉴욕 HSI로부터 폼페이 유적에서 불법 발굴된 4점의 고대유물을 Allen E. Paulson Trust가 소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트러스트와 접촉 후 반환함.

IV. 맺는 말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한국실을 관람하던 중 구운몽도 아래에서 연세 지긋하신 미국 노신사(도슨트)가 올망졸망 앓은 유치원생들에게 구운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모습을 마주하였다. 호기심 가득한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저들 중 한 두 명은 반드시 장래 한국미술 큐레이터가 될 것 같은 생각과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밀려왔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에서 미국의 중년 부인(도슨트)이 미국인, 유럽인, 중동인, 아시아인이 섞인 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국실 상설전 컬렉션에 대해 “도슨트 토크(Docent Talk)”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한국고대사, 중세사, 근대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특히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설명할 때 한국인만큼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함을 느낄 수 있었다. 도슨트 토크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일원들이 한국문화재와 역사에 대해 한 가지 이상씩 질문을 할 때도 흐뭇함을 느꼈다.

디트로이트 박물관은 2018년 아시아관 재개관을 앞두고 한국문화재 검토 및 평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박물관 관계자와 아시아 커뮤니티 대표들이 모여 한국문화재 개별 작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고 활용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우리 문화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클리블랜드 박물관 아시아갤러리를 지키는 경비원에게 한·중·일 갤러리에 대한 느낌을 물으니 중국실은 웅장하지만 중압감이 들고, 일본실은 화려하지만 곧 질리고 한국실에 있으면 정신이 자유로워지고 비워지는 것 같아 한국실이 좋단다. 진지하게 말하는 것에서 듣기 좋아라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

누군가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가 네덜란드 사람이기에 그의 그림이 네덜란드에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고흐 그림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간 서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날 한국문화재 또한 한국인만을 위한 향유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 노신사와 중년 부인, 유치원생, 경비원들의 지적 즐거움과 꿈과 정신적

충만함의 대상이다. 2년 동안 미국 박물관과 워크숍, 심포지엄을 관람, 참석하며 느낀 바는 좀 거창할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재를 통한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한국문화재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문화·예술적 욕구, 지적 욕구, 경제적 욕구, 통틀어 그들의 삶을 충족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문화재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1차적으로 미국 박물관과 큐레이터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 박물관과 큐레이터들이 한국문화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제교류재단은 한국실 지원, 소장품 조사, 보존처리 지원, 전시회 및 미술품 대여 지원, 출판 및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립해야 할 것은 지원기관들의 전문성과 통합성이다. 먼저 이들 기관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교류재단의 해외 박물관 한국미술 큐레이터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시 이들 지원기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내용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도 한층 강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일회성 지원과 더불어 인력지원과 인재 양성의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지원은 박물관내 큐레이터나 보존처리가 자리 확보에서 자료조사 연구원, 교육요원 중장기 지원을 들 수 있다. 인재양성으로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글로벌한 전문가(특히 한국미술사 분야나 보존처리 분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미국 대학에서 한국미술사 전문가는 아주 극소수로 극동미술사에서 한국미술사는 제외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박물관 조직에서 큐레이터의 역할과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박물관 리더들은 대다수가 유럽미술 전문가나 중국 또는 일본미술 전문가들로 한국문화나 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미국 박물관 관장 중 아직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한 예로 미국의 어느 박물관 관장은 한국을 방문한 이후

한국문화와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 한국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미술품 확장이나 전시회 개최 등 최종적인 승인은 이사회에 달려 있으나 이들을 설득하는 사람은 부서장과 관장이다. 즉, 리더들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지식과 이해 없이는 큐레이터의 한국문화재 활용은 또 다른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이 장애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리더들의 한국현장 체험이나 역사적·문화적 지식 배양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넷째, 한국의 고고학적, 미술사적, 문화적 연구 성과와 정보가 미국의 문화계와 학계에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심포지엄에서 만난 한 미술사 교수는 한국의 미술사학계가 다소 폐쇄적이며 학문적 교류가 충분하지 않음에 아쉬워하였다. 또한 학계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잡지 등 미디어에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여 한국문화와 미술이 미국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문화적, 예술적 기반과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는 미국사회를 보다 유연하며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으로 그 뿌리는 상류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일반 대중의 기증·기부와 참여에 있다. 문화와 예술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것일 때 바르게 지속되며 향유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증 및 기부, 국민 참여를 일반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신설,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 제도적으로 원천국의 문화재 보호 및 반환에 적극적이다. 나치 정권하에서 약탈되었던 유대인들의 미술품이나 도서 반환을 주도하였으며 1970년 유네스코 협약 이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불법반출 및 도굴 문화재 반환에 관한 행정조약 및 협정을 체결, 원천국가들의 문화유산 보호 및 문화재 반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박물관들이나 옥션들 또한 미술품 구입 윤리강령을 제정, 프로버넌스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미국 국토보안부(Homeland Security Intelligence)는 불법 반입된 원천국가의 문화재 조사 및 반환 기구로 2007년 이후 30여개 국가에 약 8,000여점의 문화재를 반환하였다. 한국은 올해 국토보안부로부터 현종어보와 문정왕후 어보 2점을 반환 받

있으며 포틀랜드 박물관으로부터 오불도(五佛圖)를 돌려받았다. 오불도는 미국인 로버트 마티엘리씨가 1970년대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 1985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 2014년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포틀랜드박물관 소장품 조사 과정에서 오불도가 송광사에서 도난된 불화임을 확인, 마티엘리씨를 설득해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즉, 문화재 환수와 반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바, 무엇보다도 국토보안부와 미국 박물관과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오불도 사례에서 보듯 미국 박물관 소장품 조사는 반환이나 환수 대상 문화재를 발견할 수 기회이므로 한국문화재 소장 박물관 대상 소장품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해외 문화재 목록 및 반환 대상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여 반환 대상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로 법적,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반환은 정부뿐만 아니라 문화계, 예술계, 종교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 전 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며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또한 요구된다. 그러나 국민들로 하여금 해외소재 문화재가 마치 모두 불법반출 또는 약탈 문화재로 환수의 대상인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보고서

1. 국제교류재단, 『해외박물관과 한국실, 새로운 20년』, 2013.
2.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2.
3.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ssion on Holocaust Assets in the United States and Staff Report 『Plunder and Restitution: The U.S. and Holocaust Victim's Assets』, 2000.
4. 2013 유네스코 정책연구 보고서
5. 문화재반환 분쟁해결 국제사례연구

도록

1. George Kuwayama, 『The Joy of Collecting: Far Eastern Art from the Lidow Collection』,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1979.
2. Bonhams, 『Asia Week Gallery Guide』, 2017.3.
2. Cleveland Museum of Art, 『Treasures from Cleveland Museum of Art』, 2012.
3. Cleveland Museum of Art, 『The Lure of Painted Poetry: Japanese and Korean Art』, 2011.
4. Christie's, 『An Inquiring Mind: American Collecting of Japanese and Korean Art』, 2015.4.
5. Christie's, 『An Inquiring Mind: American Collecting of Japanese and Korean Art』, 2016.4.
6. Alien Property Custodian(Assembled by Yamanakam & Company, Inc.), 『Collection of Chinese and Other for Eastern Art』, 1943.
7. Fitzwilliam Museum, 『Korean and Chinese Ceramics』, 1975.
8. The Honolulu Academy of Arts and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Wrappings of Happiness: A Traditional Korean Art Form』, 2003.
9. Morris Museum of Arts and Sciences, 『Highlights of Asian Art: India, China, Korea, Japan』, 1972.
10. Asian Cultural History Program Smithsonian Institute,

- 『Undiscovered Art From the Korean War』 , 2014.
11. Junghee Lee, 『개나리와 진달래꽃, Korean Art in the Collection of the Portland Art Museum in Portland Private Collections』 ,1998.
 12. Syracuse University, 『The John R. Fox Collection of Korean Ceramics』 , 1965.
 13. Yun Yong-I, 『Korean Art from the Gompertz and Other Collections in the Fitzwilliam Museum』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4. Korea-Britain Centennial Committee, 『Classical Korean Embroideries』 , 1986.
 15.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Arts of Korea- A Resource for Educators』 , 2001.
 16. Susan S. Bean and Frederic A. Sharf, 『The Korean Collection of the Peabody Essex Museum』 , Peabody Essex Museum, 1999.
 17. International Exhibition Foundation, 『Auspicious Spirits: Korean Folk Paintings and Related Objects』 , 1983.
 18. New York Japan Society, 『Chinese, Corean and Japanese Potteries』 , 1914.
 19. American Art Association, Inc., 『Korean and Chinese Potteries and Porcelains: The Fitzgerald Collection』 , 1927.

단행본

1. Kathleen Curran, 『The Invention of The American Art Museum』 ,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2016.
2. Katherine R. Tsiang & Martin J. Powers, 『Looking at Asian Art』 , Center for the Art of East Asia Symposia, University of Chicago, 2012.
3. Sherman E. Lee, 『Past, Present, East and West / Sherman E. Lee』 , George Braziller, Inc, 1983.
4. Emily Wiliams, 『The Public Face of Conservation』 , C/O International Academic Projects, 2013.
5. Hero Boothroyd Brooks, 『A Short History of IIC, Foundation and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Artistic Works, 2000.
6. Edward Hobbson, 『Conservation and planning: Changing Values in Policy and Practice』 , 2003.
7. Benjamin March, 『China and Japan in Our Museums』 , American Council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29.
8. Cohen, Warren, 『East Asian Art and American Culture』 , Columbia University

- Press, 1992.
9. Lawrence W. Chisolm, Fenollosa, 『The Far East And American Culture』 , Yale University, 1963.
 10. Max Put, 『Plunder and Pleasure Japanese art in the West 1860-1930』 , Hotei Publishing, 2000.
 11. Ting Chang, 『Travel, Collecting, And Museums of Asian Art in Nineteenth-Century Paris』 ,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13.
 12. Tony Bennett, 『The Birth of the Museum』 , Routledge, 1995.
 13. William George, 『Art Collecting In The United States』 ,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64.
 14. Yamanaka & Company, INC, 『Collection of Chinese and Other far Eastern Art』 , Alien Priperty Custodian, 1943.
 15. Fred Harvey Harrington, 『God, Mammon & the Japanese, Dr. Horace N. Allen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884-1905』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
 16.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 Charles Scribner's Sons, 1894
 17. Chang-Su Cho Houchins, 『An Ethnography of the Hermit Kingdom』 , Smithsonian, 2004
 18. Walter Hough, 『The Bernadou, Allen and Jony Corean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 Smithsonian Institute, 1893.
 19. Robert Oppenheim, 『An Asian Frontier: American anthropology and Korea, 1882-1945』 , University of Nebraska, 2016
 20. Vishakha N. Desai, 『Asian Art History in the Twenty-First Century』 , Sterling and Francine Clark Art Institute, 2007.
 21. The Japan Foundation, 『Japanes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The 1990s』 , Braun-Brumfield, Inc, 1996.
 22. McCune, 『The Arts of Korea』 , Charles E. Tuttle Company, 1962.
 23. Elizabeth Lillehoj, 『Acquisition, Art and Ownership in Edo-Period Japan』 , Floating World Editions, Inc. 2007.
 24. Jeanette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5. Beat Schonenberger, 『The Restitution of Cultural Assets』 , Stampfli Publishers Ltd. Berne, 2009.
 26. John Henry Merryman, 『Imperialism, Art and Restitu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7. Louise Tythacott and Kostas Arvanitis, 『Museums and Restitution』 ,

- Ashgate, 2014.
28. Ernest F. Fenollosa, 『Epochs of Chinese and Japanese Art』, Dover Publications, Inc., 1963.
 29. Vernon Hyde Minor, 『Art History's History』, University of Colorado, 2001.
 30. William Watson, 『Studies in Chinese Archaeology and Art』, The Pindar Press, 1997.
 31. Stacey Pierson, 『Collecting Chinese Art: Interpretation and Display』,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2000.
 32. Jeanette Greenfield, 『The Return of Cultural Treasures』, p85, 2007

논문

1. Charles C. Perkins. "American Art Museums" *The North American Review*, Vol. 111, No. 228. (Jul., 1870), pp. 1-29
2. Elizabeth Johns. "Histories of American Art: The Changing Quest" *Art Journal*, Vol. 44, No. 4. American Art(Winter, 1984), pp. 338-344
3. Neil Harris. "The Divided House of the American Art Museum" *Daedalus*, Vol. 128, No. 3 America's Museums.(Summer, 1999), pp. 33-56
4. Vera L. Zolberg. "Conflicting Visions in American Art Museums" *Theory and Society*, Vol. 10, No. 1.(Jan., 1981), pp. 103-125
5. Cary Y. Liu. "Asian Art Collection: From Exotica to Art and History" *Record of the Art Museum, Princeton University*, Vol. 55, No. 1/2.(1996), pp. 125-134
6. Mimi Hall Yiengpruksawan. "Japanese Art History 2001: The State and Stakes of Research" *The Art Bulletin*, Vol. 83, No. 1(Mar., 2001), pp. 105-122
7. Steven Conn, "Where is the East?: Asian Objects in American Museums, from Nathan Dunn to Charles Freer" *Winterthur Portfolio*, Vol 35, No. 2/3(Summer- Autumn, 2000), pp. 157-173.
8. Warren I. Cohen. "The Henry Luce Foundation and the Study of American- East Asian Relations"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1, No. 3(Fall 1992), pp. 265-267.
9. Warren I. Cohen. "Art Collecting as International Relations: Chinese Art and American Culture"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1, No. 4(Winter 1992), pp. 409-434
10. Yuriko Kuchiki. "The Enemy Trader: The United States and the End

- of Yamanaka" *Impressions*, No. 34(2013), pp. 32-53.
11. Yumiko Yamamori. "Japanese Arts in America, 1895-1920, and the A.A. Vantine and Yamanaka Companies" *Studies in the Decorative Arts*, Vol., No. 2 (Spring-Summer 2008), pp. 96-126.
 12. 박진빈, 『만국박람회에 표현된 미국과 타자, 1876-1904』 「미국사 연구」 18 (2003.11): pp. 133-157.
 13. 조은영, 『미국 박람회에서의 일본-일본신화 만들기와 문화정책』 「미술사 학보」 18 (2002.9.): pp. 75-102.
 14. Li Haowen, "Chinese Buyers Bid Big to Bring Relics Home" Sixth Tone, 2017.3.22.
 15. Warren I. Cohen. "Art Collecting as International Relations: Chinese Art and American Culture"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1, No. 4(Winter 1992), pp. 409-434
 16. Steven Conn, "Where is the East?: Asian Objects in American Museums from Nathan Dunn to Charles Freer" *Winterthur Portfolio*, Vol 35, No. 2/3(Summer-Autumn, 2000), pp. 157-173.
 17. Jennifer Pitman, "China's Presence at the Centennial Exhibition, Philadelphia, 1876", *Studies in the Decorative Arts*, Vol. 10, No. 1(FALL-WINTER 2002-2003)
 18. 왕정화, 『드러난 '중국'-1904년 만청시기의 미국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 연구』 「미술사 논단」 20(2005.6.)
 19. "Nathan Dunn's Chinese Collection at Philadelphia," *American Journal of Science and Arts* 35(1839)
 20. Jason Steuber, 'The Exhibition of Chinese Art at Burlington House, London, 1935-1936', *The Burlington Magazine*, Vol. 148, No. 1241(Aug., 2006)
 21. *The American Magazine of Art*, Vol. 14, No. 8(August, 1923), pp. 453-454
 22. Bulletin of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City of Detroit, Vol. 11, No. 3 (December 1929)
 23. *Parnassus*, Vol. 1, No. 6 (Oct., 1929)
 24. *Parnassus*, Vol. 3, No. 8 (Dec 1931), pp. 25-26
 25. *Parnassus*, Vol. 5, No. 5 (Oct., 1933), pp. 18
 26. *Parnassus*, Vol. 6, No. 6 (Nov., 1933)
 27. *Parnassus*, Vol. 6, No. 7 (Dec., 1934)
 28. Charles Oscar Paullin, "The Opening of Korea by Commodore Shufeld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25, No. 3(Sep., 1910), pp.470-499
 29. Tyler Dennett, "Early American Policy in Korea, 1883-7",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38, No. 1(Mar., 1923), pp.82-103
 30. David Strauss, "The "Far East" in the Mind, 1883-1894: Percival Lowell's Decisive Impact",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 No.3. (Fall 1993), pp.217-241
 31. O.T. Mason, "Corea by Native Artists", *Science*, Vol. ns-8, Issue 183, pp. 115-118

32. Pierre, L. Jouy, "The collection of Korean mortuary pottery in the U.S. National Museum",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1888, 6.30. pp.589-596
33. F.S.K *Museum of Fine Arts Bulletin*, Vol. 9, No. 54(Dec., 1911), pp. 63-64
34. Durr Friedle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ulletin*, Vol. 10, No. 3(Mar., 1915), pp. 43-45
35. Mrs, Langdon Warner, *Bulletin of the Pennsylvania Museum*, Vol. 16, No. 61 (Apr., 1918), pp.17-20
36. J. A. M.,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Vol. 8, No. 8 (Oct., 1921), pp.121-127
37. R.P., *Bulletin of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of the City of Detroit*, Vol. 6, No. 3
38. K. P. S., *The Bulletin of the Cleveland Museum of Art*, Vol. 15, No. 9.(Nov., 1928), pp.182-187
39. *The American Magazine of Art*, Vol. 19, No. 9(Sep, 1928), pp. 519-520
40. Lorraine d'O. Warner, *Notes(Fogg Art Museum)*, Vol. 2, No. 4 (Jun., 1929), pp 125-134
41. Kojiro Tomita,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3, No. 199(Oct., 1935), pp.64-69
42. David B. Little,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9, No. 232(Apr., 1941), pp. 18-19
43. Kojiro Tomita, *Bulletin of the Museum of Fine Arts*, Vol. 39, No. 231 (Feb., 1941), pp. 2-7
44. Helen B. Chapin, *Artibus Asiae*, Vol 11, No. 3 (1948), pp. 189-195
45. Daniel Kane, "Korea in the White City: Korean Participation in the World's Columbian Exhibition of 1893"
46. Sang-hoon Jang, Cultural diplomacy,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 museum: South Korea's first overseas exhibition in the US, 1957 TO 1959, Museum & Society, 2016
47. Nancy Lin, 5,000 Years of Korean Art, Journal of the History of Collections vol. 28 no. 3 (2016)
48. The Perry Centennial Celebration: A case Study in U.S.-Japanese Cultural Diplomac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Review, Vol. 80, No. 3/4(2005), p.146-147
49. 육영수. "'은자(隱者)의 나라' 조선 사대부의 미국문명 견문록 -출품사무대원 정경원과 1893년 시카고 콜롬비아 세계박람회", *역사민속학 제48호*, 2015, pp.304-336
50. 최협, 2008,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한국소장품에 반영된 한국문화: 문화적 표상화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41권 2호, pp.3~38
51. 조은영, "미국 박람회에서 일본-일본신화 만들기와 문화정책", *미술사 학보* 18, (2002.9.)
52. Todd Spangler, "Korean Broadcasters Launch U.S. Streaming Service, Taking on Warner Bros's Drama Fever", *Variety*, 2017.7.24.
53. 김영나, "미국의 미술사학과 미술사교육", *미술사학*, 1987.6.
54. Webster Smith, "Art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1950 to Present", *The Centennial Review*, Vol. 43, No. 2(Spring 1999)

55. David B. Manzella, "The Teaching of Art in the Colleges of the United States: A Comprehension of Current Trends with Those of 1940", *College Art Journal*, Vol. 15, No. 3(Spring), 1956.
56. Paul M. Bator, "An Essay on the International Trade in Art", *Stanford Law Review*, Vol. 34, No. 2(Jan.,1982)
57. Lyndel V. Prott, "Commentary on The UNIDROIT Convention", *Leicester: Institute of Art and Law*, 1997.
58. James Cuno, "The Case Against Repatriating Museum Artifacts", November/December 2014 Issue

신문기사

1. 매일경제, 1981.10.3.
2. "한국미술 오천년 전, 샌프란시스코 전 폐막", 중앙일보, 1979.10.1. 4면,
3. "미국에 실은 '한국의 미', 중앙일보, 1981.10.2. 6면
4. '적자수령'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수장, 재정 논란속 사임, 한국일보, 2017.3.1.

홈페이지

1. www.aam-us.org
2. www.conservation-us.org
3. www.clevelandart.org
4. www.asianart.org
5. www.americanhistory.si.edu
6. www.lacma.org
7. www.onishigallery.com
8. www.asia.si.edu/collections/downloads/Duangfang.pdf
9. www.unidroit.org/status-cp
10. www.ice.gov/news/overview